

국립국어원 2009-01-38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126-14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8

- 책임연구원 : 강 정 희(한남대학교)
- 연구 원 : 장 총 덕(충북대학교)
- 조사 지역 : 경 기 도
- 조사 항목 : 도검(刀劍)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
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강정희(한남대학교)

연구 기관 : 한남대학교

연구책임자 : 강정희

공동연구원 : 장충덕

제1부

사업 개요

제1장 연구 개요	3
1. 조사 개요	3
1.1. 민족생활어의 개념_3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_4	
1.3. 조사 방법_6	
1.3.1. 조사의 의의	1.3.2. 조사 과정의 특징
1.3.3. 조사 시 고려사항	
2. 조사 지침	7
2.1. 현장 조사 지침_8	
2.1.1. 일반 원칙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2.1.3. 제보자 선정 기준	
2.2. 전사 지침_9	
2.3. 올림말 선정 지침_11	
2.3.1. 일반 원칙	2.3.2. 세부기준
2.4. 뜻풀이 지침_14	
2.4.1. 기본 원칙	2.4.2. 뜻풀이 형식
2.4.3. 뜻풀이 용어	
제2장 연구 추진 과정	16
1. 조사 계획	16
2. 조사 보고	17
2.1. 제보자_17	
2.1.1. 이은철(53세)	2.1.2. 이석재(47세)
2.2. 조사 기간 및 방법_19	
2.3. 조사 장소_20	
2.4. 조사 내용_21	

2.5. 조사 결과물_21

제2부 연구 내용

제3장 생애 구술	25
1. 제보자 생애	25
2. 전통검에 대한 관심	31
3. 본격적인 연구-철박물관과의 만남	35
4. 앞으로의 계획	45
제4장 조사된 어휘	53
1. 칼이란?	53
1.1. 칼_53	
1.2. 도와 검의 구분_53	
1.2.1. 도(刀)	1.2.2. 검(劍)
2. 칼의 종류	55
2.1. 환도류(環刀類) _55	
2.1.1. 환도(環刀)	2.1.2. 예도(銳刀)
2.1.3. 요도(腰刀)	2.1.4. 대환도(大環刀)
2.1.5. 중환도(中環刀)	2.1.6. 소환도(小環刀)
2.1.7. 패도(佩刀)	2.1.8. 패검(佩劍)
2.2. 어도(御刀)_58	
2.2.1. 어도(御刀)	2.2.2. 어검(御劍)
2.3. 의도류(儀刀類)_58	
2.3.1. 의도(儀刀)	2.3.2. 운검(雲劍)
2.3.3. 별운도(別雲刀)	2.3.4. 보검(寶劍)
2.4. 참사검류(斬邪劍類)_60	
2.4.1. 참사검(斬邪劍)	2.4.2. 칠성검(七星劍)
2.4.3. 칠성도(七星刀)	2.4.4. 사인검(四寅劍)
2.4.5. 사인참사검(四寅斬邪劍)	2.4.6. 사인도(四寅刀)
2.4.7. 사인참사도(四寅斬邪刀)	2.4.8. 삼인검(三寅劍)
2.4.9. 사진검	2.4.10. 삼진검

- 2.4.11. 삼진도
- 2.5. 장도류(長刀類)_62
 - 2.5.1. 쌍수도(雙手刀)
 - 2.5.2. 장도(長刀)
 - 2.5.3. 장검(長劍)
 - 2.5.4. 왜검(倭劍)
 - 2.5.5. 왜도(倭刀)
 - 2.5.6. 해수도
- 2.6. 장도류(粧刀類)_64
 - 2.6.1. 장도(粧刀)
 - 2.6.2. 금장도(金粧刀)
 - 2.6.3. 은장도(銀粧刀)
 - 2.6.4. 옥장도(玉粧刀)
 - 2.6.5. 목장도(木粧刀)
 - 2.6.6. 대모장도(玳瑁粧刀)
 - 2.6.7. 화각장도(華角粧刀)
 - 2.6.8. 상아장도(象牙粧刀)
 - 2.6.9. 을자장도(乙字粧刀)
 - 2.6.10. 을자도(乙字刀)
 - 2.6.11. 첨사도
 - 2.6.12. 손칼
 - 2.6.13. 주머니칼
 - 2.6.14. 자도(子刀)
- 2.7. 지팡이검(杖劍)_67
 - 2.7.1. 지팡이검(杖劍)
 - 2.7.2. 지팡이도(杖刀)
 - 2.7.3. 창포검(菖蒲劍)
 - 2.7.4. 죽장도(竹杖刀)
 - 2.7.5. 횃대검
- 2.8. 참형도류(斬刑刀類)_69
 - 2.8.1. 참도(斬刀)
 - 2.8.2. 형도(刑刀)
 - 2.8.3. 참수도(斬首刀)
 - 2.8.4. 참형도(斬刑刀)
 - 2.8.5. 망나니칼
- 2.9. 협도(挾刀), 월도(月刀) 및 언월도류(偃月刀類)_70
 - 2.9.1. 협도(挾刀)
 - 2.9.2. 월도(月刀)
 - 2.9.3. 언월도(偃月刀)
 - 2.9.4.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 2.10. 기타_72
 - 2.10.1. 대도(大刀)
 - 2.10.2. 중도(中刀)
 - 2.10.3. 소도(小刀)
 - 2.10.4. 단도(短刀)
 - 2.10.5. 쌍검(雙劍)
 - 2.10.6. 장병기
 - 2.10.7. 단병기
- 3. 칼의 부분 명칭 74
 - 3.1. 칼자루_74
 - 3.1.1. 칼자루
 - 3.1.2. 도병(刀柄)
 - 3.1.3. 검병(劍柄)
 - 3.1.4. 뒷매기
 - 3.1.5. 칼자루마구리
 - 3.1.6. 앞매기
 - 3.1.7. 자루매기
 - 3.1.8. 철준(鐵鑪)
 - 3.1.9. 미철(尾鐵)

3.2. 코등이_77	
3.2.1. 코등이	3.2.2. 고동
3.2.3. 궤혈	3.2.4. 비녀장구멍
3.2.5. 절우(切羽)	3.2.6. 대절우
3.2.7. 소절우	3.2.8. 박환(薄環)
3.3. 호인_80	
3.3.1. 환도막이	3.3.2. 호인(護刃)
3.3.3. 동호인(銅護刃)	3.3.4. 적동호인(赤銅護刃)
3.3.5. 백동호인(白銅護刃)	3.3.6. 철호인(鐵護刃)
3.3.7. 칼날매기	
3.4. 슴베_81	
3.4.1. 슴베	3.4.2. 칼뿌리
3.4.3. 슴베구멍	3.4.4. 목정혈
3.4.5. 유소혈	3.4.6. 목정(目丁)
3.5. 칼날_83	
3.5.1. 칼날	3.5.2. 도신(刀身)
3.5.3. 칼끝	3.5.4. 칼등
3.5.5. 서슬	3.5.6. 혈조(血槽)
3.5.7. 골	3.5.8. 흠
3.5.9. 삼각도(三角刀)	3.5.10. 육각도(六角刀)
3.5.11. 오각도(五角刀)	3.5.12. 의사도(擬似刀)
3.6. 칼집_86	
3.6.1. 칼집	3.6.2. 도초(刀鞘)
3.6.3. 검초(劍鞘)	3.6.4. 칼집입
3.6.5. 칼집마구리	3.6.6. 가락지
3.6.7. 칼집고리	3.6.8. 띠돈
3.6.9. 끈목	
4. 재료	89
4.1. 철광석_89	
4.1.1. 철광석	4.1.2. 자철광
4.1.3. 사철(沙鐵)	4.1.4. 쇧돌
4.2. 철_91	
4.2.1. 무쇠	4.2.2. 생철(生鐵)
4.2.3. 수철(水鐵)	4.2.4. 선철
4.2.5. 시우쇠	4.2.6. 숙철(熟鐵)
4.2.7. 순철	4.2.8. 참쇠

4.2.9. 정철(精鐵)	4.2.10. 뽕쇠
4.2.11. 백련강(百鍊鋼)	4.2.12. 강철(鋼鐵)
4.2.13. 강쇠	4.2.14. 연철(軟鐵)
4.2.15. 떡쇠	4.2.16. 떡철
4.2.17. 해면철(海綿鐵)	4.2.18. 주물(鑄物)
4.2.19. 쇠뿔	4.2.20. 단조철편
4.2.21. 목철	4.2.22. 괴련강(塊鍊鋼)
4.2.23. 잡쇠	4.2.24. 판장쇠
4.2.25. 저탄소강(低炭素鋼)	4.2.26. 중탄소강(中炭素鋼)
4.2.27. 고탄소강(高炭素鋼)	4.2.28. 산화철(酸化鐵)
4.2.29. 구조용강(構造用鋼)	4.2.30. 쇳물
4.2.31. 주철(鑄鐵)	4.2.32. 백주철(白鑄鐵)
4.2.33. 탄소공구강(炭素工具鋼)	
4.3. 칼집_99	
4.3.1. 피나무	4.3.2. 엄나무
4.3.3. 후박나무	
5. 제작 과정	100
5.1. 사람_100	
5.1.1. 대장장이	5.1.2. 야장(冶匠)
5.2. 제철, 제강_101	
5.2.1. 제철(製鐵)	5.2.2. 제강(製鋼)
5.2.3. 직접 제강	5.2.4. 직접 제철
5.2.5. 간접 제강	5.2.6. 간접 제철
5.2.7. 야철	5.2.8. 정련(精鍊)
5.2.9. 탈탄(脫炭)	5.2.10. 침탄(浸炭)
5.2.11. 침탄용해	5.2.12. 탈탄초강
5.2.13. 초강	5.2.14. 경화(硬化)
5.3. 주조_104	
5.3.1. 주조(鑄造)	5.3.2. 거꾸집
5.3.3. 무질부리	
5.4. 단조_105	
5.4.1. 주검(鑄劍)	5.4.2. 단조(鍛造)
5.4.3. 풀무질	5.4.4. 담금질
5.4.5. 메질	5.4.6. 닦달질
5.4.7. 접쇠	5.4.8. 날배기
5.4.9. 뜸질	5.4.10. 뜸들이다
5.4.11. 꺾잡는다	5.4.12. 닦달하다

5.5. 연마_108	
5.5.1. 연마	5.5.2. 슷돌질
5.5.3. 마조	
5.6. 마광, 칠_109	
5.6.1. 마광(磨光)	5.6.2. 생칠(生漆)
6. 제작 도구	110
6.1. 가마, 화로_110	
6.1.1. 대장간	6.1.2. 야장간(冶場間)
6.1.3. 무질부리로	6.1.4. 쇠부리가마
6.1.5. 강엿쇠독	6.1.6. 제강로(製鋼爐)
6.1.7. 제철로	6.1.8. 용해로(鎔解爐)
6.1.9. 용선로(鎔銑爐)	6.1.10. 침탄용해로
6.1.11. 가열로(加熱爐)	6.1.12. 단조로(鍛造爐)
6.1.13. 장입구	6.1.14. 쇠뚝구멍
6.2. 단조_114	
6.2.1. 모루	6.2.2. 쇠모루
6.2.3. 각모루	6.2.4. 뿔모루
6.2.5. 풀무	6.2.6. 풍구
6.2.7. 손풀무	6.2.8. 디딜풀무
6.2.9. 발풀무	6.2.10. 날름판
6.2.11. 메	6.2.12. 큰메
6.2.13. 작은메	6.2.14. 망치
6.2.15. 큰망치	6.2.16. 작은망치
6.2.17. 꼭두망치	6.2.18. 닭달망치
6.2.19. 집게	6.2.20. 불집
6.2.21. 평집	6.2.22. 학주맹이
6.3. 연마_120	
6.3.1. 슷돌	6.3.2. 거친 슷돌
6.3.3. 고운 슷돌	6.3.4. 깎칼
6.4. 마광, 기타_122	
6.4.1. 광쇠	6.4.2. 주척(周尺)
7. 장식	123
7.1. 가죽_123	
7.1.1. 어피(魚皮)	7.1.2. 매화교(梅花鮫)
7.1.3. 교어피(鮫魚皮)	7.1.4. 사어피(沙魚皮)
7.1.5. 해사어피(海沙魚皮)	7.1.6. 가오리가죽

- 7.2. 술_124
 - 7.2.1. 유소
 - 7.2.2. 홍수조아(紅條穗兒)
 - 7.2.3. 다회(多繪)
 - 7.2.4. 봉술
 - 7.2.5. 딸기술
- 7.3. 문양_125
 - 7.3.1. 귀면문(鬼面紋)
 - 7.3.2. 애자문(暉皆紋)
 - 7.3.3. 용문(龍紋)
 - 7.3.4. 치우문(蚩尤紋)
 - 7.3.5. 칠성문(七星紋)
 - 7.3.6. 구성문(九星紋)
 - 7.3.7. 만자문(卍字紋)
 - 7.3.8. 만초문
 - 7.3.9. 연화문
 - 7.3.10. 여의운두문(如意雲頭紋)
 - 7.3.11. 당초문(唐草紋)
 - 7.3.12. 보상화문
 - 7.3.13. 편복문
 - 7.3.14. 경화자국

제3부

연구 결과

제5장 마무리	131
참고문헌	134
부 록	135
찾아보기	157

제1부

사 업 개 요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연구 추진 과정

제1장 연구 개요

1. 조사 개요

1.1. 민족생활어의 개념

인간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문화를 만들며 그 속에서 문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 인간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생활 모형을 창조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생활 모형을 따르며 살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매개체가 바로 언어이다.

민족생활어란 생활과 언어에 민족이란 말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말이다. 민족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우선 한 지역에서 태어나 생활하면서 언어, 문화, 역사 등을 함께하는 인간 집단으로 정의한다. 즉 생활이란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이 실제 삶과 연관되어 고찰되어야 한다. 생활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정서, 인식, 행동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의 대부분은 언어를 매개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일상적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특정 집단 혹은 민족의 고유한 사고 체계와 문화 체계가 형성·발전한다. 따라서 민족의 정체성, 사고 체계, 문화 등은 그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생활양식을 창출하기도 하며 이미 만들어진 생활양식을 따르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한 민족이 살아 온 삶의 모습, 사고체계, 정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 민족의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생활어의 어휘, 형식, 의미, 용례, 담화 등의 재발견과 조사를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다.

민족문화를 조사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한국 민족문화의 개념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 민족문화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사람과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의 문화도 포함된다.
- 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이룩한 문화는 한민족 구성원에 의하여 연구 변용된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국 민족문화에 포함된다.
- 한민족이 우리 강역 안에서 이룩한 문화 외에도 외국으로 일시 진출하거나 항구적으로 이주하여 이룩한 문화도 한국 민족문화에 포함된다.

- 선사시대의 생활양상도 한국 민족문화에 포함된다.
- 자연 그 자체는 문화가 아니지만 한민족에 의하여 이용되고 의미를 부여한 자취가 있을 때는 한국 민족문화로 다룬다.
- 현대 문화의 양상은 전통 문화와의 연관이 파악되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나라에서의 독자성 또는 특수성이 보편성과 함께 인정되어야 한국 민족문화이다.
- 민족문화는 민족·강역·역사·자연·생활·사회·사고·언어·예술 등 아홉 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이상과 같은 한국 민족문화의 개념과 범위 규정은 앞으로 수행할 이 사업의 조사 대상과 영역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사피어 워프의 가설(Sapir Whorf 가설, 언어의 상대주의 이론)에 보면 언어구조나 실제 사용하는 언어형식이 사용자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언어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많은 언어 형식을 창조한다. 사용자가 그만큼 사고를 많이 한다는 말이다. 북극의 이누이트족은 눈, 얼음, 바람을 아주 세분된, 수십 개의 말로 표현한다. 필리핀 민도르의 하우누족은 450종 이상의 동물과 1,500종 이상의 식물을 구분한다. 실제 공인된 공식 도감의 분류보다 400여종이 더 많다.

어떤 언어 사용자의 죽음은 그가 가진 독특한 생활어도 함께 사라짐을 의미한다. 언젠가 아프리카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한 사람의 노인이 사망할 때마다 하나의 박물관이 사라지고, 하나의 도서관이 사라진다.” 문자가 아닌 구전으로 지식과 지혜가 전수되는 아프리카의 문화 전통에서 오래도록 살아 온 한 노인은 그 사람 자체가 박물관이고 도서관이었다(강신표, 인제대).

이러한 관점은 조사 대상과 조사 영역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누구를 조사해야 하고,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해답을 이 관점을 토대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민족생활어란 한국 민족이 그들의 문화 속에 담고 있는 생활 어휘, 형식, 의미, 용례, 담화 등을 모두 포함한 용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민족생활어 조사란 바로 그러한 한국 민족 문화 모형을 가진 인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 어휘들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한 민족 내에서 사용한 언어는 그 민족의 사고와 행동양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것은 사람들의 일상적 활동과 연계된 생활어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음운이나 문법과는 달리 어휘, 의미, 용례, 담화에는 그 시대의 다양한 특징적 상황이 반영된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사물과 행동이 나타나면서 그에 합당한 어휘가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어휘

부족 현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 언어의 의미가 더 확대되거나 기존 어휘가 새로운 의미로 변화하거나 새로운 어휘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이나 관념의 형성,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생겨날 때 나타나는 새말이나 기존 의미의 변화, 문화변동에 직접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휘이므로 어휘의 변화가 가장 심하다. 따라서 우리말의 어휘가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사회적·정치적·문화적인 변화양상까지도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계층, 성, 지역, 연령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범위한 생활어의 음성, 어휘, 의미, 용례, 담론, 사진, 동영상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사고력 증진과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광범위한 민족생활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와 한민족의 고유한 사유체계와 행동 양식의 역동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 구조와 활동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 유지, 발전 되어온 국어의 어휘, 의미, 용례, 소통양식 등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 수집, 정리, 보관, 활용에 관해 연구를 한다.

한 민족의 삶 속에 내재한 생생한 생활어를 조사함으로써 그와 연관된 생활 자료를 보존할 수 있고, 그동안 간과되어 온 민족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대의 올바른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고 국가발전의 가시적 성과도 제시할 수 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사회·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소멸·쇠퇴하는 반면 다른 많은 직업들이 창출됨에 따라 국어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생활 양식이 바뀌고 있다. 빠르게 소멸되어 가는 전통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민족생활어를 수집·정리하고 활용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 어휘, 의미, 용례의 다양성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탈근대 혹은 지식·정보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되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생활어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고 활용하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를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맞추어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세기 민족생활어의 조사대상이 되는 민중들은 소수의 예를 제외하면 대개 고령자일 경우가 많다. 민족생활어 조사의 긴급성은 바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제기된다. 그러므로 지난 세기를 살면서 일상의 온갖 생활어를 생생히 사용해 왔던 고령자들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생활어를 긴급하게 발굴·조사하지 않으면 참으로 귀중한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의 생활어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난 세기의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의 생활어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구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노년세대들의 소외의식을 줄이고 그들의 자존감도 회복시킨다. 또한 소외계층의 생활어나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생활어도 조사하여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소외감을 해소한다. 아울러 당대의 고령층과 소외계층 사람들의 의식을 파악하고, 그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생생한 증거

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과 업적을 정리 집대성하여 새로운 한국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1.3. 조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적용하는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이다. 민속지적 조사 방법은 경험적이고 질적인 조사 방법론이며, 일정한 질문지를 만들어 질문지 안의 내용만을 조사하던 방법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조사자의 융통성과 인내가 필요하다.

1.3.1. 조사의 의의

- 행위자(제보자) 관점에서 이해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행위자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
- 조사 대상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 의식적 행위와 실제적 행위 모두 포착하고 규명해야 한다.
- 조사 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심층적 인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2. 조사 과정의 특징

- 연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탐색조사(Pilot Study)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연구대상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조사원의 체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그 일을 경험하면서 조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참여관찰, 인터뷰, 문헌자료 수집과 분석, 담화조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이 동원될 수 있고, 이것은 조사원이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조사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임기응변과 융통성이다.

1.3.3. 조사 시 고려사항

- 사례가 지닌 역사적 조건이나 외부 상황적 연결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조사 대상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사례가 지닌 특수성과 일반성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윤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인, 집단의 행동과 말이 기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과 과정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 조사 지침

조사는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반영하는 의례·의생활·식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고유의 토속어(입말 구술 자료)을 채록하기 위한 기층생활어 조사와 산업 현장이나 생업 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어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직업관련어 조사로 나뉜다.

- 기층생활어 조사 : 언어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통 민속(토속) 생활어 채록
- 직업관련어 조사 : 언어사회의 특정 구성원들이 그들의 생업과 연관된 생활환경, 제례의식, 민간신앙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특수 어휘 채록¹⁾

조사는 직접 질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기층생활어 조사는 앞서 조사되지 않았거나, 표준어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 전통 민속(토속) 생활어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 어휘와 직접 대응하지 않거나, 그 외 기존의 사전류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층생활어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 항목을 고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규격화된 조사방식으로 생활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질문지도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여 현장에 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방법론을 활용하며, 구술체 자료(입말 구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전에 오르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입말 구술 자료와 어휘 자료를 전면적으로 조사·수집한다. 아래와 같은 분야의 어휘 자료를 현장에서 직접질문 조사방식으로 조사·수집 정리한다.

가) 입말 구술 자료 : 일생의례, 생업활동, 의생활, 식생활, 거주생활, 세시풍속, 민속놀이, 질병과 민간요법, 특수 직업 어휘농업, 어업, 임업, 광업, 목축업) 등.

나) 어휘 자료 : 민족 고유 전통문화 어휘, 직업어 자료

2.1. 현장 조사 지침

2.1.1. 일반 원칙

- 각 조사 지역에 해당하는 토속생활어와 문법형태소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 조사 현장에서 채록된 모든 어휘를 수집하되 같은 대상에 대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조사한다. 만약 조사된 어휘가 전형적인 특징(의미)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
- 어휘론적 변종만을 어휘 항목으로 선정하고, 음운론적 변종들은 어휘 항목 선정에서 제외한다.
- 조사된 어휘 항목에 대해서 사전 편찬을 위한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된 어휘의 용례는 2개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사진자료와 음성자료는 최종 어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 어휘의 실물이 존재할 경우 모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명칭은 질문지의 그림에 직접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디지털 카메라로 접사 촬영하여 제출한다.
- 올림말 선별 기준에 의해서 올림말로 등록하지 못한 어휘도 조사 자료 정리 방식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어휘 목록은 국어원에서 검토, 올림말로 선정 가능한 어휘들은 다시 조사자에게 보내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조사 분야의 특성에 맞는 조사 지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분야의 어휘는 인간문화재나 기능 보유자를 찾아가 조사할 필요도 있다. 또한 조사 분야 중에서 지리적 변종이 예상되는 어휘들은 지역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 분야의 특성에 맞는 조사 지점 선정
- 지리적 변종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 지역 선정

2.1.3. 제보자 선정 기준

이 사업의 성격상 기존의 방언학에서 적용하여 왔던 제보자 선정기준(NORMs)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은 조사 상황에 맞게 정하되 될 수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자는 조사 지역에서 3대 이상 거주한 50~60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물에 관한 생활어를 잘 아는 토박이로 한다.
- 70세 이상의 제보자는 되도록 학력이 낮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고, 50대와 60대의 경우는 중학교 정도 졸업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 눈과 귀가 어둡지 않고 치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구술체 자료의 채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입담이 있는 사람이 제보자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어 조사는 조사 대상 어휘의 특성에 따라 제보자가 선정될 수 있으므로,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 기준을 따르되, 조사 대상 분야의 특성에 맞게 제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조사 분야의 특성에 맞게 제보자를 선정한다.
- 직업 관련 제보자의 경우 조사 대상 직업을 10년 이상 지속한, 어느 정도 연배가 있고 관록 있는 제보자를 선정한다. 단 조상 때부터 동일 직업을 가지고 이어온 제보자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제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주변에 동일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어 구별을 위해 또 다른 제보자로 선정하여 비교한다.

2.2. 전사 지침

※ 어휘 수집을 위한 전사 지침을 따르되, 음운론적인 정밀 전사가 필요한 경우(구술전사 등)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전사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 올림말(표제항) 및 용례
 - 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어간을 밝혀 적는다.
 - ② 유기음화, 경음화, ㄷ-구개음화, 유음화, 자음군단순화, 비음화 등과 같은 공시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한 음운변화나 음성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국또 → 국도, 가치 → 같이, 노코 → 놓고, 실라 → 신라, 감만 → 값만,
 흑또 → 흑도
 - ③ 일반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해서 예상되지 않는 음운변화 혹은 음성변화 또한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어휘들이 올림말로 선정될 경우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예) 김뺨 → 김밥, 양념깐장 → 양념간장, 서울써 → 서울서, 돈또 → 돈도
 - ④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는 것도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⑤ 단모음 ‘ㅈ’이 이중모음 [we]나 [e]로 실현되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하되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차뽈 → 참뽈(참외), 헤이 → 헤이(회의) 등
- ⑥ 이중모음 ‘ㄴ’이 예측가능한 음성환경에서 [e]나 [i]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민주주이 → 민주주의
 나에 → 나의
 이사 → 이사(의사)
 이자 → 이자(의자)
- ⑦ 이중모음 ‘ㄴ’이 [-]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의사 → 으사(의사)
 나으 → 나으(나의)
 으자 → 으자(의자)
- ⑧ 자음 뒤에서 이중모음 ‘ㄷ’이 [e]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지혜 → 지헤
 해성 → 헤성
- ⑨ 단모음 ‘ㄷ’나 ‘ㅈ’이 [E]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ㄷ’이면 ‘ㄷ’, ‘ㅈ’이면 ‘ㅈ’로 전사한다.
예) 대떡[E-] → 대떡
- ⑩ 단모음 ‘ㄴ’나 ‘ㄷ’이 [D]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ㄴ’이면 ‘ㄴ’, ‘ㄷ’이면 ‘ㄷ’로 전사한다.
- ⑪ 전설 모음 앞에서 ‘ㅅ’이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샨람 → 샤람
 세수 → 세수 등
- ⑫ 음장은 별도의 기호를 두어 전사하지 않으며, 다만 올림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 ⑬ 체언 어간말 자음 ‘ㄷ, ㅌ, ㅊ, ㅈ’ 등이 곡용 페러다임에서 마찰음 ‘ㅅ’으로 실현된 경우에는 소리는 나는 대로 전사하고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둔다.
예) 바시 → 바티(밭이)
 저시 → 젓티(젓이)
 꼬시 → 꽃티(꽃이)
- ⑭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변이형들은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보뚝기다>보뚱기다, 안기다>양기다, 암개>양개 등

- ⑮ 변자음화에 의한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익꼬 → 있고, 묵꼬 → 묻고(埋) 등
- ⑯ 표준어에서 ㅅ-불규칙, ㄴ-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이 정칙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한다.
예) 이서서, 부서라, 지서라 등
추버서, 매버서, 짜버서 등

2.3. 올림말 선정 지침

2.3.1. 일반 원칙

- ① 모든 어휘론적 변종들은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② 단순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음장, 장단,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 자음군단순화, 위치동화, 활음화, ㄷ-구개음화(형태소 경계) 등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기저형의 예측이 가능한 표면형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다음의 올림말 선정 세부기준을 참고하되, 필요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올림말 선정의 예외를 결정한다.

2.3.2. 세부기준

- ① 음라우트 실현형 : 괴기, 핵교, 호랭이, 귀경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게재자음 제약에도 불구하고 음라우트가 실현된 경우에는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매디(마디), 쇠리(소리), 개지다(가지다) 등).
- ② 어두경음화 실현형 : 걱정(걱정), 쏘주(소주), 까지, 깨구리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ㄱ-구개음화 실현형 : 질(길), 지둥(기둥)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④ ㅎ-구개음화 실현형 : 성(형), 소자(효자), 심(힘), 송년(홍년)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⑤ 체언 어간말 자음군의 어간재구조화형 : 흑(흙), 닥(닭), 갑(값)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⑥ 체언 어간말 자음 ‘ㄱ’와 ‘ㄷ’의 음운론적 교체형 : 바대(바다), 가매(가마), 감재(감자), 붕에(붕어), 고등에(고등어), 잉에(잉어)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⑦ 치찰음화(혹은 구개모음화) 실현형 : 벼슬(벼실), 썩나물(쓴나물), 씨다(쓰다, 苦)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⑧ 모음 상승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ㅗ : 자두(자도), 삼춘(삼촌), 사둔(사돈), 가우리(가오리)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ㅑ : 그지(거지), 은니(언니), 그짓말(거짓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ㅕ>ㅣ : 기(蟹), 시상(세상), 히푸다(해푸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⑨ 유음 아래서 ‘ㅡ’의 전설모음화 : 흐리다(流), 마리다(마르다), 고리다(고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⑩ 순음 아래서 ‘·>ㅏ’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 : 몰(馬), 풀(밭), 붉다(빨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⑪ 어두음절에서 ‘ㅏ>ㅗ’의 교체형 : 새다리(사다리), 채곡채곡(차곡차곡), 재갈(자갈)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⑫ 순음 아래서 ‘ㅓ>ㅗ’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체형 : 봉어리(병어리), 불(벌), 보짐(버짐), 모루(머루)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⑬ 자음첨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ㅁ-첨가 : 모가지>모감지, 호맹이>흙맹이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ㄴ-첨가 : 고치다>곤치다, 까치>깐치, 무치다>문치다, 나중>난중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ㄹ-첨가 : 고르다>골르다, 도르다>돌르다(속이다, 흙치다), 지리>질리(길이)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ㄹ. ㅇ-첨가 : 해구다>행구다, 배우다>방우다(배우다), 베이다>벙이다(배우다)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⑭ 단순 모음 교체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ㅓ : 망>명(그물), 쇠망>쇠명, 살강>설경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ㅏ : 구석>구삭, 흘청>홀창, 베개청>베개창, 수령>수랑, 뚜껍>뚜깇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ㅣ>ㅕ : 비늘>베늘, 비누>베누, 함씨>함씨(할머니), 개비>게베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ㄹ. ㄱ>기 : 고자리>괴자리, 도토리>되토리, 코>괴, 꼬랑>피랑(도랑), 고>괴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ㅁ. ㄴ>네 : 괴기>계기, 괴비>계비(식물), 외우다>예우다, 뵈시다>메시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ㅂ. ㄷ>기 : 구저리>귀저리(구더기), 굴독>귓독, 꾸다>뀌다, 추다>취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ㅅ. ㄴ>니 : 팽이>핑이, 왜홀태>외홀태, 산토펙이>산토펙이, 께>피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⑮ 단순 자음 교체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자음교체가 지역적 특성일 경우는 예외)

ㄱ. ㅂ>기 : 자봉침>자광침, 버마제비>거마제비, 덩석>덕석, 고부리다>고구리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ㄴ. ㅂ>ㅁ : 진눈깨비>진눈깨미, 버버리>버머리, 땅개비>땅개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ㄷ. ㅁ>ㅂ : 나막신>나박신, 대리미>대리비, 입감>입갑, 비점>비첩(버집)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ㄹ. ㄱ>ㅂ : 주걱>주벽, 웅구럭대기>웅구럽대기(미꾸라지)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ㅁ. ㄱ>ㅇ : 닥성냥>당성냥, 복송씨>봉송씨, 꼭다리>꽁다리(꼬리), 물팍>물팡(무릎),
 어덕>어딩(언덕), 꼭사리>꽁사리(송사리), 등
 ☞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ㅂ. ㄱ>ㅎ : 아곱>아홉, 뚝>뚛, 숙->숯-(雄), 군지>훈지(그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⑯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안기다>앙기다, 암캐>앙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⑰ ‘ㅡ’ 삽입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형 : 앓다>안즈다, 엮다>여끄다, 앙기다>앙그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⑱ ‘△’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여수~여시, 가슬~가실, 잇다(이서라~잇꼬), 붓다(부서라~붓꼬)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⑲ ‘ㄹ’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솔~소풀~소불(부추), 장팍~장꼬방(장독대), 마름~말밤, 덩다, 춡다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⑳ ‘ㄱ’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가새~가시개, 물개~모래, 생강~새양, 시렁~실경, 개암~깨금, 질구다~지루다(기르다) 등

2.4.3. 뜻풀이 용어

- ① 뜻풀이에 사용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표제어로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 ☞ 단, 해당 표제어가 전문어인 경우에는 표제어가 아닌 단어를 뜻풀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② 뜻을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는 용어를 고르되, 가급적 쉬운 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③ 한자어와 고유어가 비슷한 빈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고유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원칙적으로 준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준말이 사용 빈도가 높거나 문맥상 준말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는 준말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연구 추진 과정

1. 조사 계획

본 조사는 ‘2009년 민족생활어 조사’의 일환으로 ‘칼’과 관련한 생활어(직업어)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어휘 목록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수많은 외침을 겪어왔다.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우수한 무기를 보유하고 그 무기를 사용하여 이 땅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나의 민족으로서 고유한 문화를 누리며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녹슨 환도, 깃 없는 화살 한 점도 우리 민족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나 총과 화약이 발명되고 전투에서 칼을 사용하는 것이 사라진 지금 우리는 무기로써의 칼의 존재를 잊어가고 있다. 우리 민족을 수호하고 지켜오며, 우리의 정신이 배어 있는 칼은 그저 박물관의 유리관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검을 숭상하여 오던 민족이다. 옛 문헌의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의 도검은 현대의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보다 훨씬 친숙한 기물로서 선조들의 일상생활과 함께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칼은 본시 양의 기물이어서 음의 기운을 제압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 조선시대 도검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조선시대는 물론 우리 역사를 통해 도검은 집안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이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사인검(四寅劍)처럼 재앙을 물리치거나 귀신을 쫓아버리고, 칠성검(七星劍)처럼 주인을 보호하고 행운을 불러오는 양의 기운을 띤 길상의 기물이었던 것이다(이석재, 2008).

한국 도검의 역사는 옛 고조선으로부터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로 이어져 내려오다 일제강점기 동안에 그 맥이 끊어졌으나, 현대의 도검 장인들이 그 맥을 찾아 각기 나름대로 발전시키고 있다. 앞으로는 옛 장인의 기품이 배어 있는 우리 전통 도검 문화의 뿌리를 찾아 복원하고, 전통적 기법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조사에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도검장을 통하여 ‘칼이란 무엇이며, 칼의 종류, 칼의 부분 명칭, 재료, 제작 과정, 제작 도구, 장식 등과 관련한 어휘를 조사 정리하였다.

2. 조사 보고

2.1. 제보자

조사 대상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기타
도검(刀劍)	이은철	남	53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181-3	도검장
	이석재	남	47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30-1	경인미술관 관장 도검 수집 및 연구자

2.1.1. 이은철(53세)



[사진 1] 도검장 이은철(53)

이은철 도검장은 전통방식 그대로 도검을 만들고 있는 장인이다. 우리나라 전통의 제련기법을 복원하기 위해 20여 년 동안 노력한 끝에 드디어 100여 년간 단절되었던 전통야철기법의 복원에 성공하였다.

이은철 도검장은 원래 화가가 되고 싶었다. 그러던 중 1980년 미술 전문지인 『계간미술』에서 실린 현재 은장도의 모습과 현실에 대한 비판이 한 글을 읽고 전통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의 은장도는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에만 비중을 두고, 정작 칼의 생명인 검신을 만드는 철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때 우리나라 전통야철 제련법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인은 이때부터 전통 방식으로 칼을 만드는 기술과 전통 야철 기술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은철 장인은 젊은 시절 집 근처 대장간에서 쇠를 다루는 기술을 익혔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1984년부터 전통검을 복원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전통방식으로 철을 뽑아내는 기술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혼자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철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서적은 물론 외국서적까지 읽어가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철에 매달렸다. 혼자 힘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2000년에 음성에 위치한 ‘철박물관’을 알게 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당시 전통제철 복원을 위한 실험을 준비하던 철박물관에서 이은철 도검장에게 작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했다. 17년 동안 홀로 연구를 계속해온 그는 이때부터 많은 학자들과 접촉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그 후 2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2년 드디어 전통제철 복원 실험을 성공하게 된다. 전통적인 재료를 얻고 칼을 만드는 기술로 재현된 복원 실험 결과 전통검과 같은 성분의 검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는 이제 전통방식으로 철을 생산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완벽히 습득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오로지 조상들의 숨결이 담긴 명검을 만드는 것과 단절되었던 전통을 이어갈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라 하였다.

2.1.2. 이석재(47세)



[사진 2] 경인미술관 관장 이석재(47)

경인미술관 이석재 관장은 미술관 안에 어검당(御劍堂)이라는 도검류 전시관을 따로 설치했을 정도로 칼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이석재 관장의 부친은 우리나라 현대 태권도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금홍 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이 원래 무예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이 관장도 어릴 때부터 무술을 익혀 태권도, 18기 등의 고수로 알려져 있다. 어릴 때부터 집안에 진검도 있었고, 조선의 보도(寶刀)나 중국 칼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에는 칼 자체보다 칼을 쓰는 법에 관심이 많았으나 대학에 입학한 이후 칼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때부터 칼을 소장한 박물관을 다니며 칼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평소 칼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삼촌이 전통도검을 선물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틈틈이 칼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수집한 칼 등 무구류(武具類)는 칼 수천 점을 포함하여 1만 2000여 점에 달한다. 이 수량은 다른 박물관 전체가 소장하고 있는 것보다 많은 양이다. 무구류(武具類) 특히 도검류에 있어서는 국내 최대 소장가다.

이석재 관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도검 분야의 권위자다. 그는 도검 수집은 물론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그의 인검(寅劍) 연구는 학계에서 인정하는 대표적 업적이다. 또한 도검류의 도량형인 척관법(尺貫法)이 영조척(營造尺)이 아니라 주척(周尺)임을 입증

해 조선시대 도검 연구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각종 자를 미터법으로 환산해보면 평균 수치가 주척은 약 20cm, 영조척은 약 30cm다. 조선시대 도검의 유형과 구조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한 것도 그의 주요 업적이다.

이석재 관장은 지금도 사재(私財)를 털어 칼을 수집하고 있다. 도검류 수집은 선대부터 30여 년을 이어온 일이다. 주위 사람들이 칼 박물관을 세우라는 권유를 많이 하고 있다. 현재 수집된 자료만 하더라도 무구류 분야에서 국내 최대의 박물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고, 그것보다는 전통도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통도검은 훌륭한 문화재이므로 전통도검의 보존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여야 되며, 또한 국민들이 전통도검을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2.2. 조사 기간 및 방법

2009년 5월 26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민족생활어 조사는 크게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두 기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검류와 관련한 참고문헌 조사 및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문헌에 기록된 조사 어휘를 항목별로 수집하고 목록화하여,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본격적인 현지조사는 8월 5일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중 제보자의 생애 구술 및 도검류어휘 조사는 여섯 차례이고, 사진 촬영을 세 차례 실시하였다.

조사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세부 추진 계획(월, 일)	비 고
1	○ 문헌 어휘 조사 및 예비 조사(6.1.~7.31.)	
2	○ 1차 현지 조사: 예비 조사, 도검류 사진 촬영(8.5.)	이은철
3	○ 2차 현지 조사: 도검류 어휘 조사(8.9)	이은철
4	○ 3차 현지 조사: 제보자 생애 구술 조사(8.12)	이은철
5	○ 4차 현지 조사: 제철 분야 어휘 조사(8.14)	이은철
6	○ 5차 현지 조사: 제작 과정 사진 촬영(8.18.)	이은철
7	○ 6차 현지 조사: 도검류 어휘 조사(9.3.)	이은철
8	○ 7차 현지 조사: 도검류 어휘조사(10.20.)	이석재
9	○ 8차 현지 조사: 도검류 사진 촬영-경인미술관(10.27.)	이석재
10	○ 9차 현지 조사: 도검류 어휘조사(11.3.)	이석재
11	○ 녹음 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 정리(10.20.~11.5.)	
12	○ 최종보고서 작성(11.5.~11.20.)	

본 연구를 위해 적용된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 (ethnography) 조사 방법이다. 민속지적 조사 방법은 경험적이고 질적인 방법론이며 일정한 질문지를 만들어 질문지 안의 내용만을 조사하던 방법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조사자가 임기응변과 융통성을 발휘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다.

어휘 조사를 할 때는 문헌 조사를 통한 질문지를 작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보자의 설명 중 질문지에 없는 항목이나 제작 과정과 제작 도구에 대한 용어도 조사하였다.

2.3. 조사 장소

조사는 제보자의 작업장이나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다. 각 제보자들의 조사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이은철 : 제보자의 작업장(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181-3)

전화번호: 011-719-0898



[사진 3] 이은철 도검장 작업실



[사진 4] 이은철 도검장 작업장(대장간)

□ 이석재 : 경인미술관 내 어검당(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30-1)

전화번호: 02-733-4451



[사진 5] 경인미술관



[사진 6] 어검당(경인미술관 내)

2.4. 조사 내용

본 조사에서는 도검류와 관련한 어휘를 조사하였다. 먼저 도(刀)와 검(劍)의 특징과 차이를 살펴보고, 칼의 종류, 부분 명칭, 재료, 제작 과정, 제작 도구, 장식과 문양 등을 조사하였다.

구분	종류
종 류	환도, 어도, 운검, 쌍수도, 예도, 지팡이검, 사인검, 삼인검, 칠성검, 참수도, 협도, 월도, 언월도, 쌍검, 왜검, 횃대검 등
부분 명칭	칼자루, 코등이, 절우, 박환, 환도막이, 호인, 스페, 칼날, 혈조, 궤혈, 칼집, 칼집마구리, 가락지, 끈목, 띠돈 등
재 료	무쇠, 시우쇠, 강쇠, 뿔쇠, 떡쇠, 해면철, 괴련강 등
제작 과정	무질부리, 담금질, 메질, 접쇠, 닦달질, 날베기, 뜸질 등
제작 도구	무질부리로, 강엿쇠둑, 모루, 풀무, 메, 망치, 숫돌 등
장 식	사어피, 매화교, 봉술, 딸기술, 치우문, 귀면문 등

2.5. 조사 결과물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사 결과는 어휘 엑셀 자료,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구분하여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였다. 조사 어휘는 범주를 나누고, 해당 어휘의 올림말·해당 표준어·발음·품사·뜻풀이·실제 용례를 기록하였다. 음성 자료는 제보자가 실제 발화한 음성을 분절하여 저장하고, 조사 어휘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도 가능한 모두 수집하였다. 제보자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는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였다.

도검 관련 어휘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 총 정리표】

조사대상	조사내역 구분	조 사 어 휘		음 성 자 료		영 상 자 료	
		총 어휘 수	미등재 어휘	구술/전사	분절 음성	사 진	동영상
도검(刀劍)		266	138	6/6 ²⁾	*266	81	1

2) 음성파일 6개의 총 전사 시간은 6시간 35분이다.

제2부

연 구 내 용

제3장 생애 구술

제4장 조사된 어휘

제3장 생애 구술

1. 제보자 생애

@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의 생애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저 이은철이에요. 그래서 저 은나라 은 자가 원래 우리 돌림이라 은나라 은 자를 써요. 조선 정종 왕에 11대손 덕천군 파예요.



[사진 7] 도겸장 이은철(53)

@ 그럼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오십셋이죠. 세상 나이가 보통 오십셋이라고 그러는데

@ 57년생이신가요?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시골서는 군대 안 보내고 어찌구 그럴려구 1년씩 다 늦게 출생신고를 해서…….

@ 옛날에는 뭐 많이 그랬죠.

예. 그렇게 그래서 58년생으로 지금 기록돼 있어요.

@ 예.

출생 자체가 시골 강촌이고, 문화 혜택이 없는 그런 곳인 시골에서 나서 전기도 안

들어오죠. 뭐 다 그렇죠. 읍내나 아니면 군소재지나 가야지 이제 있는데. 뭐 버스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땀가 요때 이제 하여튼 그때 버스가 들어온 거 같아요.

@ 어릴 때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 어릴 때 제가 장손인데. 그 저희 큰 삼촌이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되는 분이 총각이셨는데, 큰삼촌이 저를 이제 큰조카고 그러니까 이빠해서 뭘 자꾸 만들어줬어요. 시골 옛날에 구름마 일본말이죠. 구름마도 소나무 잘라가지고 끌로 구멍 파가지고 이제 네 발 구름마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새끼줄 해가지고 쪽 끌고 다니고. 그때부터 자꾸 뭘 만드는 게 그렇게 좋아서, 남자애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놀았죠. 이제 제가 장손이다 보니까 집식구들이 나만 가지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또 이빠하고 삼촌들도 자꾸 뭘 이렇게 장난감을 많이 만들어 줬어요. 저한테. 그런데 원래가 큰삼촌이 이런 손재주가 좀 좋으셨어요.

@ 그때 주로 뭘 하며 놀았어요?

어릴 때 시골 애들이 뭐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않죠. 그래서 우리는 순전히 남자애들은 전후세대 한 뭉치 57년생들 58년생 요때 애들이 많았는데, 맨 전쟁놀이나 하고 놀았어요. 막 떼로 모여 가지고 전부 뭉치 적군 아군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목검을 만들어서 칼싸움이나 해대고 그랬어요.

@ 그땐 대체로 그렇죠.

어릴 때 우리 동네에 6.25때 방공호 참호 같은 게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훼손 안 된 상태로 비교적 잘 남아 있었고. 여기를 본부로 삼아서 우리는 이제 내편 네 편 해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뭐 이런 전쟁놀이도 거의 매일 이렇게 하고 이제 유년기를 보냈어요.

@ 칼싸움만 했나요?

칼 말고 활도 많이 만들었어요. 대나무 한계선이 당진으로 해가지고 지나가죠. 동네 근처에 대나무가 많이 났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탄성 있는 대나무가 굵지도 않고 가늘지도 않은 아주 시늬대(신우대) 같은 거 아주 화살촉 만드는데, 시늬대(신우대)도 많고, 활 만들기 적합한 거도 많고. 그래서 활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 활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활 만들 때 그냥 시냇대(신우대) 가지고 하면 나가지 않으니깐 거기다 왕 대못 뭐 이런 걸 어디서 시장바닥에서 구해다가 왕 대못을 뺨지(뺨치)로 끊어가지고 박아가지고 노끈으로 감아서 또 시골의 토종닭 닭털 이런 걸 뒤로 깃 해가지고 실제 그 화살촉을 만들고. 무게를 줄려고. 예 무게를 줄려고. 그래야 잘 날라가고. 요거를 활을 장궁을 만들어서 짧은 거 해봐야 안 되니까 이걸 대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 탱탱하게 텅겨 가지고서 쏘고 그랬는데.

어... 제가 7살 때 우리 동네에 57년 닭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동네가 아주 그냥 다 그런데 58년생들이 개띠들은 없었고 전부 57년인데, 예 그 닭에 인제 55년생들 선배들이 또 있었고. 그런데 한번은 55년생 동네 형이 제 친구를 바로 옆집인데 활로 쏘았어요. 쏜다 쏜다 하면서 장난치다가 탁 쏘는데 화살이 눈에 맞았어요. 화살촉이. 맞아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7살 때 그래서 그런 참 비극도 있었는데.....

@ 활을 진짜로 쏘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맨 칼, 활 이런 걸 만들면서 이렇게 실제로 닭 같은 거 쏘고 했죠. 저는 또한 워낙 엉뚱해가지고 시골에 그 황토절개지 절벽 같은데 이렇게 있으면 겨울에 추우니까 동생들하고 놀고 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땅 파고 놀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제 동생이 항상 엉덩이를 반쯤 여기다가 도꼬리 바지를 겨울에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게 하도 우수워서 거기다가 대고 쏘지. 화살을 바로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땡겨가지고. 그랬더니 펍 들어가더니 아이고 그러더니 막 그냥 막 애가 팔짝팔짝 뛰어가면서 집으로 뛰어가는데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빨리 빼줘야겠는데 그거를. 그 정도로 제가 엉뚱했어요.

@ 참 위험했겠어요.

어릴 때는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어릴 때 특히 뭘 많이 만들곤 했는데, 주로 뭘 만들려면 쇠를 다뤄야 되는데, 이 소여물 쭈는 아궁이가 그 사랑방에 있었어요. 특히 겨울에는 저희 집에 소가 한두 마리씩은 있고 그러니까 그 여물을 쭈는 게 아주 일과죠. 그 사랑방 난방은 소여물로 해결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별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사랑방 아궁이 거기서 뭘 이제 만드는 거지. 주로 쇠를 두드리는 작업을 많이 했고. 애가 막 손이 성할 날이 없는 거예요. 애손이. 맨날 뭘 그리 하다가 다치고 그래서 썰매 이 스케이트(썰매)라고 그러지. 스케이트. 그 썰매 같은 거 뭐 편칭하고 거기다가 리베트를 쳐가지고 이렇게 지네발 스케이트도 만들고. 어린애가 맨

그런 거 만들고 그랬어요.

@ 어릴 때 동네에 대장간이 있었나요?

우리 동네가 아니라 시장바닥에 가면은 면에 가면은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거만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어릴 때 혼자서 삼춘 따라 가면. 삼춘은 우리 삼춘은 또 워낙 뿔 만드는 걸 좋아하시니까 이제 저거 대패를 만드셔서 이분은 대패. 대패집도 자기가 직접 대패날도 때려가지고 만들고 덧날까지 만들어가면서 뿔 이렇게 깎고 그랬어요. 제가 7살 때 저희 집이 헌집에서 살다가 다 시골 농가지만 7살 때 다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판자 같은 거 킬 때 이런 것도 발동기 갖다놓고 그런 거 이제 걸어가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피데 같은 거 걸어서 그래서 집을 지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가 많아 부재들이 널빤지 각목 같은 거 워낙 많이 나왔어요.

@ 어린 시절에 대장간의 모습은 어땠나요?

어릴 때 본 대장간은 정말 신기했어요. 어릴 때 볼 게 뭐 맨날 봐봐야 음 그런 뭐 이런 재미있는 거만 제가 그쪽으로만 빠져있는 데다가 대장간을 보니까 더 신기하죠. 그래서 전기가 없으니까 아까 보신 그 손풀무로 풍구질을 하고. 그리고 목탄도 때기도 하고 석탄이 유통이 됐으니까. 60년대 말이나. 이렇게 그래서 3형제가 그걸 갖다가 메질을 하고 그때 모루를 뿔모루 최고 대형을 썼어요. 이분들이 그때가 67~8년 요때. 그래서 그 그걸 보면서 저는 자라면서 '야 저런 거 내가 하면은 진짜 잘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손이 막 성할 날이 없는 거예요. 도끼 얹어놓고 망치 째게 미제 째게 가지고도 쇠 어디서 구해다가 도람통 이런 쪼가리 무슨 왕대못 이만한 거. 그 미제 미제 째게로 잡고 왕대못을 집을 지었으니까 7살 때. 거기가 많죠. 그걸 갖다가 화살촉 만들어가지고 뭐 하고 이랬었어요.

@ 어릴 때 칼과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칼에 한이 맺힌 게 그게 이제 저희 큰삼춘 역시 또 큰삼춘이 또 문젠데. 큰삼춘이 뿔 손재주가 좋으니까 시골에선 시골청년회가 4H 뭐 어찌고 일이 좀 많았는데, 그때 무슨 연극도 했어요. 가을에 했는데, 수수를 다 예 수수를 비고서(베고서) 빨간 수수를 비구서 그 자리에다 천막을 치고 그 하얀 천막을 이렇게 콩쿨대회나 영화사에서 오면은 천막을 치구서 사람을 받듯이 천막을 치고 연극을 했는데, 저희 삼춘이 이 호동왕자 그거를 했는데. 저희 삼춘이 저거를 했어요. 저거 저거 소품 담당을 하면서 쌍검을 판자로 송판을 가지고 얇은 송판을 갖다가 검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짧은 검이죠. 한 요정도 되는 거를 만들어서 담배 은박지를 갖다가 은지를 갖다가 물에 붙여 가

지고 이렇게 이 이렇게 떼 가지고 그걸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 애 눈에 보기는 거의 뭐 뭐 인제 거기에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정신이 이제 없는 거지. 당연히 큰삼촌이 하는 거는 내 꺼잖아요.

@ 그렇죠.

그래 연극을 갔어요. 그날 가을인데 인제 수수를 딱 비고 수수 자리에다가 수수밭 자리에다 했는데 약간 비탈이 졌는데. 그 천막을 치고 온 동네 사람이 그 호롱불을 키고 남폿등을 키구서 인제 호동왕자하고 인제 이렇게 낭랑공주 연극을 했는데. 아 끝나고서 그 칼은 당연히 내 켜데 그게. 그 칼을 우리 뒷방에서 만들었어요. 삼촌들 친구들 하고 다 만들고 뭐 아 만들어. 내가 인제 당연히 내 켜데 기대에 잔뜩 부풀었다가 삼촌이 딱 사라져 버렸어요. 그날. 이상하다 그래서 인제 다음 날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다음날 일찍 거길 갔어요. 그래 저 저 포장 친 데를 가니까 포장 없어. 그 막 날도 흐리고 그때 일곱 살이에요. 날도 막 흐린데 하루 종일 울면서 거기서 받을 헤매 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징~징~ 울어가면서. 그러고서 인제 밤에 들어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난리 났죠. 그래서 다 얘길 했는데, 얘기하니까 인제 그날 사 저희 큰삼촌 들어왔다가 쫓겨났어요.

@ 아. 그 칼 안 줬다고요?

애 울었다고. 안 주고. 그때부터 인제 거기에 인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맨드는 게 맨 화살촉, 칼만 예 목검만 만들어.

@ 삼촌에 대한 기억이 많겠어요.

한번은 그 삼촌이 탈영을 아니 미규(미귀: 부대에 귀대하지 않음)를 했어요. 군대를. 그때가 육팔 년돈데 미규를 했는데 제가 그 국민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데. 그때도 집에서 권총을 만들고 있었어요. 송판이 우리 집에 아직두 그때까지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저 사랑방 고 톱 사이 마루 톱사이로 떨어져 있어요. 이만한 큰 톱을 가지고 그림을 권총형으로 그리고서 혼자서 요리고서 쓰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삼촌 같은 사람들이 한 세 사람이 와서 “아이고 니가 누구냐”구 그러면서 이정하 저 삼촌 얘길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야 삼촌 어디 갔냐?” 그러면서 한 아저씨가 딱 올라오더니 톱을 잡더니 자기가 막 해주는 거야. 난 너무 좋아가지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빨 이만한 거 가지고 쓸러니. 다 얘기했지 오시라고 해 갖고 저 집 뒤에서 행길에 가서 저 집에 다 인제 초가집이야. 고기 고기 고기 가든 있다고 해서 접혀갔어요. 그러니까 그날 해서 인제 뭐 떡 해서 뭐 해 갖고 돈하고 해 갖고 인제 헌병

대지 헌병대 쫓아가고.

@ 손재주가 좋았던 모양이네요.

그렇게 인제 놀면서 이 맨 만드는 거야. 그래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이년 후배들 터거리로 이년 후배, 이년 선배 이런 식으로 터거리로 이 많은데. 이년 후배들이 다섯 놈이 나한테 다 뺏겨 빠리는 거야. 그 여름에 그 공작 숙제를 다 해주는 거예요. 전국지도 뭐 이렇게 뭉 이런 거 만들고, 모형 맨 그래서 인제 그렇게 자랐어요. 그 때 뭔가를 하나 만들게 되면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 집착이나 그런 그 성장할 때 이 환경 같은 게 아마 저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얼 만드는 것을 주도적으로 했고 또 손재주가 또 있다 해서 애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계속 그걸 갖다가 추켜 주고 하니까 더 거기 집착하고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이제 개인기로 하나의 장기로 이렇게 발전이 된 거 같아요.

@ 부모님은 다 살아 계십니까?

저희 아버지 또 또 약주 많이 드셔 갖고 그냥 아이구 폐가망신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도 그래도 건강하시구요

@ 원래 아버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농사꾼이죠. 너무 정직하게 너무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남 잘 때 밤에 나가서 일하는 그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좌절하게 되니까 그걸 못 이기 시더라고 술에 빠지셔 갖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 저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뭐 칠십 오세 되시는데 건강하세요. 지금도 어디 공장 다니시지 뭐. 그만 다니라고 해도 안 들으세요.

@ 아. 지금도 일을 하시는가요?

아유 그럼요. 그래야 건강하시고. 뭐 그건 뭐 부양 못할 정도로 가난하진 않은데 그래도.

@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전 팔십삼 년도에 했어요.

@ 그때가 연세가?

이십 팔센가 이십 구센가?

@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침엔 그림 그리다가 화실서 만났는데.

@ 사모님도 그림 그리셨어요?

아이 원래 저 사람 따르 거 인제 이렇게 원래 전공은 다른 쪽이고, 그림을 여자들 뭐야 또 취미로 잘 하잖아요.

@ 아. 예.

저는 또 화가된다고 또 출썩거리고 돌아다니고 할 때.

@ 연애하셨어요?

예.

@ 자체분은 몇이나 두셨어요?

저는 무자식이예요. 이거 한다고 돈 엄청 들어가지 이거. 그래서 차 한 대 굴러 가면서 인제 이렇게 이거 뭐 다 이거 저 제가 벌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한 사오년 백에 더 됐다. 내가 돈 손에 쥐게. 예유. 그러면서 저도 어느 때는 이 상실감이나 인제 정신적인 그런게 있죠 왜. 왜 그런 거 뭐 이상하잖아요. 뭔가 얼빠진 거 같고 그렇다고 그래 두 그런 생각하면 자꾸 인제 침울해 지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할라구 그래. 딱 외면해 빠리고 탁탁 외면하고 그래 인제 사람이 무정한 거야.

2. 전통검에 대한 관심

@ 전통도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림을 잘 그렸어요.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래서 저는 미대를 가서 화가가 되겠다. 그게 대명사야 학교에서는. 미술 그림 하면은 곧바로 누구 누

구하면은 그냥 그 어떤 의미가 인제 이렇게 그 결정이 됐는데, 대학을 결국 못 가고, 집안 사정도 아주 뭐 굉장히 나빠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래두 화가가 되겠다 그러면서 그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림 공부를 인제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때가 인제 80년도에 79년도, 78년도 한 고때 제가 인제 홍대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 지금 현직 노 교수님들인데 그분들한테 많이 배웠지. 화가 되려고.

@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건가요?

근데 그때 『계간미술』을 보니까 『계간미술』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갑자기 칼 얘기가 나온 거야. 은장도 얘기가 은장도 그래서 그걸 자세히 읽어 보니까 전통에 대해서 전통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는데, 그 이종섭 문화재전문위원이 편집주관이고, 『계간미술』 중앙일보 『계간미술』 그걸 보니까 전통이 없는 거예요. 내용만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리고 또 어 인사동이라든가 종로 아니면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일본사람들이 특히 그때 붐이 일어나고 미국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은장도라든가 나전칠기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갔어요. 근데 거기에 그 그런 그 판매하는데 열을 올렸던 거지. 그러면서 그게 무슨 내면 이렇게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기술적인 면에서 뭐 아니죠. 근데 그걸 아주 자세하게 써냈어요. 그걸 갖다 그분들이 지정을 해놓고 칠십팔 년도에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해놓고 그 지정하신 분이 이 저 조사 실태 여 이 조사 무형문화재 조사하신 분이 보고서 쓰신 분이 결국 그 인제 이렇게 했는데 그 기고를 하셨는데 아주 자세하게 기고가 됐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때 제가 첨 알은 거야. 그 실태를. 그리고 일본에 남아있다. 그게 일본은 뭐 잘 남아있고 여기서 건너가서 일본에 남아있고, 우리는 뭐 아무리 그 흔적을 찾을래야 눈 씻고 봐도 없다는 거예요.

@ 그러니까 철을 만드는 기술 말인가요?

기술. 칼 만드는 기술. 아까 그 구체적인 그런 접합하고, 무슨 뭐 부화하고, 접목하고 뿔쇠를 만들어서 뿔 강쇠를 만들고, 뿔쇠를 만들고, 뿔 시우쇠를 만들어서 접목하고 그냥 피상적인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이게 완전히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속이 엄청나게 허전한 거죠. 결국 뭐 없으니까 하자는 건데 내가 허전한 거야. 내가. 그래서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일이 안 돼요.

@ 아. 네~.

더군다나 그림이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더 안 되지. “잘한다. 잘한다.” 너무 그래 왔지. 또 저를 그 지도해신 그 선생님은 그 교수님이 “너는 너무 잘 그리면 안 된다.” 그

림을 너무 잘 그리면은 그것도 역시 그 자기가 그 순수하게 자기가 작가 활동을 하는데 큰 방해가 되고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그 그림을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 논리가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 꾸밀려고만 하는 건가요?

아이 꾸미는 게 아니라 묘사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묘사력이. 뭘 만들고 그리는 덴 너무너무 잘 그리는 거야. 그러니깐 교수가 너는 탈이 너무 잘그려 탈이다. 그래서 그 탈을 벗어버리고 순수하게 그려야 돼. 순수하게. 그래서 자기가 직접 손잡고 그려가면서 혼내고 신랄하게 지적해주고. 그림 전 알죠. 화가들이 힘들다는 거를 제가 엄청나게 절실하게 느꼈지. 그때 인재 이걸 보고 이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야. 결국 이게 내 얘기 같아요. 이게 내 얘기 같은 거야. 근데 제가 또 워낙 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빠지는 그런 경향이 또 많고 그래서 결국 내 얘기 같아서 결국은 본 것 또 보고 본 거 배 깔고 누워서 보면은 될 거 같은 거야. 완전 내 얘긴데. 당장은 아쉽고 허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하지만 결국은 굉장히 흥미가 가요.

@ 그래서 그림을 포기하고 이 길로 들어선 건가요?

어릴 때 에 그렇게 인재 좀 거의 극단적이었어요. 저는. 한쪽 부분에 그 그런 만들고 뭐 이런 그리고 하는데 있어서는. 결국 내 얘기 같은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대장간 기술이 아닌 거야. 이게 어릴 때 본 대장간 기술은 건 외형은 있어도 내용이 없는 거라. 외형은 남아 있는데 겉모습은 탈은 남아 있는데 진짜 기술은 없어진 거라는 알고 안 되겠다. 내가 한다. 완전히 그 무식하게 달려들었죠.

@ 기술은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대장간에도 전해오는 기술이 없는데 어디서 배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도 모르고 다 해야지 다. 그래서 책을 보며 혼자 공부했어요. 저는 책방에 한번 저 저 헌책방 가잖아요. 앉질 않아. 거의 열두 시간, 열세 시간 그냥 서서 다 봐 다. 그냥 그 책을 다 필요한 거 특히 일본 책밖에 없어요. 에 주조공학 참 매력있는 거야. 주조공학 금속 재료공학 뭐 하여튼 뭐 금속 세공 뭐 금속에 관련된 건 뭐 열처리 다 싹 그걸 갖다가 고등학교 공고생 보는 거에서부터 대학생 보는 거까지 현장에서 보는 거까지 싸그리 다. 뭘 알아요. 처음에 보면 아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 엉뚱하게 공작이나 뭐 그림이나 그리는 사람이 뭘 아냐구. 그 용어를 알아? 그 한문에 대해서 한문이 고마운 게 다 한문이야 거기 거 서술된 것들은. 그래서 한문을 쓸 중 몰라두 그렇게 아이 이 인식 인

지하고 그런데 제 동생이 마침 공고 출신에다 개 공부를 좀 잘해서 시골서 뭐 반에서 일이등 하나까 옛날에 시골서 못사니까 공고를 보냈어요. 공고 가서 또 대학에 가 공대 또 잘 가고 그 애가 책이 많아. 애 책 갖다가 좀 보고.

@ 책을 보며 했다고요?

혼자 할러니까 그렇죠. 책을 보면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불을 피워 불을 목탄 없죠. 언제 목탄을 만들어. 지금 세월이 좋아져서 지금 목탄이지 어디서 어떻게 숯이 옛날에 연탄 땔 때 그 저 아주 어릴 때 번개탄 나오기 전에 숯 그거 하고 석탄이 부지기수로 많죠. 그 당시 싸고. 또 우리나라가 또 석탄이 많이 나왔고 그래 석탄 사다가 녹이고 주조하고 별짓 많이 해서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제철원리 인제 쪼그맣게 인제 실험 해보고. 코크스 구해다가 용해 해보고 또 스크랩 갖다가 이 산화철 스크랩 갖다가 제철 해보고 그러면서 십년 부쩍 보내 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인제 제가 얼마나 미쳤냐면은 해운대 그 처갓집 처가댁 그 공터가 있는데 옛날 집들 이렇게 허름하게 음 뭐 땅 지주니까 그렇게 터가 있었고. 일단 한번 작업장에 들어갔다 이상하게 그 집이 천장이 낮아. 왜 그렇게 천장이 낮았는지. 숙이고 들어간 천장이었는데 거기서 삼일 주야 밤낮을 일했어. 잠 안자고. 그땐 또 담배도 엄청 피고 지금 완전히 끊은 지 한 십년 됐는데 담배 피가면서 밥을 안 먹고 삼일 주야를 이렇게 하고 있어 일하고 그러고 밖에 나와서 일하고 미친거죠. 그렇게 하고 뭐 죽는 줄 모르고 막 불 갖다 가열하다 땡 터져갖고 죽는 줄 모르고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한 짓을 많이 해서 결국은 책 많이 보고 결국은 제가 인제 책을 많이 본 것이 이 전체적인 그런 작업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게 선생님인거 같아요.

@ 그래도 쇠를 다루는 기본적인 기술은 배워야 하지 않나요?

저는 인제 굳이 대장간 기술 뭐 어찌고 그러면서 대를 물렸느니 뭐 이런 소리는 하면은 시골에 대장간이라고 인제 저는 그렇게 굳이 거기서 배웠다고 할 수 있죠.

@ 아 그러니까 고향의 대장간에서 무슨 기술을 전수 받은 건가요?

전수를 받았느니 뭐니 그건 당연히 시골 대장간에 우리 일 년 선배가 저 이정구가 아주 개구쟁이였는데. 그 사람이 그 막내아들인데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이걸 했으니까. 저는 가서 이거 이거 이거하고.

@ 풀무질요?

예. 그 그게 무 외형적인 거로서는 그러니까 대장간 모습 자체는 남아 있는데, 기술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반조가리 기술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거는 병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해 볼려고 저는 그저 매달렸어요.

3. 본격적인 연구-철박물관과의 만남

@ 여주로 이사 온 것은 언제입니까?

이곳으로 오기 전에 안양으로 이사를 갔어요. 안양 평촌으로 와 가지구서 작업을 허긴 해야 되겠는데, 이 작업을 할려면 쇠만 다루는 게 아니라 흙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 흙 성분을 그 안양 흙을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터가 없어. 주상복합 삼층 평촌 먹자골목 생기기 지금 십오 년 전 십육 년 전 거기를 가서 삼 이층을 얻어서 삼층에 옥상에 올라가서 몰래 주인 몰래 온갖 재료를 다 실어 날라가면서 이층 살면서 거기서 용광로를 꾸며놓고 작업을 했어요. 미친 거지. 거참 여까지 인제 담이야 이렇게 이렇게 저기 주상복합 옥상 거기다 용광로를 요만한 거 요만한 거 막 이렇게 세워놓고서 불을 갖다가 막 무섭게 저 하늘까지 올리고 하는데 그러고 여기저기 공터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쫄이겠어요. 그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이 두근거리는 그 증세가 아이구 죽겠더라고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그러고 막 너무 악몽 꾸고, 잠자다 '아 내가 죽는구나' 막 죽을라 그래. 막 죽으려고 심장이 툭 떨어져요. 아 내가 죽는구나. 안 죽어야 인제 막 깨는 거야.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그래 인제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지. 그리고 또 앞 건물에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어나 널러 나왔다 그거 그 광경 보고서 놀래가지고 뭐가. 저는 제철뿐이 아니라 주조까지 합금도 하고 뭐 하여튼 별 짓을 다해보고 정이주조 뭐 모래주조, 제철, 단련, 그 흙으로 인제 흙 퍼다가 인제 흙 성질 다 파악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십년은 그렇게 보내고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십 사년 됐어요.

@ 그럼 여기는 언제부터 사셨나요?

구십오 년도서부터 살았죠. 그래서 여긴 아주 겨냥하고 왔지. 옥상에서 그 고생을 하고 맘고생이 너무 심했어요. 막 죽을 거 같아. 이러다 죽겠드라구. 그 터에 대한 그 작업장이 스트레스를 너무 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 이렇게 다 짜여져 있는데 그 걸 못하니까. 몰래 짐 올리고 몰래 짐 올리고 그 소리 내고 하는 게. 불 올라가는 거 보면 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이게 누가 본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를 와서 집도 안

짓고 그거부터 하는 거야. 이 철딱서니 없이. 집은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일꾼들 사고 나도 일하고 해가지고 이 집을 짓고 시골농가 저 옆에서 하고 그래서 대지를 샀어요. 애초에 그래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감싸 안고 있어서 숨어서 작업하기 편해. 여기 오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아유 내가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위장하고 칼 만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인식을 해요 칼 만든다고. 더군다나 시골에 와서 얼마나 이방인 취급을 하는데. 결국은 인제 그 옆집이나 누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불이 하늘까지 올라가니 저 사람 저거 완전히 그래서 이 집을 지붕만 씌워놓고 내장광 또 하는 거야. 빨리빨리 수리해서 안착할 생각이나 하지

@ 책을 보며 혼자 연구를 하셨는데, 연구가 잘 되던가요?

혼자 하는 연구가 잘 되겠어요? 이래 저래 해 봐도 잘 안 되고 그랬죠. 결국은 인제 그렇게 하다가 이천 년돈가 뭐 구십구 년돈가 철박물관을 개관한다는 거를 신문인가 어디서 보고 “야 이거 됐다” 이거 고대 제철 같은 걸 연구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인제 저쪽에서 진천 석장리 백제 제철유적을 인제 발굴하고 저쪽에서 인제 청주박물관에서 인제 그걸 막 할 때 그저 저도 인제 그런 자료를 얻을려고 박물관도 몇 번 인제 이렇게 들락거리고 했었지만은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 뭐 그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제도권이라는 게. 그래서 철박물관을 개관한다는 소식을 어디서 보고 당장 찾아갔지 다음날. 그랬는데 막상 그 거기에 소개된 거 보니까 인제 많이 판이하게 준비가 안 됐어.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그래서 인제 크게 실망을 하고 인제 학예사랑 한참 얘기를 하고 내가 궁금한 부분들을 인제 많이 듣고 크게 그렇게 눈에 확 저 귀에 확 들어오게 그렇게 뭐가 정보가 안 들어오고.

@ 처음이라 준비가 안 된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인제 어깨가 축 쳐져가지고 나오는데 관장님이 외출했다 들어오시드라고. 여자 관장님인데. 인사를 했죠. 학예사랑 같이 나가는데 학예사가 배웅을 해주니까. 그래서 차를 탈라 그러는데 아이구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막 뛰어와. 학예사 그 등치 큰 사람이. 예효 아유 참 관장님에게 말씀 간단히 했더니 얘기 좀 다시 한 번 들어보자 그러다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인제 쪽 얘길 하면서 철 박물관에서도 앞으로 전통제철 연구를 해야 되고, 그 기술자 필요하고 하니까 좀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복제 복원실험을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야 이거 이제 된 거 같다.” 내가 너무나 작게 조금씩 조금씩 그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 실험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런데에 칼 만들고 철만들에 저 칼 만들고 모양내는 거는 그건 대장간에서 그 외형적인 문제니까 제가 그 중점을 둔건 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종석 선생도 그렇게 얘길

했고. 그래서 원소재를 그 제조하는 인제 문제에 골몰해 있던 있었는데 아이구 학자 다 구성하고 전문위원 다 만나고 인사하고 해서 현지조사 좀 하고 곧바로 들어갔죠.

@ 그래서 제철에 성공했나요?

저 한 일 년 후에 준비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인제 제철을 했는데, 그 복원실험을 했어. 그전에 카이스트나 인제 국가 기관에서도 좀 연구를 해왔었어요. 선행 연구를 했고. 그러게 인제 그러구서 이걸 연속적으로 앓구 손을 댔는데, 그분들이 큰 성과를 사실 못 내고 그냥 보고서 간이 보고서 몇 건 내고 작게 그렇게 하구서는 인제 그래두 엄청난 그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해온 게 있으니까 규모 있게 규모가 크잖아요. 국책사업이니까 몇 억씩 막 투자하고. 그래서 에 그 보고서라든가 그런 분들 관련한 분들하고 같이 이제 또 저랑 저도 이제 에 고고학자 이남주 교수님 뭐 고대제철사 인제 또 뭐 몇 분들 그 박사님들하고 같이 인제 저는 실행책임자로 했고. 그래서 제철을 한번 크게 했는데, 에 그렇게 좋은 결과가 보편타당하게 못 나왔어요. 반 성공 받은 실패했다 인제 이렇게 미진하게 나온 거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 뭐. 뭐 원료 선정에서부터 뭐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참 그래두 그게 바탕이 돼서 깨우친 게 많죠. 일단 뭐 완전히 그냥 그걸 파헤치지 못해서 그게 아주 천추의 한이 막 된 거예요. 그래서 잠을 더 못자는 거예요.

@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쇠를 갖다가 다시 우리 집으로 옮겨서 정련을 해가지고 칼하고 화살촉을 만들어서 인제 분석을 맡기고. 분석을 맡겼는데 그분이 미국서 고대 이 철기술 배우고 한국에서 인제 계속 고대유물을 중점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분이 공학잔데. 고대 유물 발굴유물 철기유물 위동 고구려 그 고구려성 그 출토 철기유물 고구려 출토 구리시 거기서 인제 출토된 거 그분이 다 분석했는데 그래서 제가 칼을 쪼그만 거 하고 칼 이전에 인제 정련하고 뭐 해서 칼 만들고 화살촉 만들고 그 주제별로 만들었어요. 제 그분이 분석을 해서 그분이 보시고 고대 기술하고 상당히 동일하다. 이사람 하는 건. 그런 거를 두루 어 주제별로 뭐 접합강도 되고 또 뭐 화살촉 같은 거 열처리 같은 거 침탄 같은 거 잘한다. 실례를 아 내가 그래두 일본 사람들처럼 일본 칼 만드는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 그냥 기술은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더 거기서 인제 분발하게 됐는데. 이천이 년도 이천삼 년도 이렇게 일본을 또 갔어요.

@ 일본요? 기술을 배우시려고요?

한번 볼려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이 제철하는 게 칼 만들고

이런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열처리하고 접합하고 하는 거는 침탄하고 하는 거는 철 소재가 있어야 될 해먹을 거 아냐. 그렇게 감질나게 안 되더니 그 맘먹고 한 몇 천만 원 들여서 했더니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규모를 일정하게 갖추고 해야지 맨날 요만케 해갖고 이렇게 무슨 실험도 맨날 실험만 해서 되나 실제 작업을 해야지 그래서 일본을 아주 작심하고 소개를 잘 받아서 그 미리 예약을 하고 인제 가서 빌 예약을 하고 가서 인제 인간국보제장들 이 양반이 제철도 잘해 그래서 고충을 다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써가지고 가서 보여줘 가면서 인제 물어봤죠. 잘 가르켜 주시드라고 일본 선생이 도검장이. 그림까지 그려줘요 각도까지 다. 그리고 또 저것도 주시대 이 로제 흙 같은 거 원료 같은 거. 다 필름통에 넣어서 주시드라고. 에 각도까지 그려주고 거기서 또 이렇게 좀 얘기를 한참 하고 또 워낙 저거를 통역을 잘하니까 통역이 한 이십 몇 년 된 사람인데 그 일본 사람이 잘하니까 뭐 잘 되지. 그 그분도 참 좋게 보고 저를 원체 제가 또 알아낼려고 저 노력 한 흔적도 보였는지 좋게 보고.

@ 실제로 도움이 되었나요?

이제 집에 와서 이 그게 삼 년돈데 집에 와서 했죠. 한 뒤 달 더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거야. 완전히. 일본식으로 먼저 해봤지. 왜 내가 일본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자기네들은 밥 먹듯이 하는 거니까. 나도 그걸 허구나서 뭘 얘기가 돼야 되니까 일본 끼를 모델로 해서 집 저 지어가지고 해보니까 너무너무 잘되는 거야. 이거 막 쇳물도 막 작은로에서 막 나오고. 에 그래서 어 그때 모시고 분석 한 분을 모시고 아예 했어요. 시작을 제철을. 집에서 다시 작심하고 만회하려고. 이거 분석 하신 분이 그래 그 분이 이제 전날 오셔갖고 이렇게 쪽 보시고 카메라 들이대고 너무너무 잘 나와 그래서 인제 다 부위들 시간별로 채취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가지고 또 칼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분석해 해가지고 고대 도중에서 아주 좋은 도. 아주 금속학적으로 참 잘 만들어진 거 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거를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데이터를. 나도 거기에 대등하게 만들고 그 분석 다 해주시고 계속 같이 이렇게 했죠. 히고 그 후로 인제 나 름대로 인제 칼 만드는 솜씨도 더 많이 인제 늘고. 그러면서 저 이쪽에 또 그게 철박물관하고 인제 이렇게 연계가 되고 계속 제가 연구하는 게 교수님 그 공학자 그분이 박창식 교수데 홍익대 그 학과장 금속재료공학 그분의 소개로 또 좋은 분들 제도권의 그 이 좋은 분들을 만나고 그래서 검증은 많이 받았어요. 제가 검증을 인제 국가적 차원에서 인제 심사위원들 구성해서 우리 집에 뭘 제가 좀 우리 장인들이 뭐 신청해야 될 그런 부분들 무슨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 무형문화재요?

예예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 검증을 한 이삼 년 받고 예 그렇게 하고 결국 이 결과 사업을 사업 중에서 제일 그래도 좋은 소리 듣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앞으로 두 그냥 개인적으로 뭐 칼 만들고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인재 저도 특색 있게 경쟁력 있게 저도 인재 해 나가고. 근데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 옛날에 작업했던 것들 이렇게 쪽 역사적으로 내려온 그 기술사 같은 것들 이걸 형태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안 해보곤 또 안 돼요. 그 상상만 가지고는 예상치만 갖고는 안 된다구. 실제 해서 어 데이터를 확보하고 실제 경험도 해 보고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혈려면은 원체 돈 많이 들어가니까.

@ 칼 만드는 건 언제부터 했나요?

칼은 동시에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워낙 많으니까 그 제철을 계속 성공을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빼고 이려고 이런 거 갖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장간 기술로 아예 처음에는 그 일반강을 갖다가 성형해서 열처리 공부 칼 형태 만드는 거 이거 다 하고. 그건 뭐 굉장히 오래됐죠. 예 굉장히 그건 뭐 이십 몇 년 이십사오 년 된 거 같아요.

@ 이십사오 년이면 서른 살쯤?

예. 고 정도. 예 팔십 육년도 칠년도 요때.

@ 칼을 만들게 된 계기는 아까 뭐 어릴 때 그 삼촌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게 몇 년이죠? 그 『계간미술』을 보신 게?

저는 이게 『계간미술』을 쪽 봤는데, 그냥 이게 팔구 년도 봄호야. 봄호. 여기 다 나오잖아요. 아주 신랄하게 썼어. 아주 뭐 완전히. 그냥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주 이분이 많이 그래두 한 세대 윗분이시잖아요. 이분 돌아가셨는데 아주 그 신랄하게 쓴 거를 제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요때 문화재관리국에서 또 조사를 했어요. 무형문화재 조사를 했는데 없어 이분들이 조사 한 거지 결국.

@ 이때는 칼을 만들고 계셨나요? 아님 이거 이후에 만들기 시작했나요?

위에 꺼 예 팔십육 년도, 칠 년도, 팔십사 년도.

@ 철 만드는 일도 관심을 가지셨고?

그렇죠.

@ 제철 기술은 진짜 계속 그렇게 하셨는데, 칼 만드는 거는 누구한테 좀 배우셨나요?

시골서

@ 대장간?

맨날 그거 하는 거지 부엌칼.

@ 아 부엌 근데 부엌칼이랑 장도는 많이 다르지 않나요?

아유 성형이나 열처리 똑 같죠. 단지 짧다는 거. 그리고 작두 같은 거 있죠. 작두 손가락 찌르고. 저 시골서 이거 다 손가락 찌르고. 근데 이 양반들이 전통강이 없으니까 닦달질이나 이런 망치질은 잘 하고 매질 같은 거, 성형기술 성형할 때 어떤 어떤 그 쇠의 특성이나 이런 열처리 기술 같은 거, 그걸 갖다 큰 비법으로 생각해요. 열처리 기술을 담금질 기술 아까 말씀드린 거 아주 뭐 자기가 세상에 최고라고 그러지 괜히 안 가르쳐 준다 그러고. 책에 다 있어요. 공학 서적 보면 너무너무 자세하게 그걸 수없이 연습을 하면은 되는데, 그 옛날 새마을 이전에 농기구 들어오기 전에 순전히 다 모든 게 낫 뭐 호미, 칼, 부엌칼, 부엌칼 뭐 엄마들 쓰던거 이만한 거 돼지잡고 다 열처리 기술 아니에요? 그 형님하고 제가 열 살 차인데 자주 만나 그래서 고향 형님이 고만 두셨다가 하두 내가 막 그냥 쫓라대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대장간 다시 만들으라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 갖고 다시 해요.

@ 아 고향에 그

예 예 예 예 저저 황해대장간 그 큰형님 삼형젠데 그 집이.

@ 대장간에서 그때는 몇 년이나 계셨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기 거기 취직해서 한 삼사 년 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죠. 집이 바로 저 뭐 얼마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분을 모시고 다 그 저기 지자체 같은데 자꾸 소개할려 그러구. 소개가 돼서 인제 실제 또 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향토 대장간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생활사나 또 새마을 운동 이후로 이 사람들이 다 망해요. 그 농기구 같은 거 안 쓰고, 다 뭐 트랙터 경운기 막 뭐 이런 팽이 쓸 일 없고, 쇠스랑 쓸 일 없고, 그걸 뭐 맨날 보는 게 그거예요. 실제 또 잘해 나두.

@ 실제로 부엌칼하고 그냥 장도나 이런 거 하고는 모양이 다른데?

열처리 기술이나 쇠를 다루는 기술은 동일한데 이거 긴 거 만든 사람 아무도 없어. 군사정권 시대에 자유당, 육이오, 자유당, 박정희 대통령 십팔 년 하고, 오공 지나고 누가 칼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칼 만드는 역사는 이십 년 이십오 년. 삼정도.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저저저 장군들 진급시켰을 때 삼정도라고 하는 그 제도를 처음 도입을 했다고, 우리나라는 그때 인제 도검회사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이 이거 저저저 검도용 이거 진검이라 하는 것들 다 외형만 갖고 있는 거지 그게 어디 전통입니까. 바로 바로 이 얘긴데.

@ 옛날부터 만들어왔던 장인은 거의 없죠?

없죠. 그게 바로 인제 저저 대장간으로 다 흡수 되어있는 그런 역사를 안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정구 선생은 아버지는 당진 사람이 아니에요.

@ 그 당진에서 대장간하시는?

저저 그 아버님은 황해도 사람이예요 황해도 사람 육이오 때 배 타고 피난 왔지.

@ 제가 생각하기에 칼 만드는 작업은 좀 섬세하고 꼼꼼해야 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성격하고 잘 맞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어릴 때부터 그쪽에 집착해서 그런 소양이나 이 손기술이나 이 자 성격 같은 것 까지 완전 다섯 살 여섯 살 때부터 저는 됐다고. 그게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게 운명적으로 딱 그렇게 어떤 조성이 돼야지 아무나 뭐 느닷없이 칼 만든다 뭐 다 커가지고 와서 몇 년 배운다고 될 것 같습니까. 절대. 물론 하겠죠. 하겠는데. 그 인제 저는 광범위한 공부가 될려면은 평생 해야된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거를 다 성취하려면은 앞으로 인제 또 뭐뭐 할 게 많겠지만 인제 저는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인제 주제별 마당기술 예 고거를 확보하는 게 결국은 그래야 무슨 고려철불을 만들든지 뭐 허는 옛날 가마솥 만드는 기술이나 이 순신 장군 칼 만드는 그 어떻게 만들었는지 안 해보고 어떻게. 그런 거 확보해야 인제 국가 경쟁력도 일본하고는 지금은 뒤떨어졌지만은 작년에 워크샵 딱 가서 보고 그거만 해도 엄청난 큰 성공이죠. 누구라 일본에 하나밖에 없는 타타라 제철 장인 무슨 뭐 동북아 제철연구센터 거기 전 연구원들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연구해 나가면은 일 상당한 부분을 찾아 올 수가 있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각자. 그래 지금 성과적인 것들은 울산 쇠부리축제 같은 것도 올해 처음 오한테 제가 올해 처음 가서 아주 성공적으로 실제 시연 예 마당에 꾸며 놓고 해서 아주 그 좋

은 성과 인제 뭐 그게 바로 인제 그 원형을 만들어 나가는 바탕이 되지 않나 인제 보고. 그래서 칼은 자꾸 보검을 만들어야지 거기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

@ 보검이라면 어떤 칼을 말하나요?

보검의 모델은 신라시대나 백제시대 일본으로 건너간 보물들이 있어요. 일본은 그 대로 그냥 보존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검, 칠성신검, 무슨 검, 무슨 검 그거를 일본에 그 인간국보 정도나 되고 무형문화재나 되면은 꼭 한번 썩은 만들어 봐요. 그런 신검들은 여기서 건너간 것들 일본 장인들이. 근데 일본도의 전형은 다 우리 백제 **** 그게 뿌리가 그래요. 그 사람들도 부정을 안 해. 그건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쟁적인 입장인데 한국 사람이니까. 거긴 워낙 천 년간 천오백 년간 그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사람들이라 명품들이 있어요. 시대별로. 그 선을 뛰어넘지 못할 정도로 명품이 있어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또 꿈이야 우리는 그 도전해야 될 이 장인으로서 도전해야 될 무언가 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우리는 이제 원체 칼을 등한시하고 한나라 뭐 유물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일본은 뭐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별로 정말 신물일 정도로 그렇게 기묘하게 잘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열처리라든가 제강 해가지고 고게 아주 명품들이 있어요. 고런 몇몇 장인들처럼 되는 거. 참 재밌는 게 고려시대 많이 건너갔어요. 일본에. 가마꾸라시대 일본에 그래서 한 일파를 이뤄. 우리 내파(來派)들이. 이 고려 귀화인들이 그런 거 보면은 어떤 펠레야 펠수 없는 관견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워낙 뭐 그래서 난 경쟁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만하지 않고 일단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인제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해야 잘 될 것인지 잘 돼가고 있는 거 같아요.

@ 혹시 작품을 뭐 판매하시거나 이런진 않나요?

예. 그 왜 그러냐면은 그런 명물들에 비교하면은 너무 창피한거야. 예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그 대열에 낄 수도 있겠지만은. 예예 아 일본에 근데 명물들에 비하면 특히 일본에도 수백명중에 딱 한두 사람 있어요. 이 사람들은 타고난 천재야.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타고난 천재라는 거는 정말 부러운 건데 천재일수록 더 연구를 했던 한 게 벌써 표가 나. 그 사람 따라가야 돼 그사람 당장.

@ 그면 나중에 아주 인정할 만한 훌륭한 칼을 만든다면은 뭐 판매를 하거나 하나요?

아유 그럴 때는 사라 그러지. 내 칼 좀 사쇼 하지.

@ 판매를 안 하시면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집사람이 다 처갓집에서 갖다 썼어요.

@ 아. 계속.

예. 한 오년 전까지. 이 집 산 것도 집사람이 산 거고. 에이 대출 뭐 몇 억씩 내서 썼는데.

@ 사모님이 일을 하시나요?

아네요.

@ 일도 안하고 그냥

예. 처갓집이 잘 살아요.

@ 아 처가에서는 싫어할 것 같은데...

저희 집은 좋아했겠어요?

@ 아니 물론 그렇겠죠. 그래도.

그건 뭐 아예 제껴 논 거고. 또 고집이 있어야 되고. 그런 세파에 시달리지 않고 한 가지를 갖다가.

@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식이니까 뭐 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처가 쪽 같은 경우는 다르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죠. 한 번씩.

@ 그 요즘은 뭐 다른 일도 하시면서

예. 조금 그래도 매출은 외형적 매출은 뭐 상당히 높죠. 그렇게 팔자가 바뀌었어. 옛날엔 참 담뱃값도 없이 작업비에 다 쏟아 넣고 뭐 맨날 돈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전 전공공하고 왜 작업비 써야 될 거 아냐. 차 굴려서 뭐 캐와야 되고. 맨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총 매출이 좀 되죠. 세금이 많지 대신. 다 길거리에 까는 인건비고.

@ 칼은 안 만들어도 철하고 이런

칼은 계속 만들고 있는데, 다작을 앓는 거지. 신경을 많이 써 바짝 써가지고 내가 요거를 그 사람 수준 근방에 안가면 아예 만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 칼 만드실 때는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고거 고 묘한 생각. 그 그 그 사람처럼 내가 돼야지 하는 그 욕심이죠. 그 그 뭐 그런 것 때문에 아 내가 이 그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 다른 거 뭐 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기에 집중해 가지고 하신다는 말인가요?

아 그거에 미쳐가지고 인제. 그거 아 내가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긴장 저 뭐라 용의 주도하게 생각을 한다 그럴까. 고 고 만들 때 그 여정이 길잖아요? 그것들을 갖다가 아주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야 여기서 판단을 잘못 하면 안 되는데”, “내 방침이 뭐였지? 뭐였지? 뭐였지?” 막 기록도 많이 하면서도 아냐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좋겠다. 이제 이 막 그 뭐냐면 항상 한 가지 방법에 안주를 앓고 자꾸 이렇게 그 바뀌서 하는 게 고게 제가 좀 병이에요. 그래서 자꾸 가능성 확보하려고 매번 다르게 하고.

@ 칼 만드는 방식은 정해져 있나요?

예. 칼 만드는 건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인제 약간씩 예 고거 좀 제강 그리고 성형 열처리 이걸 딱 법대로 해야 돼. 한 발짝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면은 그건 절대치고 절대치기 때문에 성형하고 열처리는 절대치예요. 그리고 제강도 사실 절대치지. 제철은 그렇다 치고 시우쇠 가지고 뿔쇠 만들 수도 있고, 뿔쇠 가지고 시우쇠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는 약간 변형을 시켜가면서 인제 저도 자 저 도전을 해보는데, 그 도전의 대상이 누구냐 일본서 딱 두 사람이야. 그리고 아까 용 새기고 뭐 이러 이러 이걸 이미 저는 안 해도 뻥한 일이고, 그러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저는. 그 앞으로 한 번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왜 그걸 잘 할 수 있으니까. 인내심이 필요하긴 한데 그럴려면 칼 한 자루를 만드는데 뭐 대화도 만들고 막 *** 새길려면은 모든 게 눈 시력하고 요요요 이 들어가면서 열두 시간 이상 열네 시간씩 앉아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조각하고 이런 인내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안주 할 수가 없다. 마당에서 막 이뤄지는 일들이 너무나 막 국책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또 연구사업도 해야 되고.

4. 앞으로의 계획

@ 칼 한 자루 만드는 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에 날까지 완전 연마를 다른 사람이 해준다고 하면은 한 달에 한 점 또는 두 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공장 그 내에서 노동력의 그 효과가 노동력 일이 일인 이 기계를 가지고, 그래서 어 연마가 또 문제인데, 이 연마 얘기하면 또 참 사연이 길어요. 돌을 주스려 하여튼 전국을 많이 다녔어요. 전국 각처를 이 단계별 연마석이 다 있어야 돼. 그리고 마무리 연마석 그 화장하는 것까지 다 있어야 되고, 요기요 저 칼표면 다 보이잖아요. 저거 찾아내는 여기에 아주 완전히 적합한 돌이 또 있어요. 저 돌 아니면 저게 안 나와. 그래서 그거 찾으려고.

@ 그 돌이라는 것이 솟돌 같은 것을 말하나요?

예. 연마석 천연석. 그래서 결국은 제가 부전공으로 배운 거지. 연마 연마를. 일본에선 고거를 평생 배워. 그래서 연마가 감정사예요. 칼을 시대별 유형별로 공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까지 기술체계까지 다 알아. 연마사. 전 부전공으로 참 한 십여 년 가까이 됐는데 이거를 연마를 한지 지금은 그래도 곧잘 저도.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장식, 연마, 제철, 제강 뭐 그건 막론 한 거고, 칼 도신까지 그거는 막론하고 장식하고 연마를 제가 제 손으로 인제 하는데 장식은 앓더라도 연마는 꼭 해야지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는 저 이 제도권 상업도검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옛날 유물을. 그분이 인제 저를 믿고 칼을 몇 자루 내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냐 연마 해보라고. 우리나라 칼이 연마가 안 돼 있어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감정을 못 해. 이게 어떤 공법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쇠지 강의 종류가 뭔지. 이게 연마 안하면 모르니까 그래 저는 알죠. 왜 작자니까. 쇠도 만들면서 이렇게 쪽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아보면 알지 그러니까 시료를 주겠다 시료를 그분이. 그래서 인제 우리나라 칼들도 좀 감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 마지막으로 감상이 돼야 돼. 감상, 감상. 보구서 느껴야지 보구 느끼는데 무작정 아 멋있다가 아니라 감정할 줄 알아야 돼. 감상자는 그래서 철도 알아야 되고, 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공법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연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과 감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감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격을 매겨야 돼. 값어치를 이거를 무작정 아 누가 만들었으니 저 사람 칼은 얼마다. 저 사람칼도 얼마짜리가 있고 얼마짜리가 있고 이렇게 돼야지 그 값이. 그래서 앞으로 할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동참자들이 많을 거 같지만 절대. 저도 몇 사람 뭐 교육도 시켜보고, 막 한술밥 먹고, 뭐 이렇게 뭐 빨래도 같이 하고, 맥여주고 재워주고 육 개월 이상씩을 해도.

@ 전수자를 말하는 건가요?

예. 다 도망가. 견딜 수가 없어요.

@ 힘드니까요.

아.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한거야. 몸도 고통이지만은 해도 해도 끝이 없거든. 지가 안 되니까. 안 되면 막 지랄하죠 저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애들이. 그 얼마나 닭 달을 하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앓고 무슨 요즘 대학생 애들 교수가 가르키듯이 애 얼러가면서 뭘 가르킵니까? 자격증 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 정신적 고통이고 그러니까. 다 거기서 꺾이더라고 한 육 개월 되면. 양성으로 하는 거야. 내 돈 들여 뱉어주고 재워주고 용돈까지 줘도 안 돼요.

@ 그래도 계속 어떻게든 계속 전수자를 길러야 되지 않나요?

그게 제일 관건이라니깐요. 지금 저는 속으로 속이 애가 타지. 어떡할거야. 누군가 어떤 놈 좀 전체적으로 안 되더라도 나처럼 조각하고 무슨 장식 잘하진 못해도 그건 원래 그리 그림 솜씨나 공작 솜씨가 미술적 소양을 완전히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안 되면 기술 체계라도 으 그 공학적인 그 절대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기능공이 되든가. 기능공 일이 년 갖고 되나요? 그것도 한 십오 년 해야지 십오 년. 최소 십년 정도 그래서 지금이 때인 거 같아요. 더 늦어지면 저도 안 되지. 이게 어떤 그 세대상으로 나이상으로두. 제가 오십대 초반인데 여기서 무언가 하날 만들어 놔야지 되는데 법적인 제자는 있어요. 제가 인제 국가에서 뭘 지정을 하고 선정을 하게 되면은 법적 제자가 또 있다구. 갠 일 년 반 가리켜갖고 학사까지 제가 다 이 제철를 했는데 학사 논문도 그걸로 하고, 메질도 잘하고 잘 하는데, 개네들은 뭐 업연히 자기 직업을 갖고 있고 문화재 쪽으로 문화재 보존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내 직제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지. 그냥 그거만이라도 저는 그래도 속으로 아이고.

@ 그쪽은 학문 쪽으로 연구하는 건가요?

실제 잘해. 개는. 여기서 하도 일 년 동안 먹고 자고 해 가지고. 그만 해도 그게 제힘이 아니고 국가에서 어떤 거들기 때문에 국가 제도 체제 안에서 이뤄진 일이라 그래도 다행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 그러면 이거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뭔가요?

힘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안 될 때 제일 힘들지 안 될 때. 명품을 만들어야 되는

데 일본의 아주 타고난 음 한두 사람만. 그거 안 될 때 제일 고통스럽죠. 그리고 십년 전에 제철 뭐 이런 거 진짜 수백 번 했을 거야. 할 때마다 안 돼. 왜 안 될까. 알고 보면은 다 법이 있는 거를.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뱅뱅뱅뱅 돌고 하는 게.

@ 지금은 제철은 이제 철 뽑아내는 거는 다 되신 거죠?

완전 마스터했죠. 마스터 그런데 대신 마당기술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 시대적으로 이뤄졌던 대형화 기술 대형화, 고려철불 제조라든가 무슨 뭐 이런 특정 기술이 있어요. 그 마당에서 현장 라인기술, 현장 라인을 복원하는데, 그 현장 라인을 제가 주의해 가지고 그걸 다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할 일이 그게 진짜 복원이지 개인 기술을 복원했다 그건 복원이죠. 그건 작은 의미에서 복원이고 진짜 문화적인 복원은 뭐냐면 현장 라인.

@ 칼 같은 뭐 이런 류의 물건을 그런 걸 만드는 거까지는 충분히 되는데 아주 좀 대형 사업을

그렇죠. 프로젝트 큰 사업 하이 공장장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람 몇 명을 누구를 어떤 사람을 어떻게 써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시키느냐. 뭐 옛날 사람이 아니니까 뭐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정도는 이루어져야 이 문화적 재산이 이게 자원이 된다. 대놓고 어디 가서 어 저저저 이여튼 경쟁력이 생긴다. 문화적 경쟁력이 이 관광사업이잖아요. 완전히.

@ 전국적으로 지금 그 전통 제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지금 없는 거죠?

네 근방에도 못가. 자기들은.

@ 탄 분들은 그게 그냥 서양식으로 만들어진 철을

갖다가 하니까 그거는 그래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절대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애초에 이거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게 이 팔십 년도에 나왔는데.

@ 그 이게 지금 칼만드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한 열댓 명 되죠.

@ 그 분들이 만든 칼이랑 선생님께서 만드신 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차이점이 뭐냐면 그 그분들은 하나의 도구로서 기능을 다 할 뿐이고, 저는 그 도구

로서 기능과 더불어 미술적 값어치 이 옛날 방식으로 노동력으로 고난도 기술로 한 개인의 기술로 만들어 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인제 문화적 값어치가 부여가 돼야 되고, 또 감상과 감정을 했을 때 완전히 판이하게 틀려요. 그건 아무런 무늬도 없는 거야 이거는. 그 현대강이라는 거는. 그냥 탄소량이 워낙 같고 워낙 정선된 강철이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는 게 없어 아무것도.

@ 그게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칼 문양이 없는 건가요?

아무것도 없어 그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또 약어가지고 이 주 미국 바이 바이어가 중국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접쇠라고하는 가짜 칼을 만들어요. 현대강을 갖다가 일본도 흉내를 내는 거. 싸구려 일본도 가짜 일본도 저 백이십만 원짜리. 이제 한국 작가들이 한국 칼 만드는 이 회사 그 하고 칼 만드는 사람들이 그거를 인제 눈떠갖고 그거를 접 쇠칼이다 해가지고 만드는 사람들 보면 참 왜 찾지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걸 찾거든 접 쇠 칼에 대한 신봉이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일본도 니뿐도 그것도 헐리우드 영화의 병 팬데 그거 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본질적으로 틀려요.

@ 철 자체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유 그렇죠. 철 자체도 틀리고 만드는 작법에서 어 어 생겨지는 여러 가지 그 그런 미술적 요소들.

@ 그 미술적 요소들이 문화적 그런 것이라는 것 자체가 칼에 다가 조각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 원래 철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무늬나 그런 무늬의 예술적인 가치

그렇죠. 예. 역사적인 문제 무슨 뭐 문화적인 뭐 이런 거 다 결부돼 갖고. 결국은 감상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값어치를 매길 수 있게 그 사람 기량이 어디까지인지 완전히 그게 품평이 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지 그냥 뭐 누구 칼이니까 얼마. 이 이게 절대 물론 그거는 나중에 인제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좀 하여튼 우리가 어차피 여기까지 오는 저 현재 거의 그 이 불모 상텐데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학술서라도 나오고 일본하고 또 이렇게 일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다 그게 그거 이것들이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작년에 했던 것들 제가 여튼 일본 사람들하고 일본 핵심적인 사람들하고 요 같이 이렇게 학술 세미나도 하고 한 것들인데.

@ 그 칼을 인제 딱 완성해 가지고 하면 많이 보여줄 뭐 지금 선생님께서 부족하다고 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뭐 판매를 하든 아니면...

아 그건 철박물관이라고 거기에 또 개관이 재개관돼 가지고 올 봄에 거기 인제 모든 제작 공정과 여러 가지 제시들이 돼 있고 제 손으로 다 만들어서 학에서 학예실하고 같이 연구해서 그렇게 하고 인제 에 제 칼을 도신만 정 중앙에 이렇게 쇼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유형별 형태별로 이렇게 그런 것들은 또 괜찮죠. 그게 또 박물관이니까 어차피 철 산업 쪽으로 이렇게 뭐 그런 게 큰 성과라면은 인제.

@ 철 박물관이 어디에 있죠?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어요.

@ 아 감곡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 그래도 그 칼 한 점 제 칼은 싸지가 않아요. 쌀 수가 없고 그 왜 그럼 제조 단가도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다들 그래도 철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제 가격을 다 지불을 하고 게 매입을 해주셔 갖고 또 제가 또 많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좀 뭘 해결하는데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저는 영업을 안 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개인들한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이 몇 건 되지만은 저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칼 좋아하시고 한 사람 이제 예약만 하고 있는 거지. 몇 년 될지 뭐 한 한 칠년 됐으니까. 오년도 되고.

@ 기회 닿으면 만들어 달라.

예예. 지금도 뭐 며칠 전에도 여섯 분이 그런 분이 있는데 기약 없는 거죠. 그냥 뭐 해 주겠다고 그러지. 그 사람들 빨리 해주고 싶은데. 제가 뭐 그거 일일이 인제 우리가 연구 사업 하는 것만 해도 거기서 제시해야 될 것만 해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래서 아 이거 뭐 칼 판매하고 매매하는 것들은 아마 당분간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뭐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전시는 한번 좀 해봐야죠. 뭐 박물관이나 가능하면 국가 기관에서라도 뭐 예술의 전당이나 아니면, 뭐 인사동 사설 미술관이래두 뭐 서울 가서 해야지. 서울 가서. 이 전체 라인을 들고 가는 거예요. 칼만 달랑 할 게 아니라.

@ 용광로까지 다

뭐 웬만하면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실제 실물로서의 라인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다 제시 해야지. 그런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다 같이 제시해서 평가도 좀 받고 그래서 대

중화 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 그냥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뿌리가 있어야 나오지. 그동안 포항제철서 만드는 줄 알았죠. 모든 건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래서 본질적인 역사를 다시 이 찾아야 되는 거. 그 작업이 이 작업이에요. 지금 뭐 왜정 전이든 왜정 때든 뭐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할 일도 많고.

@ 요즘은 그 어떤 일을 하세요?

요즘은 제강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다큐멘터리 몇 건이 한 시간짜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빨리 빨리 제가 쉬지 않고 계속 하고. 또 연구소하고 학생들하고 또 학생들 또 계속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제강하고 있어서 칼 만들 땐 일시에 칼을 만들어야 되고 성형할 때 그렇게 하고 담금질 할 땐 또 일시에 거기에 아주 몰입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지금은 제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몇 점은 끝내 놔야 올해.

@ 조만간에 칼 이렇게 뭐 담금질이든 그런 기회가 언제쯤 될 거 같은지요? 제가 그 과정을 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두 아무래두 연말도 돼야 되고 그리고 내년 초에 내년 초에 또 KBS에서 한 시간짜리를 또 광범위하게 하나 다루는데 거기에 인제 중요 과정을 아마 제가 담당을 할 거 같고. 인제 그렇게 하고 담금질 할 때는 개인적으로 인제 우리 학생들하고 할 때 또 있고 그래서 그건 연말에 한 번 추석 전에 한 번 이렇게.

@ 아 추석 전에 한 번 하시나요?

예. 예예. 고건 추석 전에 하는 건 예 다큐멘타린데, 추석날 저기 방송을 한대요.

@ 추석 때 방송하면 훨씬 그 전에 뭐 한 보름에서 한달 전에 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 앞으로의 선생님 계획은

아 그래서 저는 그 진짜 시 아주 신검 신물을 왜 제가 신물이란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제시대 건너간 것들 그런 칠성검이나 이런 신검들 그리고 일본에 그 역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그 기술인으로서 같은 기술자로서 도공으로서 이런 사람들 경지 저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게 그게 목적이고. 그러고 대물려 할 사람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거 큰일났어. 큰일났어. 큰일났어. 예 이거 큰 일 아니에요?

@ 예. 참 그게 힘들어서 한 이십여 년 해 가지고 그 기술을 터득하고 하셨는데 물려주질 못 하면은 안 되죠.

그것도 또 허망한 짓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그건 그거야말로 허망한 거 같은데 제가 또 애를 일부러 안 낳았어요. 이거 한다고.

@ 선생님 같이 이렇게 몰입하시고 이런 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뭘 하나 이렇게 할려고 해도 다른 걸리는 것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가족도 그렇고,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으니까,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 그 아 아무튼 용기도 있어야 되고, 또 뭐 고집도 있어야 되고.

그러구 예 기질이 있어야 돼. 기질이. 누가 말려도 예 불 속에 뛰어 들어서 저 죽는 줄 모르고 헐 정도로 그게 아마 하고 싶어야 하지 그럴 거 같아요.

@ 좋은 칼 일명 '명검'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칼은 어떤 칼인가요?

아... 정의를 내리자면은 공학적으로 요구되는 이 공학적 차원에서 물리적인 화학적인 고런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공학적 차원에서 완벽한 절대치 이 교과서적 교과서 금속재료학이나 재료공학이나 이런 데 그 기재됐듯이 그 수치든 그거에 보답하고. 일단 절대치에 칼로서.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이 그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낸 게 인제 합해가지고 이게 강재를 각종 강재를 합해서 구조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 완전히 그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제 공학적으로 절대치에 가깝게 만들어 놓고, 공예적으로 또 이게 문제가 있어요. 감상 감정에서 고계 얘기한 제가 구체적으로.

@ 예술적 가치?

예. 제가 앞으로 제시해 드리겠지만 고 고 지 지 직접 그림을 제시해 드리겠지만. 실물은 없으니까. 그림으로 제시해 드리겠지만은. 예 그럴려면 개인기가 있어야 돼요. 개인기하고 아주 그 뛰어난 개인기와 침부터 이 제철 시에서부터 관리가 잘 돼야 돼요. 뭐 한 가지만 잘해선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실수 않고 끝까지 잘해야지 명품이 나와요. 요건 왜 노동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어가 확실해야 되지 결말과 제어가 과정과 결말이 완전히 과학적으로 과학밖에 없어 이걸. 과학 과학하고 숙달. 이 육안적 숙달이나 이 몸으로 행해지는 그 숙달밖에 없는 거죠. 과학적인 그런 원리와 오로지 거짓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이걸 도자긴 약간 비켜 나갈 수가 있어요. 감상적

차원에서 들어가자면. 뭐 무슨 뭐 여백의 미니 어찌구 칼은 여백의 미가 없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공학적 절대치 외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죠. 거기에 온갖 미사여구 백번 동원 해봐야 다 들통 나 감정에서.

@ 공학적으로 칼의 그 기준에 맞으면서 예술적인 가치가...

부여가 돼야죠. 공예적 미가 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 공예적 미도 역시 기술이에요.

@ 어느 한 부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기술이에요. 기술.

@ 예. 그렇죠. 그게 기술이죠.

고기서 예 물리 저저 이 물리적으로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거기에 다 그 쇠에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그 어 변화가 그런 현상이 나오지 이 칼 몸통 속에 그 현상이 다 다 보여요. 그 사람이 만들어 낸 게 아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지. 물리적 특성에 의해서. 그건 사람이 찾아냈었는데, 찾아내긴 내 낼 뿐인데 걸 기묘하게 찾아내느냐 그냥 보편적으로 아무나 하는 듯이 찾아내느냐 부엌칼 만들듯이 그거 많이 기묘하게 아름답게 찾아.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제가 제시를 해 드릴 게요. 뭐가 명검인지.

@ 하하하하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참 이 뭐가 이 뭐 참 이렇게 이렇게 세월도 금방 가빠리고 이게 참 남는 건 뭔지 이 자부심 하나로 버티는데. 참 잘 좋은 거 만들어야 되겠다 그 그런 기대감 고런 거죠 뭐. 그런 게 아주 머릿속에 꼭 차 있어가지고 너무 그래도 안 되는데. 그러니 예 그렇게 그것도 너무 지나친 욕심 같은데 그래도 그런 것들도 절제 해가면서 자꾸 되돌아보는 심리적으로나 이 인사 자체를 사람 일이라는 건 사 사람 인생에 대해서 자꾸 되돌아봐야 될 거 같아서 자꾸 자 자주 하죠. 내 스스로 자꾸 이렇게 생각해보고 뭐 뭐 좀 이렇게 경계적인 문제도 생각해보고 그런 거 같아요. 쓸쓸한 거예요. 사람이 참 예고 사는 게.

@ 예. 그럼 오늘 생애 구술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너무 영광이구요.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4장 조사된 어휘

1. 칼이란?

1.1. 칼

‘칼’은 물건을 베거나 썰거나 깎는 데 쓰는 도구이다. 인류는 일찍부터 칼을 사용하였다. 칼을 가지고 곡식을 베거나 짐승을 잡는 사냥 도구로 사용하였다. 한편으로는 다른 종족과 전쟁을 하는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칼은 인류의 생존을 함께하였던 물건이다. 일찍부터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한 칼이기에 칼에는 우리말도 함께 공유하였다.

‘칼’은 15세기에 ‘갈ㅎ’이었다(劔은 갈히라<釋譜詳節, 23:49b>). 곡용할 때 ‘ㅎ’ 종성을 가지던 ‘ㅎ’종성 체언들 중 어두음이 평음이었던 몇몇 단어들은 16세기에 어두 유기음화를 겪었는데(불ㅎ>폴[臂], 고ㅎ>코[鼻]), ‘갈ㅎ>칼ㅎ’의 변화도 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 {칼을} 완성하는 데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손이 필요한데 전문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칠쟁이도 필요하고 은쟁이도 필요하고 뭐 방짜 두석 뭐 대장장이도 필요하고.

1.2. 도와 검의 구분

도(刀)와 검(劍)은 조선시대 군사들의 개인 휴대무기 가운데 대표적인 단병기이다. 도(刀)는 날이 한 쪽에만 있으며 대체로 곡선의 형태로 되어 있고 자루가 길면서 칼집이 없었다. 주로 베어서 살상효과를 냈다. 반면 검(劍)은 날이 양쪽에 있으며 형태는 직선으로 되어 있고 도(刀)에 비해서 자루가 짧고 칼집이 있다. 검(劍)은 베는 것 외에도 찔러서 살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도(刀)와 검(劍)은 최초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나 전장에서의 효용도와 제작 공정상의 이점으로 인해 도는 전투용으로서의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전투용 도(刀)의 보편화 추세는 패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종래 검(劍)에만 있었던 칼집을 도(刀)에도 갖추게 했다. 한편 검(劍)은 칼날을 중시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자루와 장식에 치중하는 형태로 전환되기에 이른다.

1.2.1. 도(刀)

‘도(刀)’는 날이 한 쪽에만 있는 칼을 말한다. <戎垣必備>에는 “도는 자루가 길고 칼날이 휘어져 있으며 손잡이 머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루와 칼날의 길이나 칼집의 유무도 가리지 않고 모두 ‘도’라고 부른다고 하였다.³⁾

⇒ {도는} 칼날이 한 쪽에 있고, 칼등이 이렇게 있는 걸 {도라고} 그러고.



[사진 8] 도(刀)

1.2.2. 검(劍)

‘검(劍)’은 칼 중에서 칼날이 양쪽에 있는 것을 구분하여 이르는 말이다.

⇒ 칼등이 없고 칼날이 양쪽에 있는 것을 {검이라고} 그러는데, {검은} 주로 직선이구요.



[사진 9] 검(劍)

3) 刀者長柄施刃而鐔者也. … 今人不分柄刃長短環匣有無通謂之刀 <戎垣必備> ‘還刀條’

2. 칼의 종류

2.1. 환도류(環刀類)

2.1.1. 환도(環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환도’가 “예전에 군복에 갖추어 차던 군도”라고 되어 있는데 환도가 꼭 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구태여 군복에 갖추어 차던 것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환도는 병영뿐만 아니라 일반에서도 흔히 사용되던 칼의 종류이다. 조선시대에는 칼자루가 짧은 외날 칼을 대부분 ‘환도(還刀)’라고 불렀다. <戎垣必備>에 “환도를 ‘環’이라고 명명한 것은 칼집이 있어 고리를 달고 이 고리에 끈을 묶어 찌기 때문에 환도라 하였다”⁴⁾라는 기록이 나온다. 곧 ‘환도’란 칼집에 고리가 있어 여기에 끈을 묶어 허리에 찌 수 있는 칼을 말한다.

한편 이은철 도검장은 ‘환도’가 도신이 휘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환도’가 칼날이 휘어서 ‘환도’라 한 것은 아니다. <文宗實錄>에는 조선 환도의 칼날 형태가 ‘直短’이라 기록되어 있다. 곧 당시의 환도는 칼날이 곧고 짧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도’라는 명칭이 칼날이 휘어서 붙여진 이름은 아니다. ‘환도’란 패용할 수 있는 칼을 의미한다.

<朝鮮王朝實錄>에는 조선의 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바친 ‘왜검(倭劍)’도 환도라고 적고 있다. 곧 환도란 특정 시기에 출현한 도검의 형식을 규정하는 명칭을 뿐 특정 유형의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패용할 수 있는 칼, 그중에서도 등근 고리를 달아 찌 수 있는 칼의 범칭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환도는 길이에 따라 ‘대환도’, ‘중환도’, ‘소환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 {환도는} 그 칼집에 등근 고리를 만들어서 이 고리에 끈을 묶고 찌기 때문에 {환도라} 했던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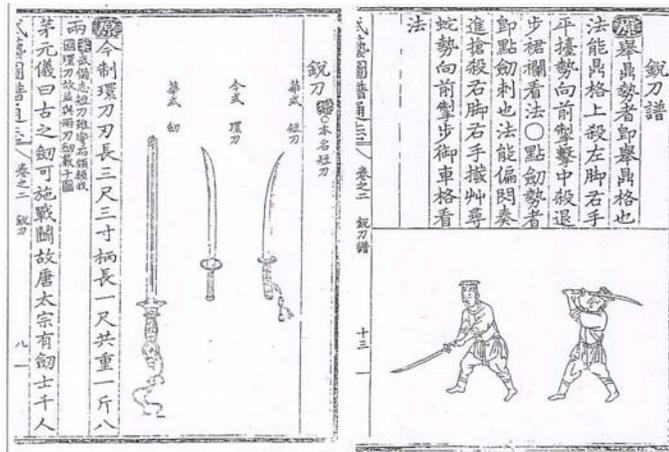
[사진 10] 환도(環刀)

4) 此刀之以環爲名者 有匣而施環纓環而佩之故曰環刀 <戎垣必備> ‘還刀條’

2.1.2. 예도(銳刀)

‘예도’는 환도와 같거나 비슷한 칼이다. 전체 길이는 약 90cm, 날 길이는 약 69cm, 자루 길이는 약 21cm이며, 무게는 900그램 정도이다. <표준국어대사전> ‘예도’ 항에는 “예전에 쓰던 끝이 뾰족한 군도(軍刀)의 하나. 환도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전체 길이는 약 130cm이고 무게는 900그램 정도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기술에서 칼의 제원에 대한 내용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 기록은 <武藝圖譜通志>에 나오는 “날 길이 3척 3촌, 자루 길이 1척, 무게 1근 8냥”을 환산한 것이다. 곧 전체 길이 ‘4척 3촌’을 단위 변환하여 130cm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130cm의 길이면 1.5-1.7kg 정도 무게가 나가며 900g 정도가 나올 수가 없다. <武藝圖譜通志>의 제원은 ‘영조척’이 아니라 ‘주척’(1척=20.8cm)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전체 길이 약 90cm 정도의 크기가 나온다.

⇒ {예도는} 단도와 같고, 단도는 환도와 같고, 환도는 요도와 같습니다.



[사진 11] <武藝圖譜通志>‘銳刀’條

2.1.3. 요도(腰刀)

‘요도’는 허리에 차던 칼로 ‘환도’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의 ‘요도’ 항에는 “병기 가운데 허리에 차던, 칼집 없는 칼. 주로 육박전에 썼는데, 날이 석 자 두 치, 자루가 세 치로 칼날이 조금 휘우듬하며 강철로 만들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칼집이 없는 칼이라는 설명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니까 환도를 곧 {요도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4. 대환도(大環刀)

‘대환도(大環刀)’는 환도 중에서 가장 큰 규격에 속하는 칼이다.

- ⇒ {대환도는} 환도 중 가장 큰 규격에 속하는 칼. 쌍수도법에 쌍수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환도. 이렇게 되는 거죠.

2.1.5. 중환도(中環刀)

‘중환도(中環刀)’는 환도 중에서 표준이 되는 칼로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칼을 말한다.

- ⇒ {중환도가} 사실은 표준적인 칼이지 결코 짧은 축의 뒤 짧은 작은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1.6. 소환도(小環刀)

‘소환도(小環刀)’는 중환도보다 작은 규격의 칼이다. 중간 이하의 작은 규격에 속하는 칼로 쌍검법에 사용하는 칼을 말한다.

- ⇒ {소환도는} 중간 이하의 작은 규격에 속하는 칼. 팔호치고 쌍검법에 사용하는 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2.1.7. 패도(佩刀)

‘패도(佩刀)’는 패용할 수 있는 외날의 칼이다. <朝鮮王朝實錄>에서 ‘패도’라는 이름이 자주 사용되지만 특정한 형태의 도검 양식을 지칭한다기보다는 ‘허리에 차는 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 {패도는} 그러니까 패용할 수 있는 외날의 칼이라고 정확히 해 주는 게 좋습니다.

2.1.8. 패검(佩劍)

‘패검(佩劍)’은 패용할 수 있는 칼을 말한다. 명칭은 ‘검’이지만 운검과 동일하게 환도의 일종으로 어피로 감싼 후 흑칠을 하고 장식은 황동을 사용하였다. 운검과 동일하게 홍조 수아로 장식을 하고, 녹비의 허리띠로 패용하였다.

- ⇒ 사어피로 감싸고 칼집에 고리 달고 색끈이나 가죽띠로 패용하다는 건 똑같은 거 봐서는 이제 조선 초의 {패검이나} 고려시대 {패검이나} 거의 비슷한 스타일인거 같아요.

2.2. 어도(御刀)

2.2.1. 어도(御刀)

‘어도(御刀)’는 임금의 칼을 말한다. ‘어도’를 ‘어검’이라고도 하는데 도와 검의 형식에 따라 구분한 것은 아니다. 칼의 형식은 외날의 ‘도’인데 형식에 관계없이 ‘어도’라고도 하고, ‘어검’이라고도 하였다.

⇒ 보통 어검은 그러면은 쉽게 다 돕니다(도입니다). 돈데(도인데) 그냥 어검 그래 버리고. 그걸 구분할 때는 {어도}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거죠.

2.2.2. 어검(御劍)

‘어검(御劍)’은 임금의 칼을 말한다. 명칭은 ‘검’이지만 실제로는 ‘도’의 형식을 하고 있다.

⇒ 보통 {어검은} 그러면은 쉽게 다 돕니다(‘도’입니다). 돈데(‘도’인데) 그냥 {어검} 그래 버리고. 그걸 구분할 때는 어도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거죠.

2.3. 의도류(儀刀類)

2.3.1. 의도(儀刀)

‘의도(儀刀)’는 의장(儀仗)과 의례(儀禮)에 쓰던 칼을 이르는 말이다.

⇒ {의도는} 의장에 쓰던 칼. 의장 의례에 쓰던 칼 정도가 되겠습니다.

2.3.2. 운검(雲劍)

‘운검(雲劍)’은 조선시대 임금을 호위하던 운검 무사들이 차던 칼이다. 원래 ‘운검’은 임금의 좌우에 서서 호위하는 직책으로, 나라에 행사가 있어 임금이 참석할 때 유능하고 이름 있는 무장 중에서 가장 믿는 사람을 골라서 임명하였다. 이들은 ‘운검(雲劍)’ 혹은 ‘별운검(別雲劍)’이라고 하였다. 이들 호위무사가 소지한 칼은 운검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운검을 환도와 구분하여 별도의 칼로 분류한 사람들이 많으나 이 칼은 별도의 칼의 종류가 아니라 환도의 일종이다. 운검은 의장(儀仗)에 쓰던 환도로 칼집은 어피로 싸고 주홍색으로 칠하며, 장식은 백은을 썼다. 붉은색의 띠와 수술 홍조수아를 장식하여 미적 감각을 높인 칼이다.

⇒ {운검은} 칼집은 어피로 싸고 주홍색으로 칠했고 장식은 백은을 사용해서 만든 환도입니다.

2.3.3. 별운도(別雲刀)

‘별운도’는 임금을 호위하는 별운검이 차던 칼이다. ‘별운도’라는 명칭은 옛날부터 쓰던 말이 아니다. 이전에도 ‘별운검’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이 말은 칼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벼슬 이름이었다. 운검이 임금을 호위하는 보좌관인데 별운검은 운검 중에서 특별히 선정한 특별보좌관이다. 이들도 역시 운검을 차고 있었다. ‘운검’이 칼의 종류로 사용된 예는 <朝鮮王朝實錄>에 자주 나타나지만 ‘별운검’이 칼의 종류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별운도’는 별운검들이 차던 칼이라는 의미로 후대에 만들어진 말이다. 특히 칼날의 형태가 ‘도’이기 때문에 ‘별운검’이 아니라 ‘별운도’라 명명된 것이다.

- ⇒ 그리고 {별운도라는게}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신조어입니다. 이게 근데 요즘 다 쓰고 있으니깐요. 운검은 이제 검이라는 명칭을 가지지만 기물의 법칙은 외날의 도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별운도는} 별운검에 칼날 형태를 도로서 구분하여 재명령한 현대어라는 거지요. 원래 ‘별운도’라는 말은 없었다.



[사진 12] 별운도(別雲刀)

2.3.4. 보검(寶劍)

‘보검’은 일반적으로 보배로운 칼을 말한다. 또한 나라의 행사나 의식에서 의장(儀仗)에 쓰던 칼을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그 외에도 운검이나 별운검과 마찬가지로 벼슬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보배로운 칼”과 “예전에, 나라의 행사나 의장에 쓰던 칼”로만 기술하고 있는데 벼슬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 ⇒ {보검을} 사전적으로 말해서 그냥 아시다시피 귀하고 보배로운 칼이 있고, 두 번째 {보검의} 의미가 사실은 “금과 은, 옥 등을 써서 {보검을} 만들어라”라고 연산군이 말했기 때문에 <연산군 실록>에 나오는 보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검의} 세 번째 의미는 구한말에 관직명입니다. 이것도 운검, 별운검, 보검으로 이어지는 관직명이죠.

2.4. 참사검류(斬邪劍類)

2.4.1. 참사검(斬邪劍)

‘참사검(斬邪劍)’은 벽사(辟邪)와 참사(斬邪)의 힘을 지닌 주술적인 칼이다. 주술적 의미를 갖는 ‘사인검’, ‘삼인검’ 등이 모두 ‘참사검’에 속한다.

⇒ {참사검의} 의미는 어떤 특정한 의식을 통해 신령한 힘을 칼에 붙여넣어 그 힘으로서 벽사와 참사의 기능을 지닌 어떤 주술적인 칼 이게 사실은 {참사검의} 진짜 의미일 뿐이고

2.4.2. 칠성검(七星劍)

‘칠성검(七星劍)’은 검신에 북두칠성이 새겨진 칼을 이르는 말이다.

⇒ {칠성검은} 검신에 북두칠성이 새겨진 칼이고, 북두칠성은 여기서 신령한 의미를 뭐 상징하거나 기원하면서 새겼다.



[사진 13] 칠성검(七星劍)

2.4.3. 칠성도(七星刀)

‘칠성도(七星刀)’는 도신에 북두칠성이 새겨진 칼을 이르는 말이다.

⇒ {칠성도도} 도에다가 칠성문을 시문한 칼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2.4.4. 사인검(四寅劍)

사인검은 재앙을 물리치는 도구로 제작된 것이다. 사인검은 ‘사인(四寅)’ 곧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일(寅日), 인시(寅時)에 타조하여 만든 것이다. 인검을 만든 목적은 재앙을 물리치고 사귀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벽사의 위력을 지닌 용도로 만들어 왕실의 안녕과 국태민안을 기리는 등의 주술적, 의기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이다. 조선조 초기부터 만들었고 매 12년마다 만든다. 칼은 순양의 기운을 지닌다.

⇒ 시간과 이런 걸 시간만 맞추면 그건 {사인검} 되니까

2.4.5. 사인참사검(四寅斬邪劍)

‘사인참사검(四寅斬邪劍)’은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일(寅日), 인시(寅時)에 만든 칼이다. 사인검의 참사 기능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명칭이다.

⇒ 실제로 유물도 있는것도 그렇고 칼에 유물에 써 있는 검명에도 나와 있는 건데 사인검이 있고 {사인참사검이} 있고 사인도가 있습니다.

2.4.6. 사인도(四寅刀)

‘사인도(四寅刀)’는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일(寅日), 인시(寅時)에 만든 칼이다. 사인검과 달리 칼날이 도의 형식을 하고 있는 칼.

⇒ {사인도도} 있어요. 사인참사도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인검, 사인참사검, {사인도}, 사인참사도 이게 검명에 다 나와 있어요.

2.4.7. 사인참사도(四寅斬邪刀)

‘사인참사도(四寅斬邪刀)’는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일(寅日), 인시(寅時)에 만든 칼이다. 사인도의 참사 기능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명칭이다.

⇒ {사인참사도라고} 한다면 좀 더 칼이 나타내는 어떤 용도와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써놓은 것에 불과한 거겠고,

2.4.8. 삼인검(三寅劍)

‘삼인검(三寅劍)’은 ‘사인검’의 사인(인년, 인월, 인일, 인시) 중에서 한 가지가 빠진 시기에 만든 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가 빠진 인년, 인월, 인일에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연산군 7년(신유년)이 인년(寅年)이 아닌데도 삼인검을 만들라는 명을 내린 것으로 볼 때, 인년이 아닌 때에도 인월, 인일, 인시에 삼인검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 {삼인검은} 사인검에서 시가 하나 빠진 것을 말하죠.

2.4.9. 사진검

‘사진검’은 사인검과 달리 용의 해에 ‘辰’이 네 번 겹치는 진년(辰年), 진월(辰月), 진일(辰日), 진시(辰時)에 만든 칼이다. ‘사인검’과 마찬가지로 사귀를 물리치고 재앙을 막기 위한 주술적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 사인검 삼인검처럼 {사진검} 삼진검도 있습니다.

2.4.10. 삼진검

‘삼진검’은 사진검의 사진(진년, 진월, 진일, 진시) 중에서 한 가지가 빠진 시기에 만든 칼이다. 삼인검과 마찬가지로 주술적 의미를 지닌다.

⇒ 사인검 삼인검처럼 사진검 {삼진검도} 있습니다.

2.4.11. 삼진도

‘삼진도’는 사진검의 사진(진년, 진월, 진일, 진시) 중에서 한 가지가 빠진 시기에 만든 칼이다. 삼진검과 달리 칼날이 도의 형식을 하고 있는 칼을 구분하여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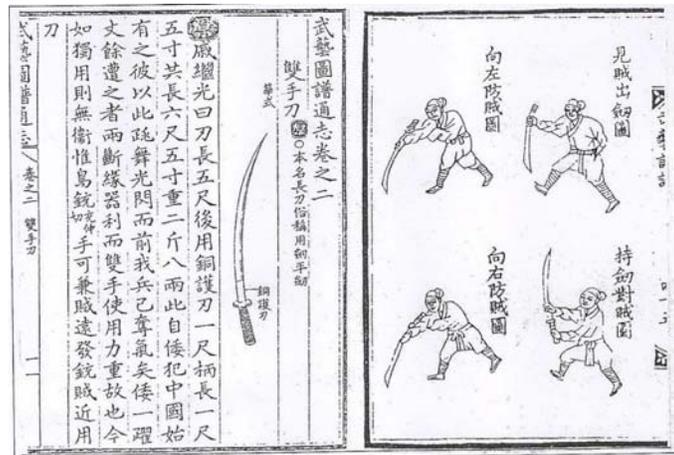
⇒ 아 그리고 {삼진도도}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고.

2.5. 장도류(長刀類)

2.5.1. 쌍수도(雙手刀)

‘쌍수도(雙手刀)’는 칼이 길어 한 손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 두 손으로 사용하는 칼을 말한다. 자루 길이는 30cm, 날 길이는 동호인을 포함하여 104cm이다. 동호인의 길이는 21cm이다. 동호인의 길이가 긴 것은 칼자루와 동호인을 함께 잡고 창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무예도보통지>만 정확히 봐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쌍수도의} 원래 이름을 장도라고 합니다.



[사진 14] <武藝圖譜通志>‘雙手刀’條

2.5.2. 장도(長刀)

‘장도(長刀)’는 일반적으로 ‘긴 칼’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쌍수도나 왜도와 같이 평균 이상의 긴 칼을 보편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나중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환도도 장도라고 하였다.

- ⇒ 그러니까 {장도에도} 또 여러 가지예요. 쌍수도같이 긴 칼도 {장도}. 나중에는 일반 우리가 쓰는 환도 보통 가장 표준이 되는 칼도 일반적으로 쉽게 말할 때는 일반인이 {장도라고} 합니다. 긴 칼이었으니까 그래요.

2.5.3. 장검(長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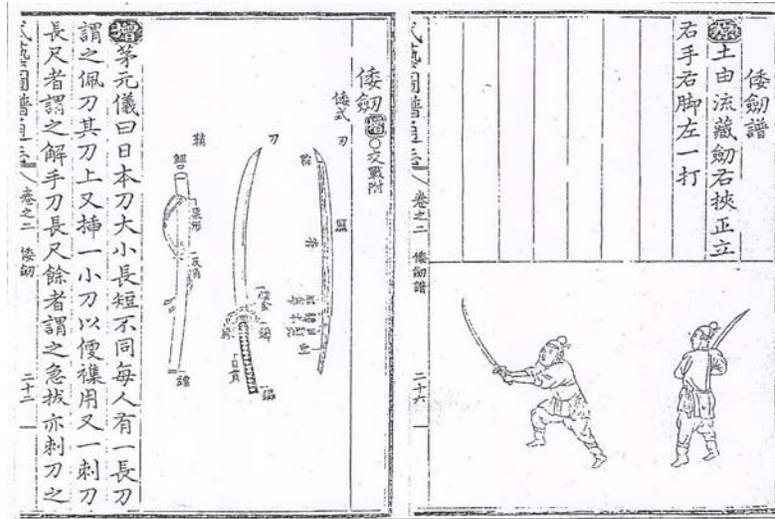
‘장검(長劍)’도 장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긴 칼을 말한다. 장검이 양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도와 구분하여 부르는 말이다.

- ⇒ {장검은} 마찬가지로 긴 칼이죠. 양날을 가지고 있는 긴 칼.

2.5.4. 왜검(倭劍)

‘왜검’은 일본도(日本刀)를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이 외에도 우리 환도 중에서 일본도(日本刀)의 규격을 차용한 환도도 왜검이라 하였다. 또한 일본도(日本刀)의 규격을 차용한 환도를 가지고 하던 무예도 ‘왜검’이라 칭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십팔기(十八技) 또는 이십사반 무예(二十四般武藝) 가운데 보졸(步卒)이 일본도(日本刀)를 가지고 하던 무예.”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조선 병사가 굳이 일본도를 가지고 무예를 할 이유는 없다. 이때의 ‘왜검’은 일본도가 아니라 일본도의 규격을 차용한 환도로 보아야 한다.

- ⇒ {왜검} 같은 경우는 보졸이 일본도를 가지고 하던 무예가 아니라 이것도 이제 환도인데, 일본도의 규격을 차용한 환도를 가지고 하는 무예라고 해야죠.



[사진 15] <武藝圖譜通志> '倭劍'條

2.5.5. 왜도(倭刀)

'왜검'과 마찬가지로 '왜도(倭刀)'도 일본도(日本刀)를 이르거나, 우리 환도 중에서 일본도(日本刀)의 규격을 차용한 환도를 이르는 말이었다.

- ⇒ 또한 왜검을 {왜도라고도} 불렀죠.

2.5.6. 해수도

'해수도'도 '왜검' 또는 '왜도'를 이르는 말이다.

- ⇒ <무예도보통지>에서 말하는 말인데 왜도를 왜검을 {해수도라고도} 불렀습니다.

2.6. 장도류(粧刀類)

2.6.1. 장도(粧刀)

'장도(粧刀)'는 옷고름에 차고 다니는 칼집이 있는 작은 칼을 말한다. 칼집과 자루는 금, 은, 밀화(蜜花), 대모(玳瑁), 뿔, 나무 따위로 장식을 한다. 주로 호신용으로 사용하거나 장식용으로 쓰인다.

- ⇒ {장도는} 주머니 속에 넣거나 라는 걸 좀 말이 좀 애매하고요. 옷고름에 차고 다니는 칼집이 있는 작은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연할 말은 뭐냐하면 그 장식과 잡용 호신의 기능을 지닌다.

2.6.2. 금장도(金粧刀)

‘금장도(金粧刀)’는 금으로 장식한 장도이다. 호신 및 노리개의 용도로 찬다.

- ⇒ 장도는 아예 {금장도}, 은장도, 옥장도, 대모장도, 목장도, 을자장도, 화각장도, 상아장도 여기까지만 쓰셔도 장도의 대중적인 의미를 쓰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2.6.3. 은장도(銀粧刀)

‘은장도(銀粧刀)’는 은으로 만든 장도이다. ‘은장도’는 장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호신 및 노리개의 용도로 찬다.

- ⇒ 장도는 아예 금장도, {은장도}, 옥장도, 대모장도, 목장도, 을자장도, 화각장도, 상아장도 여기까지만 쓰셔도 장도의 대중적인 의미를 쓰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2.6.4. 옥장도(玉粧刀)

‘옥장도(玉粧刀)’는 자루와 칼집을 옥으로 만들거나 꾸민 작은 칼이다.

- ⇒ 장도는 아예 금장도, 은장도, {옥장도}, 대모장도, 목장도, 을자장도, 화각장도, 상아장도 여기까지만 쓰셔도 장도의 대중적인 의미를 쓰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2.6.5. 목장도(木粧刀)

‘목장도(木粧刀)’는 칼집과 자루를 나무로 만든 장도이다.

- ⇒ {목장도는} 나무가 재질이고, 을자장도는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2.6.6. 대모장도(玳瑁粧刀)

‘대모장도(玳瑁粧刀)’는 칼집과 자루를 대모(玳瑁)로 장식한 장도이다.

- ⇒ 장도는 아예 금장도, 은장도, 옥장도, {대모장도}, 목장도, 을자장도, 화각장도, 상아장도 여기까지만 쓰셔도 장도의 대중적인 의미를 쓰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2.6.7. 화각장도(華角粧刀)

‘화각장도(華角粧刀)’는 칼집과 자루를 화각의 기법을 이용해 장식한 장도이다.

⇒ {화각장도는} 화각을 기법을 이용해서 쓰는 거고,

2.6.8. 상아장도(象牙粧刀)

‘상아장도(象牙粧刀)’는 칼집과 자루를 상아로 꾸며 만든 장도이다.

⇒ {상아장도는} 상아 이거 다 있는 거니까요.

2.6.9. 을자장도(乙字粧刀)

‘을자장도(乙字粧刀)’는 ‘을(乙)’ 자를 길게 늘인 것과 비슷한 모양의 장도이다.

⇒ 목장도는 나무가 재질이고, {을자장도는}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2.6.10. 을자도(乙字刀)

‘을자도(乙字刀)’는 ‘을(乙)’ 자를 길게 늘인 것과 비슷한 모양의 칼이다.

⇒ {을자도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패도예요.



[사진 16] 을자도

2.6.11. 첩사도

‘첩사도’는 선비들이 호신용으로 차던 칼이다. 여자들이 차던 은장도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 요거는 이제 {첩사도라고} 해서 은장도 남자들 패운데...

2.6.12. 손칼

‘손칼’은 몸에 지니거나 달고 다니던 짧고 작은 칼을 말한다.

⇒ {손칼이} 주머니칼이고, 그건 자도라고 그래요

2.6.13. 주머니칼

‘주머니칼’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쓰는 작은 칼을 말한다.

⇒ 손칼이 {주머니칼이고}, 그건 자도라고 그래요

2.6.14. 자도(子刀)

‘자도(子刀)’는 작은 칼을 이르는 말이다.

⇒ 손칼이 주머니칼이고, 그건 {자도라고} 그래요

2.7. 지팡이검(杖劍)

2.7.1. 지팡이검(杖劍)

‘지팡이검(杖劍)’은 지팡이처럼 생긴 자루 안에 폭이 좁은 칼날을 숨겨 소지하는 칼을 말한다. 칼날이 검의 형식을 하고 있는 것을 ‘지팡이도’와 구분하여 이름 붙인 것이다.

⇒ 그 장도, 장검 이렇게 해 가지고, 장검도 {지팡이검}, 그 다음에 장도도 지팡이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세분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2.7.2. 지팡이도(杖刀)

‘지팡이도(杖刀)’는 지팡이처럼 생긴 자루 안에 폭이 좁은 칼날을 숨겨 소지하는 칼을

말한다. 칼날이 도의 형식을 하고 있는 것을 ‘지팡이검’과 구분하여 이름 붙인 것이다.

⇒ 그 장도, 장검 이렇게 해 가지고, 장검도 지팡이검, 그 다음에 장도도 {지팡이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세분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2.7.3. 창포검(菖蒲劍)

‘창포검(菖蒲劍)’은 죽장도와 비슷한 형태의 칼이나 대나무가 아니라 나무로 칼자루와 칼집을 만들었다. 칼날이 좁고 곧게 뻗어 있는데 이 모양이 마치 창포잎과 비슷하다고 하여 ‘창포검’이라고 한다. 창포검도 죽장도와 마찬가지로 베는 기능보다 찌르기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다.

⇒ {창포검은} 좀 웃기게 생겼어요. 칼등에 날이 있는 것. 반은 칼등이고 반은 날.

2.7.4. 죽장도(竹杖刀)

‘죽장도(竹杖刀)’는 칼집과 칼자루를 대나무로 만든 칼이다. 좁은 대나무 자루 안에 칼날을 숨겨야 하므로 칼날의 폭이 매우 좁다. 베기보다는 주로 찌르기 용도로 사용되었다.

⇒ {죽장도는} 대나무의 외형을 지닌 뭐 지팡이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진 17] 죽장도(竹杖刀)

2.7.5. 횃대검

‘횃대검’은 가는 대나무나 나무 칼집 속에 칼날을 숨긴 호신용 칼이다. 길이가 죽장도보다 짧아 숨겨 휴대하기에 적합하다. 평소에는 옷을 걸어 놓는 옷걸이(횃대)로 사용하다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뽑아 사용한다고 하여 ‘횃대검’이라고 한다는 설이 있지만 그보다는 칼의 형태가 횃대를 닮았다고 하여 ‘횃대검’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 그게 아예 {히대검} 창포검 이런 거지.

2.8. 참형도류(斬刑刀類)

2.8.1. 참도(斬刀)

‘참도(斬刀)’는 사형수를 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칼이다.

⇒ 그래 {참도} 형도 그렇게 하죠.

2.8.2. 형도(刑刀)

‘형도(刑刀)’는 사형수를 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칼이다.

⇒ 그래 참도 {형도} 그렇게 하죠.

2.8.3. 참수도(斬首刀)

‘참수도(斬首刀)’는 사형수를 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칼이다.

⇒ {참수도는} 좀 더 정확한거죠. 결국 죄인의 목을 베는 사용하는 칼이기 때문에 아직 말그대로 표현이.

2.8.4. 참형도(斬刑刀)

‘참형도(斬刑刀)’는 사형수를 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칼이다.

⇒ {참형도는} 상동 그 정도로 하면 되겠구요.

2.8.5. 망나니칼

‘망나니칼’은 사형을 집행하는 망나니들이 사형수를 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칼이다.

⇒ 그냥 {망나니칼이지} 뭐.

2.9. 협도(挾刀), 월도(月刀) 및 언월도류(偃月刀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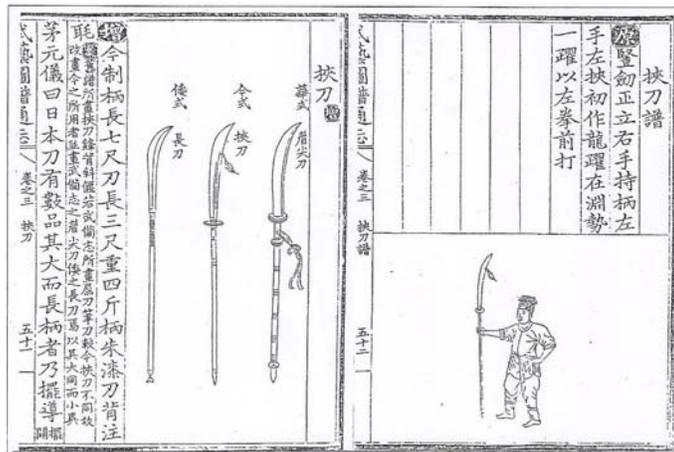
2.9.1. 협도(挾刀)

‘협도’는 자루 길이 일곱 자, 칼날 길이 석 자, 무게 너 근의 장도(長刀)이다. 날의 곡률이 매우 적어 도신의 등 부분이 거의 직도를 연상시키는 형식을 띠고 있다. 월도와 비슷하나 도신의 폭이 좁으며 칼등이 갈라지지 않았으며, 칼날은 끝이 뒤로 젖혀지지 않았다.

⇒ {협도는} 이거 좀 뭐라 할까. 좁으면서 두께가 좀 두툼하고. 무게에 따라, 자루가 길고.



[사진 18] 협도



[사진 19] <武藝圖譜通志>‘挾刀’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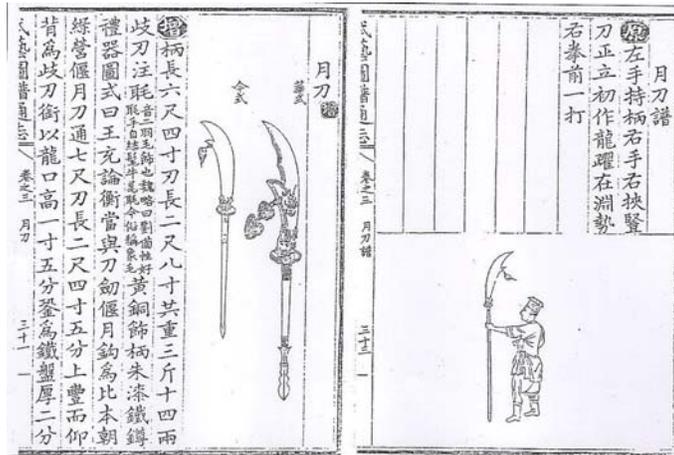
2.9.2. 월도(月刀)

‘월도(月刀)’는 ‘언월도(偃月刀)’와 같은 말이다. 칼날의 모양이 초승달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월도는} 도신이 넓은, 그리고 얇고. 도신이 넓다 보니까 또 두께가 좀 얇아요. 무게를 맞춰야 되니까.



[사진 20] 월도 · 언월도



[사진 21] <武藝圖譜通志> '월도'條

2.9.3. 언월도(偃月刀)

‘언월도(偃月刀)’는 다른 말로 ‘월도(月刀)’라고 한다. 칼날의 모양이 초승달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언월도는 자루가 길고 날의 길이 또한 긴 대도(大刀)이다. 길이는 6자 7치(203cm) 정도이며, 칼날은 끝이 넓고 뒤로 젖혀져 있고, 칼등은 두 갈래로 되어 아래 갈래에 구멍을 뚫어서 상모를 달았다. 보병은 물론 기병도 사용한 실전용 칼이다. <무예도보통지>에서는 기병이 사용하는 언월도에 대하여 “무릇 왜인이 칼을 사용하는 신묘함도 언월도의 재빠른 솜씨 아래에서는 달아날 곳이 없으니 칼 가운데 제일이라 하는 것이 빈말이 아니다(夫以倭子使刀之妙 無所逃於偃月刀揮霍之下 其謂刀中之第一者 非虛言也)”라고 하였다.

⇒ 예를 들어 {언월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코가 튀어 나온 것.

2.9.4.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는 보병이나 기병(騎兵)이 쓰던 긴 칼을 이르던 말이다. 날은 반달 모양이고, 칼등의 중간에 판 갈래가 있어서 이중(二重)의 상모를 달도록 구멍이 있

며, 밑은 용의 아가리를 물렸다. 중국식과 우리나라식의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것의 전체 길이는 일곱 자로 중국 것보다 조금 길다. ‘청룡언월도’를 그냥 ‘언월도’나 ‘월도(月刀)’라고도 하며 순서를 바꿔서 ‘언월청룡도’라고도 한다.

- ⇒ 언월청룡도가 있고 {청룡언월도가} 있습니다. 이견 이름이 왔다갔다 해요. 모습이 다르기 나오기 때문에 다른 칼은 아닙니다. 똑같은 칼을 이야기 하는 거라

2.10. 기타

2.10.1. 대도(大刀)

‘대도(大刀)’는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긴 칼을 말한다. 긴 칼이라고 해서 평균 이상의 거대한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환도와 같은 표준적인 칼을 말하는 것이다.

- ⇒ 칼의 전체적인 규격이 {대도라고} 하면은 {대도는} 일단 표준적으로 쓰는 일반적인 칼 중환도와 같은 칼로 보시면 됩니다.

2.10.2. 중도(中刀)

‘중도(中刀)’는 칼의 규격이 중환도보다 짧고 소도보다 긴 칼을 말한다.

- ⇒ {중도가} 중환도보다 짧고 소도보다 긴 칼을 일반에서 부르던 이름인 거고.

2.10.3. 소도(小刀)

‘소도(小刀)’는 칼의 규격이 중도보다 짧고 단도보다 긴 칼을 말한다.

- ⇒ {소도는} 중도보다 짧고 단도보다 긴 칼을 일반에서 부르던 이름이고.

2.10.4. 단도(短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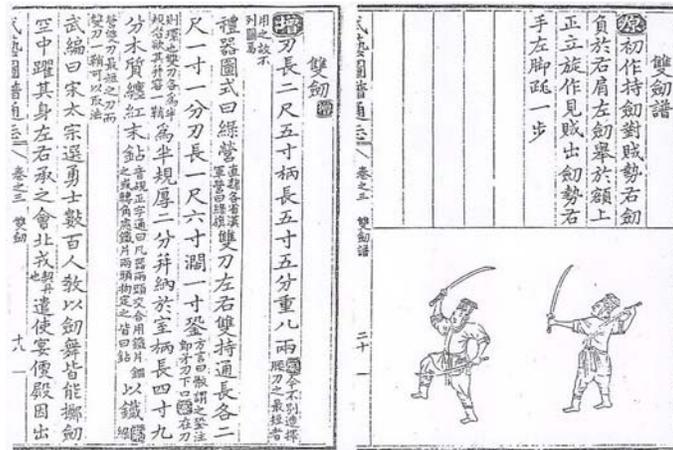
‘단도(短刀)’는 허리춤에 꽂거나 품에 넣어 소지하기 용이한 짧은 칼을 말한다.

- ⇒ {단도는} 허리춤에 꽂거나 품에 넣어 소지하기 용이한 짧은 칼을 의미하는 겁니다.

2.10.5. 쌍검(雙劍)

‘쌍검(雙劍)’은 양손에 각각 잡고 사용하는 한 쌍의 짧은 칼을 말한다.

- ⇒ {쌍검은} 칼이 약간 작아서 환도가 약간 작거나 직도가 약간 작아서 그런데 그걸 두 자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쌍검이라고}.



[사진 22] <武藝圖譜通志>‘雙劍’條

2.10.6. 장병기

‘장병기’는 양손을 사용해서 쓰는 무기를 이르는 말이다.

- ⇒ {장병기는} 양손을 사용해서 쓰는 무기가 장병기라고 하고요.

2.10.7. 단병기

‘단병기’는 한 손을 써서 사용하는 무기를 이르는 말이다.

- ⇒ {단병기는} 한 손을 써서 사용하는 무기가 이제 단병기라고 합니다.

도검의 종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종류
환도류(環刀類)	환도(環刀), 예도(銳刀), 요도(腰刀), 대환도(大環刀), 중환도(中環刀), 소환도(小環刀), 패도(佩刀), 패검(佩劍)
어도(御刀)	어도(御刀), 어검(御劍)

구분	종류
의도류(儀刀類)	의도(儀刀), 운검(雲劍), 별운도(別雲刀), 보검(寶劍)
참사검류(斬邪劍類)	참사검(斬邪劍), 칠성검(七星劍), 칠성도(七星刀), 사인검(四寅劍), 사인참사검(四寅斬邪劍), 사인도(四寅刀), 사인참사도(四寅斬邪刀), 삼인검(三寅劍), 사진검, 삼진검, 사진도
장도류(長刀類)	쌍수도(雙手刀), 장도(長刀), 장검(長劍), 왜검(倭劍), 왜도(倭刀), 해수도
장도류(粧刀類)	장도(粧刀), 금장도(金粧刀), 은장도(銀粧刀), 옥장도(玉粧刀), 목장도(木粧刀), 대모장도(玳瑁粧刀), 화각장도(華角粧刀), 상아장도(象牙粧刀), 을자장도(乙字粧刀), 을자도(乙字刀), 첨사도, 손칼, 주머니칼, 자도(子刀)
지팡이검류	지팡이검(杖劍), 지팡이도(杖刀), 창포검(菖蒲劍), 죽장도(竹杖刀), 횃대검
참형도류(斬刑刀類)	참도(斬刀), 형도(刑刀), 참수도(斬首刀), 참형도(斬刑刀), 망나니칼
협도(挾刀), 월도(月刀) 및 언월도류(偃月刀類)	협도(挾刀), 월도(月刀), 언월도(偃月刀),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기타	대도(大刀), 중도(中刀), 소도(小刀), 단도(短刀), 쌍검(雙劍), 장병기, 단병기

3. 칼의 부분 명칭

3.1. 칼자루

3.1.1. 칼자루

‘칼자루’는 ‘칼’과 ‘자루’의 합성어로 ‘손으로 칼을 잡는 부분’을 가리킨다. ‘칼자루’는 15세기 문헌에 ‘갈즈르’로 나타난다. ‘칼자루’가 ‘칼’과 ‘자루’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칼자루’는 ‘칼’과 ‘자루’의 음운 변화 과정을 반영하여 나타난다. ‘갈즈르’는 ‘칼’의 옛 형태 ‘갈’과 ‘자루’의 옛 형태 ‘즈르’가 결합한 형태이다. 16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갈줄ㅇ’은 ‘즈르’가 모음 앞에서 곡용할 때 ‘줄ㅇ’으로 나타나는데, 이 형태와 ‘갈’과의 결합형이다. 17세기 문헌에 ‘갈’이 유기음화된 ‘갈’과 ‘즈르’의 합성어 ‘갈즈르’가 처음으로 보인다. 그리고 19세기 문헌에 ‘갈즈로’가 나타나며, 20세기에 ‘칼자루’가 되어 현대국어에 이른다.

⇒ {칼자루} 하면 어, 외장을 다 하면 이게 {칼자루가} 될 수도 있으니까 도신 자체의 {칼자루}.



[사진 23] 칼자루



[사진 24] 칼자루

3.1.2. 도병(刀柄)

‘도병(刀柄)’은 칼자루를 구분하여 외날 칼의 칼자루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 ⇒ 외날 칼의 칼자루가 {도병이고}, 양날 검의 칼자루가 검병이고. 그래서 요 부분은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3.1.3. 검병(劍柄)

‘검병(劍柄)’은 칼자루를 구분하여 양날 검의 칼자루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 ⇒ 외날 칼의 칼자루가 도병이고, 양날 검의 칼자루가 {검병이고}. 그래서 요부분은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3.1.4. 뒷매기

‘뒷매기’는 칼자루의 끝에 덧댄 철물이다. 이석재 제보자는 ‘매기’라는 명칭은 원래 장도(粧刀) 용어인데 장도(長刀) 용어로 차용한 것이라 하였다. 한편 18세기 문헌인 <漢淸文鑑>에는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막이’의 형태로 나온다(刀把頂束 칼즈르 옷막이<漢淸文鑑, 5:20b>, 刀把束 칼즈르 아리막이<漢淸文鑑, 5:20b>). <漢淸文鑑>의 ‘윗막이’, ‘아리막이’ 다음에 ‘환도썸’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단어가 반드시 장도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환도와 같은 긴 칼에도 사용된 용어로 추정된다.

- ⇒ {뒷매기} 하신 다음에 이거는 장도에 용어, 금장도 은장도 같은 장도 용어로 보시는 게 좋고 그 걸 표기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뒷매기는 원래 장도(粧刀) 용어인데 장도(長刀) 용어로 차용한 것이다.



[사진 25] 뒷매기

3.1.5. 칼자루마구리

‘칼자루마구리’는 ‘뒷매기’와 같은 말이다. ‘마구리’라는 용어는 <漢淸文鑑>에 “칼집숫마구리<漢淸文鑑, 5:20b>”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다.

⇒ 여긴 {칼자루마구리}, 자루마구리하고 해야 맞을 것 같구요.

3.1.6. 앞매기

‘앞매기’는 칼자루와 코등이가 만나는 부분에 철물을 둘러서 칼자루를 보강하고 습베가 칼자루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해주는 부분을 가리킨다.

⇒ {앞매기는} 매기라는 말 요거 때문에 장도 용어로 쓰시면 되고.

3.1.7. 자루매기

= 앞매기

⇒ 칼날매기, {자루매기}, 마구리 그렇게 해야 되야 할 것 같아요.



[사진 26] 앞매기(자루매기)

3.1.8. 철준(鐵鎗)

‘철준(鐵鎗)’은 언월도의 자루 아래에 다는 것을 말한다.

⇒ {철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다른 말이 미철이 있습니다.

3.1.9. 미철(尾鐵)

= 철준

⇒ 철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다른 말이 {미철이} 있습니다.

3.2. 코등이

3.2.1. 코등이

‘코등이’는 칼자루와 칼날 사이에 끼워서 손을 보호하도록 만든 원형의 철물이다. ‘코등이’라는 말은 칼에서 툇 튀어나온 부분 즉, 칼의 콧등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한자로는 ‘고동(古銅)’이라고 하는데 이는 ‘코등’을 음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등이’는 한자로는 ‘격(格)’, 일본말로 ‘つば(쓰바, 鐔)’, 영어로 ‘가드(guard)’라고 한다. 코등이의 원래 목적은 손에 대한 적의 가격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칼로 찔렀을 때 공격자의 손이 앞으로 밀려나가 자기 칼에 자기 손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상대의 가격으로부터 손을 방어하는 기능은 좀 더 후대로 와서 강조된 것이다. ‘코등이’를 조선시대에는 ‘양마’(刀隔手 환도양마《譯語類解補, 16a》, 刀護手 양마쇠《漢清文鑑, 5:20a》)라고도 했다.

⇒ {코등이는} 자기 손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인데, 칼방패.



[사진 27] 코등이

3.2.2. 고동

‘고동’은 칼자루와 칼날 사이에 끼워서 손을 보호하도록 하는 원형의 철물이다. ‘고동’은 코등이를 음차(音借)한 것이다.

- ⇒ 옛날 분들은 {고동}, {고동} 그러는 분들이 많고, 코등이는 요새 한글을 쓰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많이 가는 분들 많고.

3.2.3. 궤혈

‘궤혈’은 도검의 코등이에 뚫어놓은 작은 구멍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전통 도검에는 ‘궤혈’이 없었으나 일본도의 영향의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궤혈이 일월 또는 음양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다.

- ⇒ 이 {궤혈만} 쓰시면 됩니다. 하나로 그냥 합쳐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도검의 코등이 양 좌우에 작은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거에서 없으니까 코등이에 뚫어놓은 구멍 정도 하시면 되구요.



[사진 28] 궤혈

3.2.4. 비녀장구멍

전통적인 조선 환도의 코등이의 칼등 쪽에 있는 비녀장을 채우기 위한 작은 구멍이다.

- ⇒ 코등이에는 {비녀장구멍}은 있고요.

3.2.5. 절우(切羽)

‘절우’는 코등이의 앞뒤에 덧붙이는 구멍 뚫린 작은 원판을 가리키는 말이다. 코등이 앞

뒤로 각각 1~2개가 들어가며, 코등이가 칼날 및 칼자루와 단단히 결합되도록 해준다. ‘절우’의 다른 말로 ‘덧쇠’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보자(이석재)는 ‘덧쇠’는 현대에 임의로 만든 말이므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절우(切羽)’나 ‘박환(薄環)’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 덧쇠란 말 대신에 먼저 쓰셔야 될 바엔 {절우} {절우} 꼭 먼저 쓰셔야 되고



[사진 29] 절우(박환)

3.2.6. 대절우

코등이 앞뒤에 절우를 두 개씩 끼우는데 그중 큰 것을 말한다.

⇒ 절우는 구분하자면 이제 {대절우} 소절우 이런 식으로 이제 크고 작기 또한 나눌 수가 있구요.

3.2.7. 소절우

코등이 앞뒤에 절우를 두 개씩 끼우는데 그중 작은 것을 말한다.

⇒ 절우는 구분하자면 이제 대절우 {소절우} 이런 식으로 이제 크고 작기 또한 나눌 수가 있구요.

3.2.8. 박환(薄環)

‘박환’은 코등이의 앞뒤에 덧붙이는 구멍 뚫린 작은 원판을 말한다. 다른 말로 ‘절우’라고도 한다. 코등이 앞뒤로 각각 1~2개가 들어가며, 코등이가 칼날 및 칼자루와 단단히 결합되도록 해준다.

⇒ 그러니까 절우를 {박환이라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3.3. 호인

3.3.1. 환도막이

‘환도막이’는 칼날의 뿌리 부분을 구리로 감싸 놓은 것으로서, 한자로는 호인(護刃), 동호(銅護) 또는 동호인(銅護刃)이라고 부른다. 장도(粧刀)에서는 이 부분을 ‘주석막이’라고 부른다. <武藝圖譜通志> 장도편에 ‘동호인(銅護刃)’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는 명사가 아니라 “구리로 날을 싣다(用銅護刃)”라는 문장 표현이다. 광해군 때에 나온 <武藝諸譜翻譯續集>(1610)에 “동호(銅護)는 환도마기”라고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예전부터 우리말로 ‘환도막이’라 한 것을 알 수 있다. 18세기 문헌인 <漢淸文鑑>에는 “刀呑口 늘 밋히 님힌 쇠<漢淸文鑑, 5:20a>”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 30] 환도막이

⇒ 코등이를 {환도막이} 앞에 끼는 둥근쇠를 뭐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은 뭐 있는 말인거 같아요.

3.3.2. 호인(護刃)

‘호인(護刃)’은 칼날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날 스페 위에 날을 휩싸서 댄 덧쇠를 가리킨다. 흔히 구리로 만들며, 칼이 자루에 꽂힐 때 날을 보호한다.

⇒ {호인도} 꼭 동으로만 만든 게 아니에요.

3.3.3. 동호인(銅護刃)

‘동호인’은 동으로 만든 호인을 말한다. 호인은 대체로 구리로 만들기 때문에 ‘동호인’이 ‘호인’을 대신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 호인은 대체로 구리로 만든다. 호인은 {동호인이} 있고 적동호인이 있고 백동호인이 있고. 그러니까 동은 동인데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철호인도 있습니다.

3.3.4. 적동호인(赤銅護刃)

‘적동호인’은 적동으로 만든 호인을 말한다.

⇒ 호인은 동호인이 있고 {적동호인이} 있고 백동호인이 있고. 그러니까 동은 동인데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철호인도 있습니다.

3.3.5. 백동호인(白銅護刃)

‘백동호인’은 백동으로 만든 호인을 말한다.

⇒ 호인은 동호인이 있고 적동호인이 있고 {백동호인이} 있고. 그러니까 동은 동인데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철호인도 있습니다.

3.3.6. 철호인(鐵護刃)

‘철호인’은 철로 만든 호인을 말한다.

⇒ 호인은 동호인이 있고 적동호인이 있고 백동호인이 있고. 그러니까 동은 동인데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철호인도} 있습니다.

3.3.7. 칼날매기

‘칼날매기’는 칼날의 뿌리 부분을 구리로 감싸서 보호한 것으로 ‘호인(護刃)’과 같은 말이다.

⇒ {칼날매기}, 자루매기, 마구리 그렇게 해야 되어 할 것 같아요.

3.4. 스페

3.4.1. 스페

칼날 중 칼자루 안으로 삽입되어 고정되는 부분이다. 스페에는 칼날과 칼자루를 결합하기 위한 ‘스페구멍’과 유소를 달 수 있게 뚫어 놓은 ‘유소구멍’이 있다. 스페에 따라 이

둘이 다 있는 것도 있고, 이 중 하나만 있는 것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수메’라고 했다(信子 칼수메 一云 매스중쇠<<譯語類解補, 16b>>, 釘刀根鐵 칼수메에 빈혀스쇠 <<漢清文鑑, 5:20b>>).

⇒ {슴베를} 칼뿌리라고 하면 되겠네.



[사진 31] 슴베

3.4.2. 칼뿌리

‘칼뿌리’는 ‘슴베’와 같은 말이다. 슴베가 칼날 중에서 칼자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이다. 전통적인 용어는 아니고 제보자(이은철)가 사용하는 용어로 보인다.

⇒ 슴베를 {칼뿌리라고} 하면 되겠네.

3.4.3. 슴베구멍

‘슴베구멍’은 칼날을 칼자루와 결합시키기 위해 슴베와 칼자루에 뚫어놓은 구멍을 말한다.

⇒ {슴베구멍이} 이제 못구멍이지 뭐 간단히 얘기해서.

3.4.4. 목정혈

‘목정혈’은 칼이나 호미, 팽이 따위의 자루 속에 들어박힌 슴베 부분에 낸 구멍을 말한다.

⇒ 슴베구멍을 {목정혈이라고도} 하고, 유소구멍은 유소혈이라고도 하죠.

3.4.5. 유소혈

‘유소혈’은 습베에 유소를 달아놓을 수 있게 뚫어 놓은 구멍이다. 이 구멍에 유소를 달아놓아 습베와 칼자루를 결합하며 또한 장식을 하기도 한다.

⇒ 습베구멍을 목정혈이라고도 하고, 유소 구멍은 {유소혈이라고도} 하죠.

3.4.6. 목정(目丁)

‘목정(目丁)’은 칼자루와 칼날을 고정하기 위하여 습베 구멍에 끼우는 나무못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나무못’의 의미로 ‘목정(木釘)’이 올라 있다.

⇒ 칼자루와 칼날 고정에 쓰는 대나무못 이것도 {목정이라고} 쓰시는 게 제일 낫거든요.

3.5. 칼날

3.5.1. 칼날

‘칼날’은 물체를 베는 칼의 날 부분이다. ‘칼날’의 이른 시기 어형은 15세기에 나타나는 ‘값늬’이다. ‘값늬’은 ‘값’[刀]과 ‘늬’[刃]이 결합된 어형으로, 두 어형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한 것이다. ‘값’과 ‘늬’은 모두 ‘ㅎ’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던 체언으로서 ‘갈과, 갈히, 갈호로’ 등으로 곡용을 하던 어형이었다. 그러나 ‘값+ㅅ+늬’와 같은 구조에서 ‘값’의 말음 ‘ㅎ’이 탈락한 것이다. 16세기에는 ‘ㅅ’이 개재하지 않은 ‘갈늬’이 나타나기도 하고 ‘갈늬로’와 같이 ‘늬’의 ‘ㅎ’이 탈락한 어형도 나타난다. 또, ‘갈꺠’는 합성어 경계에서 ‘값’의 말음 ‘ㅎ’의 탈락에 이은 유음화 현상도 보여준다. 17세기 국어에는 어두음의 변화를 가져와 ‘칼늬’와 같은 어형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19세기에 들어서 제2음절 모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말음 ‘ㅎ’도 완전 소멸되어 ‘칼날’이 되었다. 이 ‘칼날’이 현대국어로 이어지는 것이다.

⇒ 도는 {칼날이} 한쪽에 있고, 칼등이 이렇게 있는 걸 도라고 그러고 칼등이 없고 {칼날이} 양쪽에 있는 것을 그렇죠, 양쪽에 있는 것을 검이라고 그러는데.

3.5.2. 도신(刀身)

‘도신(刀身)’은 칼의 몸을 이르는 말로, 칼날과 습베 부분을 합쳐서 부른다.

⇒ {도신이} 넓다 보니까 또 두께가 좀 얇아요.

3.5.3. 칼끝

‘칼끝’은 ‘칼’과 ‘끝’의 합성어로 칼날의 맨 끝을 가리키는 말이다. ‘칼’은 15세기에 ‘갈ㅎ’이었고, ‘끝’은 ‘글’이었다. 그러나 ‘칼끝’은 17세기에 ‘칼긱’으로 처음 보이고, 18세기에는 ‘긱’이 된소리로 된 ‘칼긱츠, 칼긱’이 나타난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나타나는 ‘칼긱츠’은 ‘끝’의 말음 ‘ㅌ’이 ‘ㅣ’ 모음 앞에서 구개음화를 경험하여 나타난 것이다. 또한 19세기와 20세기에 나타나는 ‘칼긱ㅎ’은 ‘끝’의 말음 ‘ㅌ’을 ‘ㅅ[디]’과 ‘ㅎ’의 합성으로 보아 재구조화한 표기이다. 20세기에 들어서서 현대국어 어형인 ‘칼끝’의 형태가 나타난다.

⇒ {칼끝} 서슬 쪽은 등에도 날이고.



[사진 32] 칼끝

3.5.4. 칼등

‘칼등’은 ‘칼’과 ‘등’의 합성어로 칼날의 반대편에 날이 없는 부분이다. ‘칼등’은 17세기 문헌에 현대국어와 같은 ‘칼등’으로 처음 나타난다. 18세기 문헌에 보이는 ‘칼ㅅ등’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들어가는 사이시옷을 표기에 반영한 형태이다.

⇒ 도는 칼날이 한쪽에 있고, {칼등이} 이렇게 있는 걸 도라고 그러고 {칼등이} 없고 칼날이 양쪽에 있는 것을 그렇쥌, 양쪽에 있는 것을 검이라고 그러는데.

3.5.5. 서슬

‘서슬’은 칼끝의 날카로운 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 앞예를 여기 날 서있는 것을 {서슬},

3.5.6. 혈조(血漕)

‘혈조(血漕)’는 칼의 무게를 줄이고 적의 피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칼날 표면에 파놓은 긴 홈이다.

⇒ 아 그건 {혈조라고} 그러는데 그건 다 한문이고.



[사진 33] 혈조(血漕), 골, 홈

3.5.7. 골

‘골’은 칼의 무게를 줄이고 적의 피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칼날 표면에 파놓은 긴 홈이다. 한자로는 ‘혈조(血漕)’라고 한다. 전통 환도에서는 자주 발견되지 않는다. <武藝諸譜> 언해본 ‘대곤제(大棍製)’에 혈조(血漕)를 ‘골’이라고 했으므로 골이라는 명칭이 혈조를 지칭하는 우리말로 적합할 것이다.⁵⁾ ‘골’은 발이나 눈을 갈아 곡식을 심을 수 있게 손질하여 놓은 두둑과 고랑을 통틀어 이르는 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거 뭐 {골도} 맞지. {골이} 맞죠. 홈이나 {골이나}.

3.5.8. 홈

‘홈’은 칼날 표면에 오목하고 길게 팬 줄을 말한다. ‘혈조’ 또는 ‘골’과 같은 말이다.

⇒ 그거 뭐 골도 맞지. 골이 맞죠. {홈이나} 골이나.

5) 長七尺 重三斤八兩 刃長二寸 有中鋒 一面起脊 一面有血漕 磨精 重四兩
기리 칠곱 자허오 므기 서斤근 여덟 兩양이오 늘 기리 두 치니 가온덴 늘 이시니 홈 녀키는 므르셔게 호고 홈
녀키는 골지게 호여 7라 精정케 홀디니 므기 녀兩양이라<武藝諸譜, 1a>

3.5.9. 삼각도(三角刀)

‘삼각도(三角刀)’는 칼날의 단면 구조가 직삼각형인 칼을 말한다.

⇒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이런 구조가 초기 {삼각도고요}.

3.5.10. 육각도(六角刀)

‘육각도(六角刀)’는 칼날의 양 측면이 심지가 두드러져 칼날의 단면이 육각형의 모양을 띠는 칼을 말한다.

⇒ {육각도} 이거는 이제 앞뒤 문장을 바꾸셔서 칼날의 양측면에 양측면으로 심지가 심지가 도드라져 칼날의 단면이 육각형의 인 모양을 띠는 칼 이정도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5.11. 오각도(五角刀)

‘오각도(五角刀)’란 칼등 부분에 양각을 세우지 않고 수평으로 되어 있는 칼을 말한다.

⇒ {오각도는} 말씀드린 대로 이걸 평으로 친거죠.

3.5.12. 의사도(擬似刀)

‘의사도(擬似刀)’는 기본적으로는 도의 형식을 가지나, 칼끝 1/3지점부터 양날검의 형식을 띠고 있는 칼을 말한다.

⇒ {의사도는} 기본적으로는 도의 형식을 가지나, 칼끝 1/3지점부터 양날검의 형식으로 양날검이 형태를 띠는 거.

3.6. 칼집

3.6.1. 칼집

‘칼집’은 칼날을 넣는 집을 말한다. 목재로 외형을 만든 다음 외부에 한지, 어피, 옷칠 등으로 마감한다. ‘칼집’은 18세기 문헌부터 현재와 같은 ‘칼집’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전 시기에는 ‘칼가풀’ 또는 ‘칼가풀’로 쓰였다(鞞 칼가풀 屮<新增類合,上:31b>, 刀鞞 칼가풀 <譯語類解, 下:17a>). 또한 ‘칼’을 제외한 ‘가풀’만으로 칼집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가풀 屮鞞<類合, 19a>).

⇒ {칼집을} 대패질을 해서 만들고

3.6.2. 도초(刀鞘)

‘도초(刀鞘)’는 칼날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의 몸을 꽂아 넣어 두도록 만든 물건이다. ‘도’의 칼집을 따로 구분하여 이르는 말이다.

- ⇒ 칼집은 그런데 칼집하고 쓰시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아까 같이 {도초나} 검초 쓰시는 게 나은지 고거는 한번 보시는 게 낫겠네요.

3.6.3. 검초(劍鞘)

‘검초(劍鞘)’는 칼날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의 몸을 꽂아 넣어 두도록 만든 물건이다. ‘검’의 칼집을 따로 구분하여 이르는 말이다.

- ⇒ 칼집은 그런데 칼집하고 쓰시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아까 같이 도초나 {검초} 쓰시는 게 나은지 고거는 한번 보시는 게 낫겠네요.

3.6.4. 칼집입

‘칼집입’은 칼을 넣는 칼집의 입구 부분 및 입구를 보강하는 철제 띠고리를 말한다.

- ⇒ {칼집입}, 이런 건 입이지. 입은 입이다.

3.6.5. 칼집마구리

‘칼집마구리’는 칼집의 아랫부분을 보강해주는 철제 보호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18세기 문헌인 <漢淸文鑑>에는 ‘칼집숫마구리<漢淸文鑑, 5:20b>’로 나온다.

- ⇒ 칼집매기, {칼집마구리} 이래야 확실할 것 같아요.



[사진 34] 칼집마구리

3.6.6. 가락지

‘가락지’는 칼집을 강화하기 위해 칼집 위에 두른 금속 띠를 가리키는 말이다. 18세기 문헌인 <漢淸文鑑>에는 ‘칼집 가운데 가락지<漢淸文鑑, 5:20b>’로 나온다.

⇒ 이쪽이 자루, 자루매기. 요게 칼날매기, 이게 {가락지}, 이거 코등이

3.6.7. 칼집고리

‘칼집고리’는 칼을 허리에 차기 위하여 칼집의 가락지에 부착한 작은 고리를 말한다. ‘칼집고리’는 가락지 자체에 구멍을 뚫어 만든 것도 있고 이와는 별도로 고리를 만들어서 단 것도 있다.

⇒ 요기 가락지에 붙은 게 {칼집고리고}.

3.6.8. 띠돈

‘띠돈’은 칼집을 허리띠에 매는 데 사용하는 금속 고리를 말한다. 두 개의 칼집고리에 묶인 끈을 하나로 묶어 허리띠에 직접 거는 고리 부분이다. 한자로는 ‘帶金’이라고 한다. ‘띠돈’은 칼뿐만 아니라 노리개 등을 허리띠에 매다는데 사용하는 금속 고리를 모두 이르는 말이다.

⇒ 대부분 {띠돈이} 있다고 봐야지.



[사진 35] 가락지 / 칼집고리



[사진 36] 띠돈

3.6.9. 끈목

‘끈목’은 칼집고리와 띠돈을 연결하는 끈이다. 실을 합사해 여러 가닥으로 쳐서 짜는

끈을 끈목이라고 하며 조선 시대에는 “다회”라고도 하였다. 18세기 문헌이 <漢淸文鑑>에는 “腰刀繫子 환도핀<漢淸文鑑, 5:21a>”으로 나온다.

⇒ {끈목을} 칼집고리와 띠돈을 연결하는 끈으로 말한다면 광다회하고 똑같은 애긴거쥬.

도검의 부분 명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종류
칼자루	칼자루, 도병(刀柄), 검병(劍柄), 뒷매기, 칼자루마구리, 앞매기, 자루매기, 철준(鐵樽), 미철(尾鐵)
코등이	코등이, 고등, 궤혈, 비녀장구멍, 절우(切羽), 대절우, 소절우, 박환(薄環)
호인	환도막이, 호인(護刃), 동호인(銅護刃), 적동호인(赤銅護刃), 백동호인(白銅護刃), 철호인(鐵護刃), 칼날매기
슴베	슴베, 칼뿌리, 슴베구멍, 목정혈, 유소혈, 목정(目丁)
칼날	칼날, 도신, 칼끝, 칼등, 서슬, 혈조(血槽), 골, 흠, 삼각도(三角刀), 육각도(六角刀), 오각도(五角刀), 의사도(擬似刀)
칼집	칼집, 도초(刀鞘), 검초(劍鞘), 칼집입, 칼집마구리, 가락지, 칼집고리, 띠돈, 끈목

4. 재료

4.1. 철광석

4.1.1. 철광석

‘철광석’은 철을 함유하고 있어서 제철의 원료로 쓰이는 광석을 말한다. 자철석, 적철석, 갈철석 따위가 있다.

⇒ {철광석에서부터} 철을 생산하는 로를 제철로라고 그러고.



[사진 37] 철광석

4.1.2. 자철광

‘자철광’은 산화철로 이루어진 산화 광물이다. 등축 정계에 속하며 결정 그대로 또는 덩어리 모양, 알갱이 모양, 층 모양을 이루어 난다. 검은색을 띠며 금속광택이 있고 광물 가운데 자성(磁性)이 가장 강하다. 중요한 제철 원료로 쓴다.

- ⇒ 우리는 철광석 가루 {자철광을} 일단 저기다 들절구나 저기 저 쇠절구에 넣구 빠가지구 그걸 다시 체로 쳐서 거친거 빼버리고.

4.1.3. 사철(沙鐵)

‘사철(沙鐵)’은 모래 모양으로 강이나 바다 밑에 퇴적된 철광석을 말한다. 제철(製鐵) 원료로 쓴다.

- ⇒ 요건 사철이고. 모래철. 철광석. 모래산 철광석. 이거 엄청나게 귀한 건데. 세종실록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철산지가 약 한 20여 군데가 넘는다. 예 그렇게 있는데, 지금 현대에 이거 찾기 아주 힘들어요.



[사진 38] 사철

4.1.4. 쇧돌

‘쇧돌’은 쇧붙이의 성분이 들어 있는 돌을 이르는 말이다.

- ⇒ {쇧돌} 여기서 보면 요게 예 {쇧돌이고}, 곡괭이로 이제 바닥을 파가지고 채광을 하는 건데 이 채광을 이제 쇧돌 광석을 철광석 쇧돌이죠.

4.2. 철

4.2.1. 무쇠

‘무쇠’란 쇠를 물처럼 녹여내는 선철(銑鐵)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생철(生鐵)’ 또는 ‘수철(水鐵)’이라고 한다. 무쇠는 철광석을 무질부리가마에서 1,400도 이상으로 10시간 이상 가열하여 얻는다. 무쇠는 탄소량 2% 이상의 주철이므로 단조 가공은 불가능하고, 주물 작업을 통해 가마솥이나 농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무쇠’는 ‘물[水]’과 ‘쇠[鐵]’의 합성어일 가능성이 크다. 두 단어가 합성어를 형성할 때 ‘ㅅ’ 앞에서 ‘ㄹ’이 탈락하였다. ‘물’은 근대국어 시기에 원순모음화를 경험하여 ‘물’로 변화한다. 이런 음운 변화의 결과로 ‘무쇠’가 된 것이다. 문헌상에 ‘므쇠’가 보이지 않고 ‘무쇠’만 보이는 것은 이미 ‘물>물’의 변화가 끝난 다음에 ‘쇠’와 결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쇠’에서 ‘물’은 자기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뭍은, 약한’이라는 의미의 접두사로 쓰였다. ‘무쇠’가 비록 단단하기는 하나 아직 연마가 덜 된 쇠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대어의 ‘무서리’와 같은 성격으로 붙여진 접두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 별도로 또 따로 그 선철과 같은 탄소함량을 맞춰 논 별도로 제조한 쇠를 갈다가 {무쇠라고} 그러는데 {무쇠는} 일단은 주조용이라고 봐야 돼요.

4.2.2. 생철(生鐵)

‘생철(生鐵)’은 무쇠의 한자어이다.

- ⇒ {생철은}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사람들한테 확인 안한 것이지만은 {생철은} 제철로 해서 곧바로 나온 예 흘러나온 확보된 제조된 확보된 쇠

4.2.3. 수철(水鐵)

‘수철(水鐵)’은 무쇠의 한자어이다.

- ⇒ {수철}도 생철과 마찬가지로 무쇠의 한자어.

4.2.4. 선철

‘선철’은 3.0~3.6%의 탄소를 함유하는 철의 합금(合金)이다. 탄소 외에 규소·망간·인·황 등을 포함하며, 용광로의 쇳돌에서 얻는다. 잘 부스러지기 때문에 압연하거나 단련할 수 없다. 주물용 원료로 쓴다.

⇒ 선철은 제철 시 곧바로 쇳물이 나오는 것을 {선철이라고} 그러고

4.2.5. 시우쇠

‘시우쇠’는 탄소량이 낮아 단조가 가능한 철이다. 철광석을 쇳부리가마에서 장시간 가열하면 묵철 덩어리가 생긴다. 이 묵철 덩어리를 두드려서 단련하면 시우쇠가 된다. 시우쇠는 강철과 연철이 혼재되어 있는 단단하면서도 단조가 가능하다. 대장간에서 단조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철 연장은 시우쇠로 만든다.

‘시우쇠’는 16세기에 ‘시우쇠’(訓蒙字會 中:31)로 나온다. ‘시우쇠’의 ‘쇠’가 ‘鐵’의 뜻인 것은 분명하나 ‘시우’의 정체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시우+쇠’로 분석하여 ‘시우’를 명사로 간주하고 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만약 <東言考略>의 “黑鐵曰시오”에 보이는 ‘시오’가 ‘시우’와 같은 것이라면 ‘시우’는 그 자체가 철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

⇒ {시우쇠는} 어 강종이 좀 다양하게 구성된 아주 특수강이 아닌 아주 정선된 강철이 아닌 일반 쇳을 {시우쇠라고} 하고

4.2.6. 숙철(熟鐵)

‘숙철(熟鐵)’은 탄소량이 낮아 단조가 가능한 철로 시우쇠의 다른 이름이다.

⇒ 쇳 종류는 {숙철이니} 묵철이니 이런 것들이 있고.

4.2.7. 순철

‘순철’은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아니한 철을 말한다. 전자기, 진공관, 합금 따위의 재료, 내식판, 촉매 따위로 쓴다.

⇒ 떡쇠가 무슨 무조건 {순철이라고} 그렇게 엄밀하게 얘기 할 수 없어요.

4.2.8. 참쇠

‘참쇠’는 시우쇠를 정련한 것으로 정철(精鐵)이라 부른다.

⇒ {참쇠는} 그거는 이제 시우쇠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지만은 정선이 잘된 쇳이라고 그래야지.

4.2.9. 정철(精鐵)

‘정철(精鐵)’은 잘 불려서 단련한 좋은 쇠붙이를 말한다. =참쇠

⇒ 참쇠는 이제 {정철이지}. 참쇠는 이제 정련되었으니까.

4.2.10. 뽕쇠

‘뽕쇠’는 고탄소 공구강의 일종으로 공구를 제작하거나 칼날의 끝부분을 제작하는 데 사용한다. 칼날을 만들 때 뽕쇠만으로 만들면 지나치게 강하여 부러지기 쉬우므로 시우쇠에 뽕쇠를 붙여서 만든다. 이와 같이 시우쇠에 뽕쇠로 날을 붙이는 것을 ‘날배기’라고 한다.

⇒ {뽕쇠는} 완전 특수강이고 초고탄강이기 때문에 탄소공구강이라고 그러고, 강쇠는 그냥 강철을, 강철을 얘기하는 건데 강철하고 {뽕쇠하고는} 또 틀리죠.



[사진 39] 뽕쇠

4.2.11. 백련강(百鍊鋼)

‘백련강(百鍊鋼)’을 직역하면 백 번 두드린 강철이란 뜻인데, 백 번을 두드려야 되는 쇠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두드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숙철을 수없이 두드리면 그 속에 들어 있던 큰 덩어리의 불순물이 빠져나오고, 결정 입도(結晶粒度)도 작아져 강도가 높아지고, 더 질기게 된다.

⇒ 제조에서 철제조 용어에서 빠진 것이 {백련강이} 있는데, {백련강은} 백번 두드렸다 이거 아니고 그만큼 고급 강을 얘기는 것이에요. 현대로 치자면 고급강철.



[사진 40] 백련강



[사진 41] 백련강

4.2.12. 강철(鋼鐵)

‘강철(鋼鐵)’은 탄소의 함유량이 0.035~1.7%인 철이다. 열처리에 따라 성질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 여러 가지 기계, 기구의 재료로 쓴다.

⇒ 강쇠는 그냥 {강철을}, {강철을} 얘기하는 건데 {강철하고} 뽕쇠하고는 또 틀리죠.

4.2.13. 강쇠

‘강쇠’는 강철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 {강쇠는} 그냥 강철을, 강철을 얘기하는 건데 강철하고 뽕쇠하고는 또 틀리죠.

4.2.14. 연철(軟鐵)

‘연철(軟鐵)’은 탄소 함유량 0.01% 이하의 무른 철을 말한다. 무르고 전성(展性)과 연성(延性)이 크며, 자기(磁氣)를 띠기도 쉬우나 잃기도 쉽다. 전자기 재료로 쓴다.

⇒ {연철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떡철이라고 해서

4.2.15. 떡쇠

‘떡쇠’는 아주 무른 쇠란 뜻으로, ‘탄소강’을 이르는 말이다.

⇒ 그래서 탄소가 다 날라가 버리면 순철이 돼요. 순철에 가까운 저탄소강이 된다. 그럼 {떡쇠가} 돼 있는겨.

4.2.16. 떡철

‘떡철’은 아주 무른 쇠란 뜻으로, ‘떡쇠’와 같은 말이다.

⇒ {떡철} 그거 이제 무르구 무르다 일단 무르다 강하지 않고 무르다.

4.2.17. 해면철(海綿鐵)

‘해면철’은 철광석과 목탄을 섞어 높은 온도로 가열한 다음, 환원하여 얻은 철을 말한다. 모양이 불규칙하고 다공질이며, 단련하면 연철(鍊鐵)이 되므로 고급 강철의 원료로 쓴다. ≙ 스펀지철.

⇒ {해면철은} 해면은 바다에 사는 그 수세미 같은 그런 그 저 이 뭐야 식물, 왜 우리 시골에 수세미 있었잖아요. 옛날에 수세미 까면은 수세미잖아요. 그거와 비슷해요.

4.2.18. 주물(鑄物)

‘주물(鑄物)’은 쇠붙이를 녹여 거푸집에 부은 다음, 굳혀서 만든 물건을 말한다.

⇒ 이렇게 그 {주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4.2.19. 쇠똥

‘쇠똥’은 쇠를 불에 달구어 불릴 때에 달아 오른 쇠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말한다. ≙ 단조철편·슬래그·설철(屑鐵)·쇠찌끼·철설(鐵屑)·철소(鐵梢).

⇒ {쇠똥은} 제철 슬래그를 {쇠똥이라고} 그래요.



[사진 42] 쇠똥



[사진 43] 쇠똥

4.2.20. 단조철편

= 쇠똥

⇒ 그거는 이제 쇠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쇠똥하면 이게 또 그냥 대장간에서 쇠똥하고 그걸 갖다가 학자들은 {단조철편이라고} 구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단조철편}.

4.2.21. 묵철

‘묵철’은 철광석을 제련로에서 장시간 가열한 후 바닥에 생긴 덩어리를 말한다.

⇒ {묵철은} 괴련강을 이야기하는 거고 용광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거. 저 조업이 끝난 후에 용광로 바닥에 가라앉은 것을 이제 {묵철이라} 하고.

4.2.22. 괴련강(塊鍊鋼)

‘괴련강(塊鍊鋼)’은 뜨겁게 달군 철광석을 식혀서 산소를 뺀 다음 광석 안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두드려서 없앤 쇠뭉치를 불에 달군 다음 두드리고 늘여 더 튼튼하게 만든 강철을 말한다.

⇒ 묵철은 {괴련강을} 이야기하는 거고 용광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거. 저 조업이 끝난 후에 용광로 바닥에 가라앉은 것을 이제 묵철 또는 {괴련강}.



[사진 44] 괴련강/묵철



[사진 45] 괴련강/묵철

4.2.23. 잡쇠

‘잡쇠’는 철광석을 제련로에서 장시간 가열한 후 바닥에 생긴 덩어리를 말한다.

⇒ {잡쇠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목철은 괴련강을 얘기하는 거고 {잡쇠하면} 조성을 얘기한다.

4.2.24. 판장쇠

‘판장쇠’는 용광로에서 철광석, 사철 등을 녹여 뽑아내어 굳힌 쇳덩어리를 말한다.

⇒ 쇠를 만들고 제철을 하고 그걸 이제 수습을 해서 수습이라는 것은 이제 꺼내서 목철 같으면 꺼내고 생철 같으면 {판장쇠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강엿쇳독에 넣어서 제강을 해야죠.

4.2.25. 저탄소강(低炭素鋼)

‘저탄소강(低炭素鋼)’은 탄소 함유량이 비교적 적은 강철을 말한다. 흔히 철(鐵)이라 이르며, 가단성과 인성(靱性)이 커서 가공하기에 알맞다. 리벳, 철골(鐵骨), 철근 따위로 많이 쓴다. ≡연강·연강철.

⇒ 고탄소강은 탄소 함량이 0.5이상을 고탄소강이라고 하고, 한 0.25에서 0.5까지를 중탄소강, 그 이하 0.25 밑에를 철까지 해서 {저탄소강}.

4.2.26. 중탄소강(中炭素鋼)

‘중탄소강(中炭素鋼)’은 탄소가 0.2~0.5% 들어 있는 강철을 말한다.

⇒ 고탄소강은 탄소 함량이 0.5이상을 고탄소강이라고 하고, 한 0.25에서 0.5까지를 {중탄소강}, 그 이하 0.25 밑에를 철까지 해서 저탄소강.

4.2.27. 고탄소강(高炭素鋼)

‘고탄소강(高炭素鋼)’은 탄소가 0.5% 이상 들어 있는 매우 굳은 강철을 말한다. ≡경강(硬鋼).

⇒ {고탄소강은} 탄소 함량이 0.5이상을 고탄소강이라고 하고, 한 0.25에서 0.5까지를 중탄소강, 그 이하 0.25 밑에를 철까지 해서 저탄소강.

4.2.28. 산화철(酸化鐵)

‘산화철(酸化鐵)’은 철의 산화물로 삼산화이철, 사산화삼철 따위가 있다.

- ⇒ {산화철은} 철이 먼저 금속이 메탈이 생겨가지고 그놈이 녹슨 걸 {산화철이라} 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녹슨 것을 산화된 것을 {산화철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4.2.29. 구조용강(構造用鋼)

‘구조용강(構造用鋼)’은 기계적인 강도를 고려하여 건축, 구조물, 조선 따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鋼材)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 {구조용강이라는} 것은 이제 건축용에 뭐 특수하게 들어간다던가 건축을 한다던가 일단 건물 구조물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건축물 집이 아니더라도 탑을 세운다던가 교량을 한다던가 옛날에 그 그런 구조재에 시우쇠가 들어가는데 시우쇠는 구성이 강철과 연철이 혼재돼 있다.

4.2.30. 쇳물

‘쇳물’은 쇠가 높은 열에 녹아서 액체 상태로 된 것을 말한다.

- ⇒ 선철은 제철 시 곧바로 {쇳물} 나오는 것을 선철이라고 그러고.

4.2.31. 주철(鑄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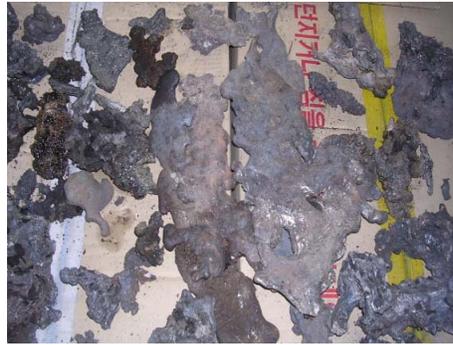
‘주철(鑄鐵)’은 1.7% 이상의 탄소를 함유하는 철의 합금(合金)이다. 단단하기는 하나 부러지기 쉽고 강철에 비하여 쉽게 녹이 쓴다. 주조(鑄造)하기가 쉬워 공업 재료로 널리 쓴다. ≍무쇠

- ⇒ {주철은} 그걸 포함해서 별도로 또 따로 그 선철과 같은 탄소함량을 맞춰 논 별도로 제조한 쇠를 갖다가 무쇠라고 그러는데 무쇠는 일단은 주조용이라고 봐야 돼요.

4.2.32. 백주철(白鑄鐵)

‘백주철(白鑄鐵)’은 녹은 상태에서 급히 식혀 만든 흰 주철을 가리키는 말이다. 탄소함유량은 약 3%이며 아주 굳고 단단하다.

- ⇒ 용해된 무쇠를 갖다가 부어가지고 하면은 급랭이 돼 이게 {백주철} 돼. {백주철}.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강해요.



[사진 46] 백주철

4.2.33. 탄소공구강(炭素工具鋼)

‘탄소공구강(炭素工具鋼)’은 구조강에 비하여 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공구를 만드는 데 쓰는 강철을 말한다. 압착 가공을 한 다음 열처리를 한 것으로 굳고 세며 열에 잘 견디는 특성이 있다.

⇒ 뿔쇠는 완전 특수강이고 초고탄강이기 때문에 {탄소공구강이라고} 그러고.

4.3. 칼집

4.3.1. 피나무

‘피나무’는 피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으로, 높이는 20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넓은 달걀 모양이다. 6월에 노란색을 띤 흰색 꽃이 취산(聚繖) 화서로 피고 열매는 공 모양의 견과(堅果)로 9~10월에 익는다. 재목은 가구재, 나무껍질은 섬유용, 어린 꽃봉오리는 말려서 차로 쓴다.

⇒ 주로 흔히 쓰이는게 이제 {피나무} 좀 많이 쓰고, 고 다음에 엄나무를 써요.

4.3.2. 엄나무

‘엄나무’는 두릅나뭇과의 낙엽 교목으로, 높이는 15~25미터이며, 잎은 어긋나고 5~9개로 갈라진다. 7~8월에 누런 녹색 꽃이 산형(繖形) 화서로 피고 열매는 둥근 핵과(核果)로 10월에 검게 익는다. 재목은 가구재, 나무껍질은 한약재로 쓴다.

⇒ 주로 흔히 쓰이는게 이제 피나무 좀 많이 쓰고, 고 다음에 {엄나무를} 써요.

4.3.3. 후박나무

‘후박나무’는 녹나뭇과의 상록 활엽 교목으로, 높이는 20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긴 타원형인데 두껍고 윤이 난다. 5~6월에 노란색을 띤 녹색 꽃이 가지 끝에 원추(圓錐) 화서로 피고 열매는 장과(漿果)로 다음 해 7월에 검은빛을 띤 자주색으로 익는다. 나무껍질은 염료와 약재로, 목재는 가구재와 선박재로 쓴다.

⇒ 고 다음 엄나무 말고 이제 일본사람들이 즐겨쓰는 {후박나무}. 우리나라도 후박이 있거든요. {후박나무가} 있는데 {후박나무가} 이제 그 좋지.

도검의 재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종류
철광석	철광석, 자철광, 사철, 쇳돌
철	무쇠, 생철(生鐵), 수철(水鐵), 선철, 시우쇠, 숙철(熟鐵), 순철, 참쇠, 정철(精鐵), 뽕쇠, 백련강(百鍊鋼), 강쇠, 강철(鋼鐵), 연철(軟鐵), 떡쇠, 떡철, 해면철(海綿鐵), 주물(鑄物), 쇳뎡, 단조철편, 목철, 잡쇠, 판장쇠, 저탄소강(低炭素鋼), 중탄소강(中炭素鋼), 고탄소강(高炭素鋼), 산화철(酸化鐵), 구조용강(構造用鋼), 쇳물, 주철, 백주철(白鑄鐵), 괴련강(塊鍊鋼), 탄소공구강(炭素工具鋼)
칼집	피나무, 엄나무, 후박나무

5. 제작 과정

5.1. 사람

5.1.1. 대장장이

‘대장장이’는 대장일을 하는 기술직 노동자를 이르는 말이다. 대장장이는 담금질로 쇠의 강도나 성질을 조절하고, 메질을 하여 물건의 형태를 만든다. 대장장이를 지칭하는 말로는 야장(冶匠)·야공(冶工)·야장공·야장장이·노야장·단야공·대장·대장공·철장(鐵匠) 등이 있다.

⇒ 야장을 {대장장이라고} 하고.

5.1.2. 야장(冶匠)

= ‘야장(冶匠)’은 대장일을 하는 대장장이를 이르는 한자어이다.

⇒ {야장하면} 물론 글자 그대로 불릴 야에 불린다 하면 쇠불릴 아니까 불릴 야에 장인 장 자. {야장을} 대장장이라고 하고.



[사진 47] 대장장이 / 야장(冶匠)



[사진 48] 대장장이 / 야장(冶匠)

5.2. 제철, 제강

5.2.1. 제철(製鐵)

‘제철(製鐵)’은 철광석을 제련하여 철을 뽑아내는 일을 말한다. 주로 선철(銑鐵)을 만들 때까지의 공정을 이른다.

⇒ {제철을} 해서 철을 생산하는 사람과 고걸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제강하는 일이 같이 연결 되었기 때문에 강엿숫둑이라는 것은 일종의 제강로라고 봐야 돼요.

5.2.2. 제강(製鋼)

‘제강(製鋼)’은 선철(銑鐵)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철(鋼鐵)을 만드는 과정으로, 옛날에는 철광석을 저온으로 환원하였으므로 직접 강철이 만들어졌으나, 오늘날 제철법에서는 먼저 선철을 만들고, 다음에 제강 공정으로 옮겨 여분의 탄소를 제거하여 강철을 만든다.

⇒ 제철 {제강의} 전반의 과정이나 일을 야철이라고 보통 하는데 야철도 역시 한문이기 때문에 야철 이전에 쇠부리라고 부른다.



[사진 49] 제철 작업



[사진 50] 제강 작업

5.2.3. 직접 제강

‘직접 제강’은 미리 환원한 쇳돌로 선철(銑鐵) 생산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강철을 생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품위가 높은 정광(精鑛)을 쓰며 코크스를 넣지 않는다.

⇒ 근데 옛날은 어때요. 녹질 않고 그냥 곧바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철이 되고 그냥 곧바로 어떤 조작 이차조작을 않고도 곧바로 강철이 되고 곧바로 철이 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막 나오는 거야 동시에. 우리 전통방식은, 제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직접제철 {직접제강이라고} 그래요.

5.2.4. 직접 제철

‘직접 제철’은 미리 환원한 쇳돌로 선철(銑鐵) 생산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강철을 생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직접제강’과 같은 말이다.

⇒ 우리 전통방식은, 제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직접제철} 직접제강이라고 그래요.

5.2.5. 간접 제강

‘간접 제강’은 용광로에서 바로 철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에서 선철을 생산하여 여기에 산소를 접촉시켜 철을 생산하는 방법이다. 옛날에는 철광석을 저온으로 환원하였으므로 직접 강이 만들어졌으나, 오늘날은 용광로에서 먼저 선철을 만들고, 다음에 제강 공정으로 옮겨 여분의 탄소를 제거하여 강을 만든다. 선철은 4%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강은 최고 1.7%, 보통 철재로서 사용되는 것은 0.3% 전후의 탄소가 들어 있다.

⇒ 직접 제강이라는 말이 있고 {간접제강}, 간접제철이라는 말이 있어요.

5.2.6. 간접 제철

‘간접 제철’은 용광로에서 바로 철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에서 선철을 생산하여 여기에 산소를 접촉시켜 철을 생산하는 방법이다. ‘간접제강’과 같은 말이다.

⇒ 처음 용광로 작업 했을 때 철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용광로 작업 녹은 상태의 선철이 제조가 되고 그걸로 끝인게 아니라 그걸 곧바로 녹은 상태에서 산소를 그 접촉시켜 가지고 연소시켜 가지고 탄소를 빼 먹고 탄소를 다 연소 시켜 가지고 그 철을 제조하기 때문에 이걸 {간접제철 이라}, 간접제강.

5.2.7. 야철

‘야철’은 제철 제강의 전반적인 과정이나 일을 이르는 말이다.

⇒ 제철제강의 전반의 과정이나 일을 {야철이라고} 보통 하는데

5.2.8. 정련(精鍊)

‘정련(精鍊)’은 광석이나 기타의 원료에 들어 있는 금속을 뽑아내어 정제하는 일을 말한다.

⇒ 시우쇠는 이미 {정련이} 된 거예요.

5.2.9. 탈탄(脫炭)

‘탈탄(脫炭)’이란 강철을 공기 속에서 가열할 때 표면의 탄소가 일산화탄소로 산화되어 표면의 탄소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 선철을 갖다가 무엇을 하느냐. 무질부리를 하든 아니면 간접 제강을 하든 이제 {탈탄을} 시켜야 지지, {탈탄}.

5.2.10. 침탄(浸炭)

‘침탄(浸炭)’은 강철의 탄소 함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탄소를 강철에 도입하는 방법이다. 저탄소강 표면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탄소 성분을 스며들게 하는 처리를 말한다. 목탄, 일산화탄소, 사이안화칼륨 따위에 강철을 넣고 가열한다.

⇒ {침탄을} 전제해서 애길 한 것 {침탄을} 시켜야 돼

5.2.11. 침탄용해

‘침탄용해’는 쇠를 열로 녹여서 액체 상태가 되게 하여 탄소 성분을 스며들게 하는 처리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쇠의 표면을 단단하게 만든다.

⇒ 식란 쇠는 철은 다 끌어다 모아서 다시 {침탄용해를} 해야 돼요.

5.2.12. 탈탄초강

‘탈탄초강’은 탈탄 작업을 통하여 쇠를 강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 요거는 아니 저 제가 이 판장쇠를 갖다가 강엿싯둑으로 가져가서 {탈탄초강을} 해야 되요.

5.2.13. 초강

‘초강’이란 탈탄 작업을 통하여 쇠를 강하게 하는 과정으로, ‘탈탄초강’과 같은 말이다.

⇒ 그러다보면 탈탄초강을 하거든 {초강이라고} 해서 볶을 초 {초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탈탄초강이에요.

5.2.14. 경화(硬化)

‘경화(硬化)’는 금속 재료에 가공이나 열처리를 하여 재료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일단 담금질이 되서 {경화가} 되면 깎칼이 안 들어가니까 숫돌로다가 해결해야 되요.

5.3. 주조

5.3.1. 주조(鑄造)

‘주조(鑄造)’란 녹인 쇠붙이를 거푸집에 부어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아 그렇니까 {주조라고} 하는 말은 쇠를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서 만드는 것을 말한다.

5.3.2. 거푸집

‘거푸집’은 금속을 녹여 부어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이다. 만들고자 하는 물건의 모양대로 속이 비어 있어 거기에 쇳물을 녹여 부어서 물건을 만든다.

- ⇒ 주조 쇳물을 만들어서 {거푸집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쇳물을 부어서 주조품으로 생산을 해서 이걸 탈탄해가지고 거기다가 금 상감을 했다 하는 그 옛날 주조도끼 백주철 탈탄 고체 탈탄 기술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5.3.3. 무질부리

‘무질부리’는 주조 작업 전반을 이르는 말이다.

- ⇒ 그 전반적인 주조의 전반적인 주조 작업의 전반적인 표현을 {무질부리라고} 해야 돼요.

5.4. 단조

5.4.1. 주검(鑄劍)

‘주검(鑄劍)’을 한자 그대로 번역하면 ‘주조한 칼’ 또는 ‘주조하여 칼을 만들다’라는 의미이다. 진·한 대 이전의 청동검 시절에는 글자 그대로 ‘주조한 칼’의 의미였다. 하지만 진·한 대에 들어와 철검이 제작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더 이상 주조방식으로 칼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도검 관련 문헌에 나오는 ‘鑄劍’의 ‘鑄’는 ‘주조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만들다’의 의미로 번역하여야 한다.

- ⇒ {주검은} 일단 주조된 칼이죠. 예 “주조의 칼을 만들다” 또는 이렇게 의미를 지니고. 그 진한대 이전 청동기 시절은 글자 그대로 주조한 칼의 의미를 지닌다가 이제 {주검이고요}.

5.4.2. 단조(鍛造)

‘단조(鍛造)’는 대장간에서 철을 반 용융 상태로 달군 뒤 망치로 두드려 원하는 형태의 철제품을 만드는 방법으로 주로 농구와 무기의 제작에 이용된다.

- ⇒ {단조는} 역시 학술 용어구요. 그냥 한문으로 두드릴 단에 만들 조지 뭐.

5.4.3. 풀무질

‘풀무질’은 풀무로 바람을 일으키는 일을 말한다.

⇒ 반 용해 상태로 녹여가지고 화덕에 넣고서 {풀무질을} 해가지고 녹여서 끄내서 모루에 올려놓고



[사진 51] 단조



[사진 52] 풀무질

5.4.4. 담금질

‘담금질’은 칼날을 불에 달군 후 칼날을 수평으로 찬물에 잠시 넣었다가 꺼내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칼날의 경도는 강해지고 칼등 부분은 연성이 개선된다.

⇒ 그건 {담금질이라고} 그래요. 그 {담금질만} 하게 되면 또 이 뿔 쇠는 깨져요.



[사진 53] 담금질

5.4.5. 메질

‘메질’은 달군 쇠를 집게로 집어 모루 위에 올려 놓고 메질꾼이 커다란 망치(메)로 두드리는 행위를 말한다.

⇒ {메질은} 두드리는 거죠.



[사진 54] 메질

5.4.6. 닦달질

‘닦달질’은 쇠를 망치로 빠르게 치는 작업을 말한다. “남을 단단히 으박질러서 혼을 내다”라는 의미의 ‘닦달하다’와 관련이 있다. 망치로 빠르게 치는 것이 마치 다른 사람을 닦달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만들어진 단어라고 설명한다.

- ⇒ 철편을 강철을 갖다가 다 깎잡아요. 얇게 이제 납작하게 {닦달질로} 해서. 그렇게 얇게 피는 걸 닦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4.7. 접쇠

‘접쇠’는 ‘쇠를 접는다’는 의미이다. 쇠를 불에 달구어 메질을 하게 되면 길이가 길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쇠를 도끼로 반쯤 잘라서 꺾어 접는다. 이것을 ‘접쇠’라고 한다. 접쇠를 여러 번 하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입자가 아주 고른 강철이 만들어진다. 이 강철을 다시 단조해서 칼의 형태를 만든 다음 칼날을 담금질해 숫돌로 날을 세워서 칼을 만든다. 한 자루의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는 과정을 일곱 번을 한다고 한다.

- ⇒ {접쇠도} 꺾어접는 {접쇠가} 있고 단순히 붙이는 {접쇠가} 있어요.



[사진 55] 접쇠(1)



[사진 56] 접쇠(2)

5.4.8. 날배기

‘날배기’는 시우쇠에다 잘 정선된 뿔쇠를 붙이는 작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도신의 전체를 뿔쇠로 만들면 부러지기 쉬우므로 시우쇠에 강한 쇠가 필요한 칼날 부분만 뿔쇠를 붙여서 도신을 만든다.

- ⇒ {날배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날배기}? 그것은 뿔쇠를 부화한 것. 날배기. 그 시우쇠에다가 뿔쇠나 이런 시우쇠에다가 그 날을 대서 날을 붙여.

5.4.9. 뜸질

‘뜸질’은 깨지기 쉬운 고탄소강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말한다.

- ⇒ {뜸질은} 깨지기 쉬운 칼날을 고탄소강을 담금질 후에 취성이 있기 때문에 깨지기 쉬우니까 {뜸질을} 해가지고 뜸들여.

5.4.10. 뜸들이다

‘뜸들이다’는 깨지기 쉬운 고탄소강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말한다.

- ⇒ 뜸질은 깨지기 쉬운 칼날을 고탄소강을 담금질 후에 취성이 있기 때문에 깨지기 쉬우니까 뜸질을 해가지고 {뜸들여}.

5.4.11. 꺾잡는다

메질과 담금질을 반복하여 도신의 형태를 잡는 것을 ‘꺾잡는다’라고 한다.

- ⇒ 그 형태를 만드는 것을 {꺾잡는다고} 그러는데.

5.4.12. 뚝달하다

‘뚝달하다’는 쇠를 망치로 빠른 속도로 치는 것을 말한다.

- ⇒ 그 망치도 이제 뚝달망치 무슨 망치 뭐 이런 {뚝달한다고} 그러자나요.

5.5. 연마

5.5.1. 연마

‘연마’는 칼날을 갈고 닦아서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 ⇒ 솥돌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연마라고} 하지.

5.5.2. 솥돌질

‘솥돌질’은 칼날의 표면을 솥돌로 가는 작업을 말한다.

- ⇒ 옛날 양반들이 연마라고 쓰고 또 그래서 {솥돌질이라고} 해요.



[사진 57] 숯돌질

5.5.3. 마조

‘마조’는 칼날의 표면을 가는 작업을 말한다.

⇒ 옛날 양반들이 연마라고 쓰고 또 그래서 숯돌질이라고 해요. {마조나} 다 한문이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5.6. 마광, 칠

5.6.1. 마광(磨光)

‘마광(磨光)’은 금속제품의 표면 마무리를 위하여 연마제와 광쇠로 문질러 광을 내는 공예기법을 말한다.

⇒ 고걸 {마광을} 해야 되는데 광을 내야 돼. 광을.

5.6.2. 생칠(生漆)

‘생칠(生漆)’은 옷나무에서 채취한 그대로의 칠액을 말한다. 이것을 칠하면 건조가 너무 빨라 광택도 나쁘기 때문에, 질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잘 뒤섞어 유화(柔化)하는 작업과 수분을 제거하는 두 공정을 거쳐 정제칠을 만든다.

⇒ 저 옷 받아가지고 수액 받아서 꼬내 가지고 잘 정제한 다음에 {생칠하기} 전에 저걸 하고 섞지 산화철이나 그런 꼬을음 같은 거 섞어가지고 까맣게 되지.

도검의 제작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종류
장인	대장장이, 야장(冶匠)
제철, 제강	제철(製鐵), 제강, 직접제강, 직접제철, 간접제강, 간접제철, 야철, 정련(精鍊), 탈탄, 침탄(浸炭), 침탄용해, 탈탄초강, 초강, 경화(硬化)
주조	주조(鑄造), 거푸집, 무질부리
단조	주검(鑄劍), 단조(鍛造), 풀무질, 담금질, 메질, 닦달질 접쇠, 날배기, 뜸질, 뜸들이다, 낡잡는다, 닦달하다
연마	연마, 숫돌질, 마조
마광, 칠	마광(磨光), 생칠(生漆)

6. 제작 도구

6.1. 가마, 화로

6.1.1. 대장간

‘대장간’은 쇠를 달구어 각종 연장을 만드는 곳이다.

⇒ 그건 {대장간에서} 두드리는 과정이지

6.1.2. 야장간(冶場間)

= 대장간

⇒ {야장간하면} 대장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 저 작업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6.1.3. 무질부리로

‘무질부리로’는 주물을 만드는 가마를 말한다. = 주물로(鑄物爐)

⇒ 소재를 선철을 받아오든 제철소에서 아니면은 {무질부리로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건 용해로에 요. 용해로. 용해로를 별도로 따로 만들어서 제조를 하든 다시 녹여야 돼요.

6.1.4. 쇠부리가마

‘쇠부리가마’는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함유한 금속을 분리·추출하여 정제하는 가마이다. 일반적으로 잡쇠덩이를 만드는 가마로서 무질부리가마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편이며 구조도 간단하다. 불을 지핀 지 10시간쯤 지나면 쇳물이 아래에 고이는데, 이때 쇠뿔구멍을 뚫어 쇳물을 뽑아낸다. = 제련로(製鍊爐)

⇒ {쇠부리가마라고} 해도 되고 그건 광의적 의미니까 아까 저기 그렇게 하든 쇠부리 화로라고 그러든지.



[사진 58] 쇠부리가마



[사진 59] 쇠부리가마

6.1.5. 강옛쇠독

‘강옛쇠독’은 광석이나 기타의 원료에 들어 있는 금속을 뽑아내어 정제하는 가마이다. ‘강옛쇠독’에서 잡쇠덩이를 잘게 분쇄하여 참숯과 함께 섞어 쌓아 올려놓고 송풍하여 가열하면 잡쇠덩이는 반응해 상태로 변하여 마치 열을 받은 강옛처럼 되면서 녹진녹진해진다. 이 과정에서 잡쇠에 박혀있던 숯과 쇠뿔 등 불순물이 제거되고 탄소량도 전체적으로 일정해진 결과 망치질에 견딜 수 있는 점력이 생긴다. 이것을 ‘강옛쇠덩이’라 한다.

⇒ {강옛쇠독이라는} 것은 일종의 제강로라고 봐야 돼요.

6.1.6. 제강로(製鋼爐)

‘제강로(製鋼爐)’는 강철을 만드는 용광로를 이르는 말이다.

⇒ 강옛쇠독이라는 것은 일종의 {제강로라고} 봐야 돼요.

6.1.7. 제철로

‘제철로(製鐵爐)’는 쇠를 만드는 용광로를 말한다.

⇒ {제철로는} 글자 그대로 제철론데 쇠를 만든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의는 쇠부리라고 해요.

6.1.8. 용해로(鎔解爐)

‘용해로(鎔解爐)’는 금속을 녹여서 액체 상태로 만드는 가마를 말한다. 여기에는 용선로, 반사로, 전로(轉爐), 전기로, 평로(平爐) 따위가 있다.

⇒ 선철을 받아오든 제철소에서 아니면은 무질부리로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건 {용해로예요}.

6.1.9. 용선로(鎔銑爐)

‘용선로(鎔銑爐)’는 무쇠를 녹이는 가마를 말한다.

⇒ {용선로라고} 그래요 예 그게 침탄용해로예요.

6.1.10. 침탄용해로

= 용선로

⇒ 용선로라고 그래요. 예. 그게 {침탄용해로예요}.

6.1.11. 가열로(加熱爐)

‘가열로(加熱爐)’는 금속을 가열하는 데에 쓰는 가마를 말한다. 금속의 압연이나 단련 따위의 가공을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다.

⇒ {가열로는} 단조로라고 하기도 하고 단조로 두드릴 단 단조로는 또 요즘 용어고

6.1.12. 단조로(鍛造爐)

‘단조로(鍛造爐)’는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쇠를 불에 달구는데 사용하는 화로를 말한다.

⇒ 가열로는 {단조로라고} 하기도 하고 {단조로} 두드릴 단 {단조로는} 또 요즘 용어고



[사진 60] 단조로



[사진 61] 단조로

6.1.13. 장입구

‘장입구’는 용광로에 원료를 집어넣는 구멍을 말한다.

⇒ 예 쇠통구멍 아가리 {장입구}.



[사진 62] 장입구



[사진 63] 장입구

6.1.14. 쇠통구멍

‘쇠통구멍’은 용광로에서 쇳물이 흘러나오는 구멍을 말한다. 한자로는 ‘유출구(流出口)’라고 한다.

⇒ 용광로 {쇠통구멍은} 슬러그 유출구를 흐를 유에 나올 출 그래서 쇠통 슬러그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 학술용어로는 유출구라고 그러는데. 쇠통구멍 쇠통.



[사진 64] 쇠뚝구멍

6.2. 단조

6.2.1. 모루

‘모루’는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쇧덩이를 말한다.
≡ 쇠모루 · 철침(鐵砧).

⇒ 끄내서 모루에 올려놓고 메질을 해대서 메질 메질을 해서 이걸 갖다가 붙여나가는 방법



[사진 65] 모루

6.2.2. 쇠모루

‘쇠모루’는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쇧덩이를 말한다.
‘모루쇠’라고 하기도 한다.

- ⇒ 그리고 요것이 {쇠모루인데} 머릿돌이라고 하지.
- ⇒ {모루쇠에다} 얹어 놓고 큰메로 메질을 하는 거죠.

6.2.3. 각모루

= 모루

⇒ 우리는 모루쇠라고 그렇지 모루쇠, 모루, {각모루}

6.2.4. 뿔모루

‘뿔모루’는 뿔처럼 생긴 모루를 가리키는 말이다.

⇒ 우리가 민속 전통 대장간 가면은 다 이렇게 {뿔모루가} 이렇게 뿔처럼 생긴 모루가 있는데.



[사진 66] 뿔모루

6.2.5. 풀무

대장간에서 화로에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풀무이다. 풀무에는 ‘손풀무’와 ‘디딜풀무’가 있다. 손풀무는 손잡이를 밀고 당기는 방식으로 바람을 일으킨다. 발로 밟아서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를 ‘디딜풀무’라 한다.

⇒ {풀무는} 손풀무가 있고 디딜풀무가 있고,



[사진 67] 풀무(손풀무)

6.2.6. 풍구

‘풍구’는 풀무와 같은 말로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이다.

⇒ {풍구는} 충청도 이쪽에서 풍구라고 그러고.

6.2.7. 손풀무

‘손풀무’는 궤 안에 장치하여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밀었다 하며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를 말한다.

⇒ 대장간에 {손풀무하고}, 이 까딱까딱 혼자 밟는 발풀무.

6.2.8. 디딜풀무

발로 밟아서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를 ‘디딜풀무’라 한다. ‘손풀무’보다 많은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제철로나 제강로에서 주로 사용한다. 디딜풀무에는 그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이 있는데, 대형은 ‘쇠부리가마’(제철로)에 주로 쓰고, 소형은 ‘강엿쇠둑’(제강로)에서 주로 사용한다.

⇒ {디딜풀무도}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소형은 강엿쇠둑 제강로에서 하는 거고 대형은 제철로 쇠부리를 하는 거고.



[사진 68] 디딜풀무



[사진 69] 디딜풀무

6.2.9. 발풀무

‘발풀무’는 발로 디디어 바람을 내는 풀무를 말한다.

⇒ 대장간에 손풀무하고 이 까딱까딱 혼자 밟는 {발풀무}.

6.2.10. 날름판

‘날름판’은 풀무에서 공기의 양과 압력을 조절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 요거는 이제 {날름판이라고} 그러지 이 밸브를.

6.2.11. 메

‘메’는 묵직하고 둥그스름한 나무토막이나 쇠토막에 자루를 박아 무엇을 치거나 박을 때 쓰는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장간에서는 망치보다 커서 두 손으로 잡고 쇠를 치는 도구를 가리킨다.

⇒ 망치 그것보다 더 큰 거 두 손으로 하는 것을 {메}.



[사진 70] 메

6.2.12. 큰메

‘큰메’는 둥글고 짧은 쇠덩이의 평평한 머리 쪽에 구멍을 뚫어 긴 자루를 박은, 커다란 메를 말한다.

⇒ 이제 망치가 있고 {큰메가} 있고 작은메가 있고

6.2.13. 작은메

‘작은메’는 망치보다는 크고 큰메보다는 쇳덩이의 크기가 작은 메를 말한다.

⇒ 이제 망치가 있고 큰메가 있고 {작은메가} 있고

6.2.14. 망치

‘망치’는 단단한 물건이나 불에 달군 쇠를 두드리는데 쓰는, 쇠로 만든 연장을 말한다. 모양은 마치와 비슷하나 훨씬 크고 무거우며 자루도 길다.

⇒ 그러고 {망치}, 집게 집게 이름도 제가 이제 많이 기억했었는데 지금 제가 쓰는 게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사진 71] 망치



[사진 72] 망치

6.2.15. 큰망치

‘큰망치’는 크기가 큰 망치를 이르는 말이다.

⇒ 큰메, 작은메, {큰망치}, 작은망치

6.2.16. 작은망치

‘작은망치’는 크기가 작은 망치를 이르는 말이다.

⇒ 큰메, 작은메, 큰망치, {작은망치}.

6.2.17. 꼭두망치

‘꼭두망치’는 망치의 일종으로, 도끼처럼 끝으로 갈수록 가늘게 생겼으나 날은 없고 둥근 형태를 하고 있다. 주로 쇠를 빨리 늘일 때 쓴다.

⇒ 이 망치는 뭐 {꼭두망치}.

6.2.18. 뉘달망치

‘뉘달망치’는 쇠를 얇게 펴거나 거칠어진 표면을 매끈하게 고르는 데 쓰는 망치를 말한다. 때리는 부위가 네모지며 넓적하게 생겼다. 동사 ‘뉘달하다’에서 기원한 것이다.

⇒ 얇게 펴 때 쓰는 거 {뉘달망치}.



[사진 73] 뉘달망치



[사진 74] 뉘달망치

6.2.19. 집게

‘집게’는 물건을 집는데 쓰는, 끝이 두 가닥으로 갈라진 도구를 말한다.

⇒ 저도 이제 망치 {집게를} 다 만들어 써요.



[사진 75] 집게



[사진 76] 집게

6.2.20. 불집게

‘불집게’는 불덩이, 숯불, 석탄 덩이 따위를 집거나 등잔이나 촛불의 불뚝을 집는 데 쓰는 집게를 말한다.

⇒ 집게는 {불집게}가 있고.

6.2.21. 평집게

‘평집게’는 물건을 집는 주둥이가 납작하고 평평한 집게를 말한다.

⇒ 큰메, 작은메, 큰망치, 작은망치, 집게, {평집게} 뒀.

6.2.22. 학주뎡이

‘학주뎡이’는 물건을 집는 주둥이가 학의 부리처럼 길게 생긴 집게를 말한다.

⇒ 요것도 이제 주뎡이가 길어서 {학주뎡이라고} 그러는데.



[사진 77] 평집게



[사진 78] 학주뎡이

6.3. 연마

6.3.1. 숯돌

‘숯돌’은 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을 말한다. ‘숯돌’은 15세기에 ‘삿돌ㅎ’(月印釋譜 8:98)로 처음 보인다. 이 ‘삿돌ㅎ’은 동사 ‘삿-[磨]’에 명사 ‘돌ㅎ[石]’이 결합된 어형이다. ‘삿돌ㅎ’은 17세기의 <杜詩諺解(重刊本)>에까지 보이나, 이 문헌에는 ‘숯돌ㅎ’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17세기 이후에는 ‘숯돌(ㅎ)’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숫돌’은 ‘뿔돌ㅎ’에서 먼저 제1음절의 두음이 ㅍ음으로 변하여 ‘숫돌ㅎ’이 되고, 이어서 제2음절의 말음 ‘ㅎ’이 탈락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면 이제 그렇게 {숫돌로} 갖고 나서



[사진 79] 숫돌



[사진 80] 숫돌

6.3.2. 거친 숫돌

‘거친 숫돌’은 숫돌 중에서 딱딱하고 표면이 고르지 않은 숫돌을 말한다.

⇒ 그냥 {거친 숫돌이라고} 그러지 굳이 한자로 안 쓰죠.

6.3.3. 고운 숫돌

‘고운 숫돌’은 숫돌 중에서 부드러운 숫돌을 가리키는 말이다.

⇒ 거친 숫돌 {고운 숫돌이} 있어요.

6.3.4. 깎칼

‘깎칼’은 칼날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있어 양 손으로 잡고 쇠를 깎는 칼을 말한다. 단조 공정에서 도신의 형태가 만들어지면 깎칼을 이용하여 두께를 조절하고 날을 세운다.

⇒ 일단 담금질이 되서 경화가 되면 {깎칼이} 안 들어가니까 숫돌로다가 해결해야 되요.



[사진 81] 깎칼



[사진 82] 깎칼

6.4. 마광, 기타

6.4.1. 광쇠

‘광쇠’는 쇠붙이에 광을 내는 데 쓰는 연장이다. 이는 없으며 날카로운 모서리로 쇠붙이를 깎는다.

⇒ {광쇠를} 만들려면 그럴려면은 아까 무쇠를 가지고 해야 돼요.

6.4.2. 주척(周尺)

‘주척(周尺)’은 주례(周禮)에 규정된 자로서, 한 자가 곱자의 여섯 치 육 분, 즉 23.1cm이다.

⇒ 여기서 {주척이라고} 쓰신 다음에 그것도 하나 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도검의 제작 도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종류
가마, 화로	대장간, 야장간(冶場間) 무질부리로 쇠부리가마 강엿쇠독 제강로(製鋼爐) 제철로 용해로(鎔解爐) 용선로(鎔銑爐) 침탄용해로 가열로(加熱爐) 단조로(鍛造爐) 장입구 쇠똥구멍
단조	모루, 쇠모루, 뿔모루, 각모루, 풀무, 풍구, 손풀무, 디털풀무, 밭풀무, 날름판, 메, 큰메, 작은메, 망치, 큰망치, 작은망치, 닭달망치, 꼭두망치, 집게, 평집게, 불집게, 학주댕이
연마	숫돌, 거친 숫돌, 고운 숫돌, 깎칼
마광, 기타	광쇠, 주척(周尺)

7. 장식

7.1. 가죽

7.1.1. 어피(魚皮)

‘어피(魚皮)’는 물고기의 가죽으로, 칼집이나 칼자루를 감싸는 내구제로 사용한다.

⇒ {어피는} 칼집만 감싸는 게 아니라 칼자루도 감쌉니다.

7.1.2. 매화교(梅花鮫)

‘매화교(梅花鮫)’는 칼집을 감싸는 어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어피 중간 중간에 꽃처럼 도드라진 무늬가 있는 가죽을 말한다.

⇒ 어피가 일정한 패턴 중간 중간에 어떤 꽃처럼 좀 도드라지게 알뜰히 박힌 느낌이 있는 거 이제 그런 게 {매화교조}.

7.1.3. 교어피(鮫魚皮)

‘교어피(鮫魚皮)’는 상어의 껍질이다. 이것을 말려서 환도 자루나 안경집 따위에 붙여서 쓴다.

⇒ 사어피나 {교어피나} 다 상어 얘기 하는 거 맞고.

7.1.4. 사어피(沙魚皮)

‘사어피(沙魚皮)’도 상어의 껍질을 말한다. ‘사어’는 ‘상어’의 고행이다. ‘상어’는 17세기에 ‘사어, 상어’, 18세기 ‘사어’, 19세기 ‘사어, 상어, 상어’로 나타나다가 20세기 ‘상어’로 정착한다. ‘상어’는 ‘리어>이어>잉어’, ‘부어>붕어’와 마찬가지로 ‘魚(어)’의 ‘ㅇ’ 음을 첫음절 종성에 붙인 것이다. 한편 ‘사어피’는 17세기 문헌인 <東醫寶鑑>에 ‘사어피’로 나온다(鮫魚皮 사어피<東醫寶鑑, 2:2b>).

⇒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어피로} 감싸고 칼집에 고리달고 색끈이나 가죽띠로 패용하다는 건 똑같은 거 봐서는 이제 조선초의 패검이나 고려시대 패검이나 거의 비슷한 스타일인거 같아요.

7.1.5. 해사어피(海沙魚皮)

= 사어피

⇒ 근데 매화교든 {해사어피든} 다 상어라는 거만 적어주시면 되구요.

7.1.6. 가오리가죽

가오리의 껍질로 사어피와 비슷하여 환도의 가죽 장식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 일반 어피라고 했을 때 의외로 {가오리가죽도} 옛날에 많이 썼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 같은데.

7.2. 술

7.2.1. 유소

‘유소’는 갖가지 색실을 꼬아서 끈목을 만들고 이 끈목으로 다양한 매듭을 지은 것이다. 그 끝에는 주로 딸기술을 드리운다.

⇒ {유소} 구멍은 그러니까 수술 예 수술을 맨 구멍이고 .

7.2.2. 홍수조아(紅條穗兒)

‘홍수조아(紅條穗兒)’는 붉은색 유소를 길게 드리워 칼을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다음에 {홍조수아는} 보통 쓰니까.

7.2.3. 다회(多繪)

실을 합사해 여러 가닥을 꼬아 만든 끈목으로 만드는데, 이 끈목을 조선시대에는 ‘다회(多繪)’라고 하고, 끈목 만드는 것을 ‘다회친다’라고 하였다.

⇒ 옛날 양반들은 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끈이 필요하기 때문에 끈은 한문으로 하면 {다회고} {다회를} 할려면 그 직기가 필요하지.

7.2.4. 봉술

‘봉술’은 술의 하나로 머리 부분에 종이나 실, 형짚, 쇳조각 따위로 원기둥꼴로 동인 술이다.

⇒ 술에는 딸기술하고 {봉술}. 그게 메인이 되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사용되는 거구요.

7.2.5. 딸기술

‘딸기술’은 머리 부분에 종이나 나무 따위를 받쳐 딸기의 윗부분같이 도도룩하게 만든 술이다. 술판에서 술을 떼기 전에 4올이나 5올을 묶어 놓은 후 이것을 짝수인 8묶음, 10묶음, 12묶음으로 만들었으며, 차례로 엮어서 가운데에 창호지로 만든 콩알만 한 심을 넣고 조여 만든다.

⇒ 보통 검에 쓰는 술이 {딸기술이거든요}.

7.3. 문양

7.3.1. 귀면문(鬼面紋)

‘귀면문(鬼面紋)’은 도깨비, 혹은 치우(蚩尤)의 형상을 문양화한 것이다. 벽사(辟邪)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기와나 귀면 주두(柱頭) 등에 많이 그려졌으며 인검(寅劍)의 코등이에도 흔히 나타난다.

⇒ 사실은 {귀면문} 그러니까 애자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면문 또는 요즘 말하는 식으로 치우문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7.3.2. 애자문(睚眦紋)

‘애자문(睚眦紋)’은 애자의 모양을 한 문양이다. 애자는 일반적인 짐승이 아닌 신령한 짐승으로 용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용이 되지 못한 존재를 말한다.

⇒ 그래서 {애자문이} 바로 어떤 살생의 귀물인 도검에 어떤 힘을 부여하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식의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앞에 덧붙게 되는 거죠.

7.3.3. 용문(龍紋)

‘용문(龍紋)’은 용의 모습을 한 문양이다. 용은 조화의 능력을 지닌 영험한 존재이자 왕

의 권위를 상징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다. 임금의 칼인 어검이나 어도에 주로 새겼다.

⇒ 어검 중에서 쓴 그런 식의 문양들은 애자문으로 안보고 {용문으로} 보는 거죠.

7.3.4. 치우문(蚩尤紋)

‘치우문(蚩尤紋)’은 중국에 전하는 전설상의 인물인 치우천왕의 모습을 한 문양을 말한다. ‘치우문’은 원래 전통적인 용어가 아니라 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원래는 ‘귀면문’이라 하였는데 현대에 들어 민족 개념을 도입하여 치우를 우리 민족의 선조와 영웅으로 추앙하는 마음과 바람이 작용하여 만들어진 이름이다.

⇒ 사실은 귀면문 그러니까 애자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면문 또는 요즘 말하는 식으로 {치우문}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7.3.5. 칠성문(七星紋)

‘칠성문(七星紋)’은 북두칠성의 전형적인 모양을 본뜬 문양이다.

⇒ 칠성도도 도에다가 {칠성문을} 시문한 칼인데

7.3.6. 구성문(九星紋)

‘구성문(九星紋)’은 북두칠성 모양에 별이 두 개 더 추가되어 있는 문양이다. 북두칠성의 여섯 번째 별 상단과 하단에 각각 별이 하나 더 붙어 있다.

예 {구성문은} 맞구요. 맞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드리면 북두칠성의 6개 별 그 좌우로 6번째 별에 좌보성과 우필성이 추가되어 9성을 이룬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7.3.7. 만자문(卍字紋)

‘만자문(卍字紋)’은 ‘만(卍)’ 자 모양으로 된 무늬이다. 만(卍) 자는 불가에서 길상의 표지로 인식하였다. 사찰이나 궁궐의 담이나 벽, 다리 난간 또는 장신구의 가장자리에서, 만(卍)자의 사방 끝을 연결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형태의 문양을 흔히 볼 수 있다. 사방 끝이 종횡으로 늘어나 펼쳐지면서 계속 이어지므로 회전의 개념에서 연상된 무한(無限)과 장구(長久)를 상징한다.

⇒ {만자문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 또 읽는 것은 학회에서는 완자문으로 읽거든요.

7.3.8. 만초문

‘만초문’은 덩굴풀 모양을 본뜬 문양을 말한다.

⇒ {만초문이} 옛날에 말하는 당초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7.3.9. 연화문

‘연화문’은 연꽃 모양의 무늬를 말한다.

⇒ {연화문} 여기까지는 이제 보상화문입니다.

7.3.10. 여의운두문(如意雲頭紋)

‘여의운두문(如意雲頭紋)’은 여의(如意)의 머리 부분을 떼어 도안화한 무늬이다. ‘여의’는 법회나 설법 때, 법사가 손에 드는 물건으로 대, 나무, 뿔, 쇠 따위로 ‘심(心)’자를 나타내는 고사리 모양의 머리가 있고, 한 자쯤의 자루가 달려 있다. 본래는 등 따위를 굽는 도구였으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법구(法具)의 하나로서 썼다

⇒ 실제로 말하면 {여의운두문이} 정식용어입니다.

7.3.11. 당초문(唐草紋)

‘당초문(唐草紋)’은 여러 가지 덩굴이 꼬이며 번어나가는 모양의 무늬를 말한다.

⇒ 만초문이 옛날에 말하는 {당초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7.3.12. 보상화문

‘보상화문’은 중국 당나라 때부터 흔히 사용된, 보상화를 주제(主題)로 한 장식적 덩굴 무늬. 불가에서 어떤 신이한 법력이나 해탈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기는 길상문이다.

⇒ {보상화문이} 특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 투구 투구의 챙 그 다음의 칼 같은 경우도 보상화는 이 순신 장군의 칼에도 쓰이고 예 많이 쓰입니다.

7.3.13. 편복문

편복(蝙蝠)은 박쥐 복(蝠)자의 발음이 복 복(福)자와 같다고 하여 오복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조선시대 내내 가구의 장식과 의복 장식, 도자기, 각종 그림의 소재로 널리 이용되었다. 후기로 오면 박쥐의 문양은 완전히 도식화되어 박쥐 그림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된다.

⇒ {편복문은} 맞고 편복을 쓰는 이유는 요거는 아시죠.

7.3.14. 경화자국

‘경화자국’은 담금질의 흔적으로 칼면에 나뭇결 모양으로 남아있는 문양이다.

⇒ 그게 그래 담금질 할 때 {경화자국이예요}. 칼을 보시면은 이 보통 제강 흔적이 보통 이렇게 이렇게 나뭇결 식으로 물결 문양으로 나오고 나뭇결 식으로 나오죠.

도검의 제작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종류
가죽	어피(魚皮), 매화교(梅花鮫), 교어피(鮫魚皮), 사어피(沙魚皮), 해사어피(海沙魚皮), 가오리가죽
술	유소, 홍수조아(紅條穗兒), 다회(多繪), 봉술, 딸기술
문양	귀면문(鬼面紋), 애자문(睚眦紋), 용문(龍紋), 치우문(蚩尤紋), 칠성문(七星紋), 구성문(九星紋), 만자문(卍字紋), 만초문, 연화문, 여의운두문(如意雲頭紋), 당초문(唐草紋), 보상화문, 편복문, 경화자국

제3부

연 구 결 과

제5장 마무리

제5장 마무리

지금까지 2009년 민족생활어 조사의 일환으로 도검(刀劍) 관련 어휘를 살펴보았다. 본 조사에서는 도검장 이은철 장인과 도검류 수집 연구자 이석재 관장을 직접 찾아가 칼과 관련한 다양한 어휘를 조사하였다.

현재 도검 관련 서적이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도검과 관련한 많은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관련 내용들은 기초적인 부분에 불과하며 심지어는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이 학계의 논의나 검증된 연구 결과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공간 속에서 정보를 얻고 있다. 그러다보니 잘못 전파된 사실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이러한 오류가 정설로 굳어지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전통도검의 기술이 단절되었다. 현재 10여 명의 도검장(환도장)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의 대부분이 스승으로부터 전수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도검 제작 기술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 발달할 수 있으나 도검 관련 어휘는 예전의 것이 전수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예전에 사용하던 용어가 있음에도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이 어형을 찾아 정리하고 또한 없어진 경우라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도검(刀劍)은 조선시대 군사들의 개인 무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도(刀)는 날이 한 쪽에만 있으며 곡선의 형태로 되어 있고 자루가 길면서 칼집이 없었다. 주로 베어서 살상효과를 냈다. 반면 검(劍)은 날이 양쪽에 있으며 형태는 직선으로 되어 있고 도(刀)에 비해서 자루가 짧고 칼집이 있다. 도(刀)와 검(劍)은 최초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나 전장에서의 효용도와 제작 공정상의 이점으로 인해 도는 전투용으로서의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전투용 도(刀)의 보편화 추세는 패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종래 검(劍)에만 있었던 칼집을 도(刀)에도 갖추게 했다. 한편 검(劍)은 칼날을 중시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자루와 장식에 치중하는 형태로 전환되기에 이른다.
- 2) 도검의 종류에는 환도류(環刀類)에 ‘환도(環刀), 예도(銳刀), 요도(腰刀), 패도(佩刀),

패검(佩劍) 등이 있으며, 의식이나 의례에 사용되던 ‘의도(儀刀), 운검(雲劍), 별운도(別雲刀), 보검(寶劍) 등이 있다. 벽사와 참사의 주술적 의미를 갖는 ‘참사검(斬邪劍), 칠성검(七星劍), 사인검(四寅劍), 삼인검(三寅劍), 사진검, 삼진검’ 등이 있으며, 장도류(長刀類)에는 ‘쌍수도(雙手刀), 장도(長刀), 장검(長劍), 왜검(倭劍), 해수도’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지팡이검(杖劍), 지팡이도(杖刀), 창포검(菖蒲劍), 죽장도(竹杖刀), 횃대검, 협도(挾刀), 월도(月刀), 언월도(偃月刀)’ 등이 있다.

- 3) 도검의 부분 명칭은 크게 칼자루, 칼날, 코등이, 호인, 스페, 칼집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칼자루의 부분 명칭에는 ‘칼자루, 뒷매기, 칼자루마구리, 앞매기, 자루매기, 철준(鐵鑪) 등이 있으며, 코등이에는 ‘코등이, 고동, 귀혈, 비녀장구멍, 절우(切羽), 박환(薄環) 등이 있다. 호인과 스페에는 ‘환도막이, 호인(護刀), 동호인(銅護刀), 칼날매기, 스페, 스페구멍, 목정혈, 유소혈’ 등이 있다. 칼날에는 ‘칼날, 도신, 칼끝, 칼등, 서슬, 혈조(血漕), 골, 흙, 의사도(擬似刀)’ 등이 있으며, 칼집과 관련된 어휘에는 ‘칼집, 칼집입, 칼집마구리, 가락지, 칼집고리, 띠돈, 끈목’ 등이 있다.
- 4) 도검의 재료인 철에는 ‘무쇠, 선철, 시우쇠, 순철, 참쇠, 뽕쇠, 강쇠, 강철(鋼鐵), 연철(軟鐵), 떡쇠, 떡철, 해면철(海綿鐵), 쇠똥, 묵철, 잡쇠, 판장쇠, 주철, 백주철(白鑄鐵), 괴련강(塊鍊鋼) 등이 있다. 이 중 도신은 시우쇠에다 잘 정선된 뽕쇠를 붙여서 만든다. 도신의 전체를 뽕쇠로 만들면 부러지기 쉬우므로 시우쇠에 강한 쇠가 필요한 칼날 부분만 뽕쇠를 붙여서 도신을 만든다. 또한 숙철을 수없이 두드리면 그 속에 들어 있던 불순물이 빠져나오고, 결정 입도(結晶粒度)도 작아져 강도가 높아지고, 더 질기게 되는데 이를 ‘백련강’이라 한다.
- 5) 도검의 제작 과정은 먼저 제철을 하여 철을 생산하고, 여기서 나온 묵철을 제강 작업을 통하여 강철을 만든다. 이렇게 생산된 강철로 단조 작업을 통해 도신을 만든다. 단조 작업과 관련한 어휘에는 ‘풀무질, 담금질, 메질, 닦달질, 접쇠, 날배기, 뜸질, 뜸들이다, 깎잡는다, 닦달하다’ 등이 있다. 형태가 갖추어진 도신은 연마 작업과 마광 작업을 통해 완성된다.
- 6) 도검의 제작 도구에는 ‘모루, 쇠모루, 뿔모루, 풀무, 풍구, 손풀무, 디딜풀무, 발풀무, 날름판, 메, 망치, 닦달망치, 꼭두망치, 집게, 평집게, 불집게, 학주대이’ 등이 있다.
- 7) 도검의 장식에는 칼자루와 칼집을 감싸는 가죽으로 상어가죽이 사용된다. 매화교(梅花絞), 교어피(鮫魚皮), 사어피(沙魚皮), 해사어피(海沙魚皮) 모두 상어 가죽을 이르는 말이다. 상어가죽 외에 가오리가죽이 사용되기도 한다. 술로는 봉술과 딸기술이 주로 사용되고 홍조수야를 늘이기도 한다. 도검에 사용되는 문양은 다양하게 많으나 주로 ‘귀면문(鬼面紋), 애자문(睚眦紋), 용문(龍紋), 치우문(蚩尤紋), 칠성문(七星紋), 구성문(九星紋), 만자문(卍字紋), 만초문, 연화문, 여의운두문(如意雲頭紋), 당초문(唐草紋), 보상화문, 편복문’ 등이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도검 관련 어휘 조사를 통해, 다음과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1) 도검 관련 어휘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분야이다. 무기로서의 칼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됨으로써 관련 어휘도 멀어지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전통도검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현지조사로 기존에 잘못 알려지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 2)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도검류와 관련한 어휘가 100여 개 정도 실려 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의미가 너무 간략하여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많으며, 심지어는 잘못 등재되어 있거나 의미 기술을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사전 내용의 수정 및 개정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3) 도검류와 관련한 어휘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도검 관련 어휘망 구축에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4) 조사 결과물을 조사 어휘,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여 자료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도검류에 대한 조사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다. 지금까지의 조사와 연구에 대한 반성은 다음과 같다.

- 1) 조사자가 도검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조사하지 못한 어휘가 많다.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사전 조사를 충실히 하지 못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 같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준비 부족을 여실히 느꼈다.
- 2) 도검의 제작에 있어서 한 사람이 모든 전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실제로 도검장은 도신을 만드는 것을 주로 하고 다른 부분은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다. 그러므로 도검과 관련하여 다양한 어휘를 얻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여러 제보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정된 제보자를 조사하여 다양한 분야의 어휘가 조사되지 못하였다.
- 3) 도검 관련 어휘는 전통도검 기술의 단절로 인하여 전해지지 않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전통적이 어형을 찾아 정리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해지는 해당 어휘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새롭게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 姜性文(2002), 『朝鮮時代 刀劍의 軍事的 運用』, 『고문화』 제60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강신엽(2004), 『조선시대 운검, 별운검, 보검 연구』, 『학예지』 제11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강신엽(2008), 『朝鮮時代 儀狀用 刀劍 研究』, 『칼, 실용과 상징』, 고려대학교박물관.
- 고려대학교박물관(2008), 『칼, 실용과 상징』, 고려대학교박물관.
- 곽성훈(2002), 『왜란기 이후 한국 도검의 발달사 중 도검 형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혜·김영섭(1999), 『도검의 기능성 연구』, 『학예지』 제6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김성혜·박선식(1997), 『조선시대 도검의 실측과 분석』, 『학예지』 제11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민승기(2004),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 박재광(2004), 『조선시대 도검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학예지』 11,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박종군(1989), 『韓國刀劍에 關한 研究: 粧刀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教育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군사관학교(2002), 『한국의 칼 문화』,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육군사관학교(2004), 『조선시대의 도검』,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어검당(2003), 『조선 후기 무기 고증·재현』, 국립민속박물관
- 이석재(2004a), 『조선시대 도검의 유형분석-칼몸의 스펀지와 자루의 결합구조』, 『학예지』 제11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이석재(2004b), 『睚眦紋 研究-조선검의 고동, 그 名稱의 誤謬』, 『학예지』 제11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이석재(2008), 『무엇이 한국의 칼인가?』, 『칼, 실용과 상징』, 고려대학교박물관.
- 이승해(2004), 『조선시대 도검에 나타난 문양과 매듭장식에 관한 연구』, 『학예지』 제11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장미진(1983), 『韓國 刀劍物의 造形性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재형(2007), 『접쇠에 의한 도검 제작과 그 행위의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 부

08 도검장 조사어휘(장충덕)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 1	상세 분류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안	받은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단 정보 시기	명단 정보 요소	표준국어대사전 시정 주제(부분)		
수공업	도검장	도검	개념				칼	칼	명	명	{칼을} 완성하는 데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손이 필요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칼장이 필요하고 은쟁이 필요하고 뭐 방패 두석 뭐 대장장이 필요하고.	{칼을} 완성하는 데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손이 필요하데 전문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칼장이 필요하고 은쟁이 필요하고 뭐 방패 두석 뭐 대장장이 필요하고.		이은철(여주)	이석재 (2004a)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개념				도(刀)	도(刀)	명	명	{도는} 칼날이 한 쪽에 있고, 칼등이 이렇 게 있는 걸 {도라고} 그러고.	{도는} 칼날이 한 쪽에 있고, 칼등이 이렇 게 있는 걸 {도라고} 그러고.		이은철(여주)	이석재 (2004a)	0	*			
수공업	도검장	도검	개념				검(劍)	검(劍)	명	명	무기로 쓰는 크고 긴 칼. 주로 칼날이 양쪽 에 있는 것을 이른다.	칼등이 없고 칼날이 양쪽에 있는 것을 {검} 이라고} 그러는데, {검은} 주로 직선어구 요.		이은철(여주)	이석재 (2004a)	0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환도류(環刀類)			환도(環刀)	환도(環刀)	명	명	칼집에 둥근 고리가 있어 그 고리에 끈을 묶어 허리에 찰 수 있는 칼.	{환도는} 그 칼집에 둥근 고리를 만들어서 이 고리에 끈을 묶고 찌기 때문에 {환도라} 했던 거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환도'가 "예전에 군복에 각축어 치던 군도"라 고 되어 있는데 환도가 꼭 군도를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구터어 군복에 갖추어 지던 것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환도는 범용만 아니라 임박에서도 흔히 사용되던 칼의 중 하나이다. 곧 '환도'라 칼집에 고리가 있어 여기에 끈을 묶어 허리에 찰 수 있는 칼을 말한다. 한편 이은철 도검 장은 '환도'가 도신이 휘어 있기 때 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환도'가 칼날이 휘어서 '환도'라 한 것은 아니다. <문헌통록>에는 조선 환도의 칼날 형태가 '뿔뚝'이라 기록되어 있다. 곧 당시의 환도는 칼 날이 굽고 찡찡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환도'라는 명칭이 칼날이 휘어서 붙여진 이름은 아니다. '환도'란 패 용할 수 있는 칼을 의미한다.	이석재(서울)	강신염(2008)	0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환도류(環刀類)			예도(銳刀)	예도(銳刀)	명	명	1) 환도와 같거나 비슷한 칼. 전체 길이는 약 90cm, 날길이는 약 69cm, 자른 길이는 약 21cm이며, 무게는 900그램 정도이다. 2) 모음이 환도를 가지고 하던 강술. 삼월 경기(十八夜) 또는 이십사번(二十四夜) 무에 의 한 가지이다.	<표준국어대사전> '예도' 항목에는 "예전에 쓰던 끈이 뾰족한 군도(軍刀)의 하나. 환도와 비슷하게 생긴 것 으며, 전체 길이는 약 130cm이고 무게는 900그램 정도이다."라고 기 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 칼 의 재원에 대한 내용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 기록은 <무예도보통지>에 나오는 '날길이 3척 3촌, 자른 길이 1척, 무게 1근 8양'을 환시킨 것이 다. 곧 전체 길이 4척 3촌을 단위 편 환하여 130cm가 나온 것이다. 하지 만 130cm의 길이면 1.5-1.7kg 정 도 무게가 나가며 900g 정도가 나올 수가 없다. <무예도보통지>의 재원 은 영조책이 아니라 주척(1척=20.6) 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전체 길 이 약 90cm 정도의 크기가 나온다.	이석재(서울)	여경당(2003)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환도류(環刀類)			요도(腰刀)	요도(腰刀)	명	명	그러니까 환도를 곧 {요도라고} 통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도}는 칼, 주로 목전에 찌는데, 날이 석 자 두 치, 자루가 세 치로 칼날이 조금 휘우들하며 강철로 만들었다."라 고 기술하고 있는데 칼집이 없는 칼이라는 설명은 식재되어야 할 것 이다.	이석재(서울)		*	0				

08 도검장 조사어휘(장충덕)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안	받은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단 정보 시기	명단 정보 요소	발주국어 시점 (유제(要部))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장도류(長刀類)		쌍수도(雙手刀)	쌍수도(雙手刀)	쌍수도(雙手刀)	명	명	1) 칼이 길어 한 손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 두 손으로 사용하는 칼. 자루 길이는 30cm, 날 길이는 동호인의 포함하여 104cm이다. 동호인의 길이는 21cm이다. (수장도 2) 칼을 가지고 하는 심방기의 하나. 관두제 조사(切試)에 사용하였으며, 여러 가지 세(勢)가 있다. (농장도)	무예무종지만 정확히 봐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쌍수도의} 원래 이름을 장도라고 합니다.		이석재(서울)	여경당(2003)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장도류(長刀類)		장도(長刀)	장도(長刀)	장도(長刀)	명	명	1) 긴 칼. 2) 쌍수도. 3) 왜도	그러니까 {장도에도} 또 여러가지예요. 쌍수도같이 긴칼도 {장도}. 나중에는 일반 우리가 쓰는 한도 보통 가장 표준이 되는 칼도 일반적으로 쉽게 말할때는 일반인이 장도라고 합니다. 긴칼이었으니까 그래요.		이석재(서울)	여경당(2003)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장도류(長刀類)		장검(長劍)	장검(長劍)	장검(長劍)	명	명	양날의 긴 칼	{장검은} 마찬가지로 긴 칼이죠. 양날을 가지고 있는 긴 칼.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예전에 학리에 차던 긴 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장검"만 학리에 차던 칼이 아니라기 때문에 학리에 차던 칼이라는 기술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석재(서울)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장도류(長刀類)		왜검(倭劍)	왜검(倭劍)	왜검(倭劍)	명	명	1) =일본도(日本刀). 2) 일본도(日本刀)의 규격을 차용한 한도. 3) 일본도(日本刀)의 규격을 차용한 한도를 가지고 하던 무예.	{왜검} 같은 경우는 보통이 일본도를 가지고 하던 무예가 아니라 이젠 한도 일본도 같은 일본도의 규격을 차용한 한도를 가지고 하는 무예라고 해야죠.		이석재(서울)	여경당(2003)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장도류(長刀類)		왜도(倭刀)	왜도(倭刀)	왜도(倭刀)	명	명	1) =일본도(日本刀). 2) 일본도(日本刀)의 규격을 차용한 한도.	또한 왜검을 {왜도라고도} 불렀죠.		이석재(서울)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장도류(長刀類)		해수도	해수도	해수도	명	명	1) =일본도(日本刀). 2) 일본도(日本刀)의 규격을 차용한 한도.	<무예도보통지>에서 말하는 말인데 왜도를 왜검을 {해수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석재(서울)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장도류(長刀類)		장도(長刀)	장도(長刀)	장도(長刀)	명	명	무고통에 차고 다니는 칼집이 있는 작은 칼. 칼집과 자루는 금, 은, 명화(寧花), 대당(代唐), 불, 나무 따위로 장식한다. (농장도 1)	{장도는} 주머니 속에 넣거나 리는 걸 좀 많이 좀 애매하고요. 옷고름에 차고 다니는 칼집이 있는 작은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연할 말은 워낙하면 그 장식과 장용 호신의 기능을 지닙니다.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장도류(長刀類)		금장도(金粧刀)	금장도(金粧刀)	금장도(金粧刀)	명	명	금으로 장식한 장도. 호신 및 노래개의 용도로 진다.	장도는 아예 {금장도}, 은장도, 옥장도, 대모장도, 목장도, 을자장도, 화각장도, 상이장도 여기까지만 쓰셔도 장도의 대중적인 의미를 쓰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석재(서울)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장도류(長刀類)		은장도(銀粧刀)	은장도(銀粧刀)	은장도(銀粧刀)	명	명	은으로 만든 장도. 호신 및 노래개의 용도로 진다.	장도는 아예 {은장도}, 옥장도, 대모장도, 목장도, 을자장도, 화각장도, 상이장도 여기까지만 쓰셔도 장도의 대중적인 의미를 쓰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석재(서울)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장도류(長刀類)		목장도(木粧刀)	목장도(木粧刀)	목장도(木粧刀)	명	명	장도의 일종. 자루와 칼집을 옥으로 만들거나 구멍이 작은 칼.	장도는 아예 {은장도, 옥장도, 대모장도, 목장도, 을자장도, 화각장도, 상이장도 여기까지만 쓰셔도 장도의 대중적인 의미를 쓰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석재(서울)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장도류(長刀類)		목장도(木粧刀)	목장도(木粧刀)	목장도(木粧刀)	명	명	칼집과 자루를 나무로 만든 장도.	{목장도는} 나무가 재질이고, 을자장도는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재(서울)		*	0	

08 도검장 조사어휘(장충덕)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 1	상세 분류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참사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단 정보 시기	명단 정보 요소	발음규약 시정 기재(여부)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장도류(杖刀類)				대모장도(大母杖刀)		명	발성과 자루를 대모(大母)로 장식한 장도.	장도는 아예 금장도, 은장도, 옥장도, {대모장도}, 옥장도, 옥자장도, 화각장도, 상아장도 여기까지만 쓰셔도 장도의 대중적인 의미를 쓰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석재(서울)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장도류(杖刀類)				화각장도(牛角杖刀)		명	발성과 자루를 화각의 기법을 이용해 장식한 장도.	{화각장도는} 화각을 이용해서 쓰는 거고.	이석재(서울)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장도류(杖刀類)				상아장도(象牙杖刀)		명	발성과 자루를 상아로 꾸며 뿔에 지니고 다니도록 만든 칼.	{상아장도는} 상아 아귀 다 있는 거니까요.	이석재(서울)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장도류(杖刀類)				을자장도(乙字杖刀)		명	을(乙) 자를 갈게 놓아 것과 비슷한 모양의 칼.	목장도는 나무가 재질이고, {을자장도는}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재(서울)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장도류(杖刀類)				을자도(乙字刀)		명	을(乙) 자를 갈게 놓아 것과 비슷한 모양의 칼.	{을자도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패도예요.	이은철(여주)	0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장도류(杖刀類)				침시도		명	선비들이 호신용으로 지던 칼. 여자들이 지던 은장도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오거는 이제 {침시도라고} 해서 은장도 넣 자를 페뎠대...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장도류(杖刀類)			손칼		명	몸에 지니거나, 달고 다니던 짧고 작은 칼.	{손칼이} 주머니칼이고, 그건 자도라고 그 다음에 {주머니칼}이 나오니까요.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장도류(杖刀類)			주머니칼		명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쓰는 작은 칼.	주머니 {주머니칼}이고, 그건 자도라고 그 다음에 {주머니칼}이 나오니까요.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장도류(杖刀類)			자도(子刀)		명	작은 칼	작은 칼이 주머니칼이고, 그건 {자도라고} 그 다음에 {자도}가 나오니까요.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지팡이검(杖劍)				지팡이검(杖劍)		명	지팡이처럼 생긴 자루 안에 폭이 좁은 칼날을 숨겨 소지하는 칼.	그 장도, 장검 이렇게 해 가지고, 장검도 지팡이처럼 생긴 자루 안에 폭이 좁은 칼날이 들어가 있어서, 그 다음에 장도도 {지팡이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세분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이석재(서울) 박재광(2004)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지팡이검(杖劍)				지팡이도(杖刀)		명	지팡이처럼 생긴 자루 안에 폭이 좁은 칼날을 숨겨 소지하는 칼.	그 장도, 장검 이렇게 해 가지고, 장검도 지팡이처럼 생긴 자루 안에 폭이 좁은 칼날이 들어가 있어서, 그 다음에 장도도 {지팡이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세분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이석재(서울)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지팡이검(杖劍)				창포검(蒼蒲劍)		명	칼날이 창포잎처럼 생긴 칼.	{창포검은} 좀 웃기게 생겼어요. 칼등에 날이 있는 것. 반은 칼등이고 반은 날.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지팡이검(杖劍)				죽장도(竹杖刀)		명	발성과 칼자루를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칼.	{죽장도는} 대나무의 외형을 지닌 뒤 지팡이칼 뒤 이렇게 하던 되겠오.	이석재(서울) 민승기(2004)	0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지팡이검(杖劍)				횃대검		명	옷을 걸어놓는 횃대와 비슷한 모양의 칼.	그게 아예 {횃대검} 창포검 이런 거지.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창검도류(斬劍刀類)				창도(斬刀)		명	시형수를 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칼.	그래 {창도} 정도 그렇게 하죠.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창검도류(斬劍刀類)				형도(刑刀)		명	시형수를 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칼.	그래 창도 {형도} 그렇게 하죠.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창검도류(斬劍刀類)				참수도(斬首刀)		명	시형수를 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칼.	{참수도는} 좀 더 정확한거죠. 결국 죄인의 목을 베는 사용하는 칼이기 때문에 아직 말 그대로 표현이.	이석재(서울)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창검도류(斬劍刀類)				창형도(斬刑刀)		명	시형수를 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칼.	{창형도는} 상동 그 정도로 하면 되겠구요.	이석재(서울)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종류	창검도류(斬劍刀類)				만나칼		명	시형수를 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칼.	그냥 {만나칼이지} 뭐.	이은철(여주)			*			

08 도검장 조사어휘(장충덕)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 1	상세 분류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단 정보 시기	명단 정보 요소	발음규약 시점 (주제(부분))
수공업	도관장	도관	종류	협도, 월도, 인월도	협도	협도(狹刀)	협도(狹刀)	협도(狹刀)	명	1) 자루 길이 일곱 자, 칼날 길이 석 자, 무늬가 크고 정도(正刀), 날의 곡률이 매우 커서 도신의 일부뿐이거의 직도를 연상시키는 형상을 띠고 있다. 2) 심발기 또는 이심사반 무늬의 하나. 포물(伊州)이 익어진 것으로 여러 가지 자제가 있다.	용례	{협도}는 이거 죽 쥐라할까, 죽으면서 두께가 좀 두껍하고 무늬에 따라, 자루가 길고.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0	*	0	
수공업	도관장	도관	종류	협도, 월도, 인월도	월도	월도(月刀)	월도(月刀)	월도(月刀)	명	1) = 인월도. 2) 심발기 또는 무늬 이심사반 가운데 인월도를 이용하는 검술.	{월도}는 도신이 넓고, 그리고 도신이 넓다 보니깐 또 두께가 좀 얇아요. 무늬를 못쳐야 되니까.			이은철(여주) 어검당(2003)	*	0		
수공업	도관장	도관	종류	협도, 월도, 인월도	어별도	어별도(雁月刀)	어별도(雁月刀)	어별도(雁月刀)	명	옛날 무기의 하나로, 주승년 모양으로 생긴 칼. 길이는 6자 7치(203cm) 정도이며, 칼날은 길이 높고 휘도 적어지고, 절충을 해서 상모를 달았다. 누월도(月刀)	예를 들어 {인월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랬게 크게 휘어 나오지.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0	*	0	
수공업	도관장	도관	종류	협도, 월도, 인월도	장녹어월도	장녹어월도(靑龍雁月刀)	장녹어월도(靑龍雁月刀)	장녹어월도(靑龍雁月刀)	명	포명이나 기명(騎名)이 쓰인 긴 칼을 이르는 말. 날은 반달 모양이고, 칼등의 중간에만 갈래가 있어서 이중(二重)의 상모를 달아 두께 구멍이 있으며, 밑은 용의 아가리를 흉렸다. 중국식과 우리나라식의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것의 전체 길이는 일곱 자로 중국 것보다 조금 길다. 누인월도·월도(月刀)	{인월정통도}가 있고 {정통인월도}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왔다고 합니다. 죽이 다 크기 나오기 때문에 다른 칼은 아닙니다. 똑같은 칼을 이야기 하는 거라			이석재(서울)	*	0		
수공업	도관장	도관	종류	협도, 월도, 인월도	어별정통도	어별정통도(雁月正統刀)	어별정통도(雁月正統刀)	어별정통도(雁月正統刀)	명	포명이나 기명(騎名)이 쓰인 긴 칼. 누정통도. {대도}는 평단 모양으로 쓰는 일반적인 칼. 정통도와 같은 칼로 보시면 됩니다.	{정통인월도}가 있고, 정통인월도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왔다고 합니다. 죽이 다 크기 나오기 때문에 다른 칼은 아닙니다. 똑같은 칼을 이야기 하는 거라			이석재(서울)	*	0		
수공업	도관장	도관	종류	기타	대도	대도(大刀)	대도(大刀)	대도(大刀)	명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긴 칼. 누정통도.	칼의 전체적인 규격이 {대도라고} 하면은 {대도}는 평단 모양으로 쓰는 일반적인 칼. 정통도와 같은 칼로 보시면 됩니다.			이석재(서울)	*	0		
수공업	도관장	도관	종류	기타	중도	중도(中刀)	중도(中刀)	중도(中刀)	명	칼의 규격이 중한도보다 짧고 소도보다 긴 칼.	{중도}가, 중한도보다 짧고 소도보다 긴 칼을 일반에서 부르던 이름인 거고.			이석재(서울)	*	0		
수공업	도관장	도관	종류	기타	소도	소도(小刀)	소도(小刀)	소도(小刀)	명	칼의 규격이 중도보다 짧고 단도보다 긴 칼.	{소도}는 중도보다 짧고 단도보다 긴 칼을 일반에서 부르던 이름이고.			이석재(서울)	*	0		
수공업	도관장	도관	종류	기타	단도	단도(短刀)	단도(短刀)	단도(短刀)	명	허리춤에 꽂거나 품에 넣어 소지할 짧은 칼.	{단도}는 허리춤에 꽂거나 품에 넣어 소지하기 용이한 짧은 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석재(서울)	*	0		
수공업	도관장	도관	종류	기타	쌍검	쌍검(雙劍)	쌍검(雙劍)	쌍검(雙劍)	명	양손에 각각 잡고 사용하는 한 쌍의 짧은 칼.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쌍검'을 '쌍수도'와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쌍수도'는 긴 칼이고 '쌍검'은 짧은 칼 두 자루를 뜻하므로 잘못 기술된 것 같다.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관장	도관	종류	기타	장병기	장병기	장병기	장병기	명	양손을 사용해서 쓰는 무기.	{장병기}는 양손을 사용해서 쓰는 무기(장병기라고) 하고요.			이석재(서울)	*	0		
수공업	도관장	도관	종류	기타	단병기	단병기	단병기	단병기	명	한 손을 써서 사용하는 무기.	{단병기}는 한 손을 써서 사용하는 무기(단병기라고) 합니다.			이석재(서울)	*	0		
수공업	도관장	도관	부분양장	칼자루	칼자루	칼자루	칼자루	칼자루	명	손으로 칼을 잡는 부분	{칼자루}하면 어, 외장을 다 하면 이게 {칼자루}를 수도 있으니까 도신 자체의 {칼자루}.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0	*	0	

08 도검장 조사어휘(장충덕)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 1	상세 분류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안	받은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단 정보 시기	명단 정보 요소	표준국어대사전 (용례(어부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코등이			박권(薄環)	바퀴	명	코등이의 앞뒤에 덧붙이는 구멍 뚫린 작은 원반, 코등이 앞뒤로 각각 1~2개가 돌아가며, 코등이가 칼날 및 칼자루와 단단히 결합되도록 제작된다.	그리니가 절구를 {박권이라고} 썰놓는 게 있습니다.	이석재(서울)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호인			환도막이	명	명	칼날의 뿌리 부분을 구리로 감싸서 보호한 것. (= 동호인(銅護刃))	구등이를 {환도막이} 안에 끼는 동근성을 막아 이렇게 썰놓는 게 보이면 뭐 있는 말인가 같아오.	이석재(서울)	0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호인			호인(護刃)	명	명	칼날 스페 위에 넣을 링처럼 단 뒤집. 흔히 구리로 만들며, 칼이 자루에 꽂힐 때 넣을 부분이다.	{호인도} 꼭 동으로만 만든게 아니예요.	이석재(서울)	0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호인			동호인(銅護刃)	명	명	동으로 만든 호인. 호인은 대체로 구리로 만든다.	호인은 {동호인}이고 적동호인이 있고 백동호인이 있고. 그리니까 동은 동인데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철호인도 있습니다.	이석재(서울)		민승기(2004)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호인			적동호인(赤銅護刃)	명	명	적동으로 만든 호인.	호인은 동호인이 있고 {적동호인}이고 백동호인이 있고. 그리니까 동은 동인데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철호인도 있습니다.	이석재(서울)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호인			백동호인(白銅護刃)	명	명	백동으로 만든 호인.	호인은 동호인이 있고 적동호인이 있고 백동호인이 있고. 그리니까 동은 동인데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철호인도 있습니다.	이석재(서울)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호인			철호인(鐵護刃)	명	명	철로 만든 호인.	호인은 동호인이 있고 적동호인이 있고 백동호인이 있고. 그리니까 동은 동인데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철호인도 있습니다.	이석재(서울)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호인			칼날매기	명	명	칼날의 뿌리 부분을 구리로 감싸서 보호한 것. (= 동호인(銅護刃))	{칼날매기}, 자루매기, 마구리 그렇게 해야 되어 할 것 같아오.	이은철(여주)	0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스배			스배	명	명	칼날 중 칼자루 안으로 삽입되어 고정되는 부분. 조선시대에는 '수매'라고 했다.	{스배를} 칼부리라고 하면 되겠네.	이은철(여주)	0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스배			칼부리	명	명	스배와 같은 말.	스배를 {칼부리라고} 하면 되겠네.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스배			스배구멍	명	명	칼날을 칼자루와 결합시키기 위해 스페와 칼자루에 뚫어놓은 구멍.	{스배구멍이} 이제 못구멍이지 뭐 간단한 얘기에서.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스배			목정형	명	명	칼이나 호미, 쟁이 따위의 자루 속에 들어 박힌 스페 부분에 낸 구멍.	스배구멍을 {목정형이라고도} 하고, 유수구멍은 유수형이라고도 하죠.	이석재(서울)		이석재(2004a)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스배			유수형	명	명	스배에 유수를 달아놓을 수 있게 뚫어 놓은 구멍. 이 구멍에 유수를 달아놓아 스페와 칼자루를 결합할 수 있는 방식.	스배구멍을 목정형이라고도 하고, 유수구멍은 {유수형이라고도} 하죠.	이석재(서울)		이석재(2004a)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스배			목정(目丁)	명	명	칼자루와 칼날을 고정하기 위하여 스페 구멍에 끼우는 나무못.	칼자루와 칼날고장에 쓰는 나무못 이것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나무못'의 {목정이라고} 쓰시는 게 제일 낫거든요. 의미로 목정(木釘)이 올라 있다.	이석재(서울)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칼날			칼날	명	명	올채를 베는 칼의 날 부분.	도는 {칼날이} 한쪽에 있고, 칼등이 이렇게 있는 걸 도라고 그리고 칼등이 없고 {칼날이} 양쪽에 있는 것을 그릴조, 양쪽에 있는 것을 검이라고 그러는데.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칼날			도신	명	명	칼의 몸.	{도신이} 넓다 모니까 또 두께가 좀 얇아오.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칼날			칼끝	명	명	칼날의 맨 끝.	{칼끝}서술 쪽은 등에도 붙이고.	이은철(여주)	0				*	0

08 도검장 조사어휘(장충덕)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 1	상세 분류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받은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단 정보 시기	명단 정보 요소	발음규약 시기(예로)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칼날	칼등	칼등	칼등	칼등	명	명	칼날의 반대편에 날이 없는 부분	도는 칼날이 한쪽에 있고, {칼등이} 이렇게 있는 걸 도라고 그러고 {칼등이} 없고 칼날이 양쪽에 있는 것을 그릴조, 양쪽에 있는 것을 길이라고 그러는데.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칼날	서슬	서슬	서슬	서슬	명	명	칼끝의 날카로운 부분.	양예를 여기 보 서있는 것을 {서슬},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칼날	혈조(血槽)	혈조	혈조	혈조	명	명	칼날 표면에 길게 파놓은 홈	아 그런 {혈조라고} 그러는데 그런 다 한문이고.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0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칼날	골	혈조	혈조	골	명	명	칼의 무게를 줄이고 각의 피가 흘러나올 수 있게 칼날 표면에 파놓은 긴 홈	그거 뭐 {골도} 맞지. {골이} 맞죠. 흘어나니.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칼날	총	혈조	혈조	총	명	명	칼날 표면에 오목하고 길게 팬 홈.	그거 뭐 골도 맞지, 골이 맞죠. {흘어나} 골이나.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칼날	삼각도(三角刀)	삼각도	삼각도	삼각도(三角刀)	명	명	칼날의 단면 구조가 직삼각형인 칼.	셋가락 끼어 있는거 있지? 그거 한번 가지고 봐봐, 그런 {삼각도야}.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칼날	육각도(六角刀)	육각도	육각도	육각도(六角刀)	명	명	칼날의 양측면이 삼지가 두드러져 칼날의 단면이 육각형의 모양을 띠는 칼.	{육각도} 아가는 이제 앞뒤 문장을 바꾸셔서 칼날의 양측면에 양측면으로 삼지가 삼지가 두드러져 칼날의 단면이 육각형의 모양을 띠는 칼 이정도로 바꾸시는 게 좋겠 것 같아요.	이석재(서울)	민승기(2004)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칼날	오각도(五角刀)	오각도	오각도	오각도(五角刀)	명	명	칼등 부분에 양각을 세우지 않고 수평으로 되어 있는 칼	{오각도는} 말씀드리데로 이걸 밖으로 진가지죠.	이석재(서울)	민승기(2004)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칼날	의사도(擬似刀)	의사도	의사도	의사도(擬似刀)	명	명	기본적으로는 도의 형식을 가지나, 칼끝 1/3지점부터 양날검의 형식을 띠고 있는 칼.	{의사도는} 기본적으로는 도의 형식을 가지나, 칼끝 1/3지점부터 양날검의 형식으로 양날검이 형태를 띠는 거.	이석재(서울)	민승기(2004)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칼집	칼집	칼집	칼집	칼집	명	명	칼날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의 몸을 꽂아 넣어서 두도록 만든 물건. 목재로 외형을 만든 다음 외부에 한지, 아피, 옷칠 등으로 마감한다.	{칼집을} {대패질을 해서 만들고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0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칼집	도초(刀鞘)	도초	도초	도초(刀鞘)	명	명	칼날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의 몸을 꽂아 넣어서 두도록 만든 물건. '도'의 칼집을 따르아 구분하여 이르는 말.	칼집은 그런데 칼집하고 쓰시는 게 나으시, 아니면은 아까 같이 {도초나} 검초 쓰시는 게 나쁘네요.	이석재(서울)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칼집	검초(劍鞘)	검초	검초	검초(劍鞘)	명	명	칼날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의 몸을 꽂아 넣어서 두도록 만든 말.	칼집은 그런데 칼집하고 쓰시는 게 나으시, 아니면은 아까 같이 도초나 {검초} 쓰시는 게 나쁘네요.	이석재(서울)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칼집	칼집담	칼집담	칼집담	칼집담	명	명	칼을 넣는 칼집의 입구 부분 및 입구를 보정하는 절제 띠고리	{칼집담}, 이런건 입이지, 입은 입이다.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칼집	칼집마구리	칼집마구리	칼집마구리	칼집마구리	명	명	칼집의 아랫부분 및 이를 보강해주는 절제 띠고리	칼집담이, {칼집마구리} 이래야 확실할 것 같아요.	이은철(여주)		0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칼집	가락지	가락지	가락지	가락지	명	명	칼집을 강화하기 위해 칼집 위에 두른 금속 띠	아췌이, 지류, 자류메기, 요계 칼날메기, 이계 {가락지}, 이거 코등이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칼집	칼집고리	칼집고리	칼집고리	칼집고리	명	명	칼을 하리에 차기 위하여 칼집의 가락지대에 부착한 작은 고리	요계 가락지에 붙은게 {칼집고리고}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8 도검장 조사어휘(장충덕)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 1	상세 분류 2	원표제어 표준어	유림안	받은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단 정보 시기	명단 정보 요소	발음규약 시점 (표제어부)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칼집				피돈		명	발음을 하리에 매는 데 사용하는 금속 고리	{대부분 {피돈이} 있다고 봐야지. {근목들} 칼집고리와 피돈을 연결하는 근목으로 말한다면 칼집고리라고 똑같은 예간이죠.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0	*			
수공업	도검장	도검	부분명칭	칼집			근목	근목		명	칼집고리와 피돈을 연결한 근			이석재(서울)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광석			철광석	철광석		명	철을 함유하고 있어서 제철의 원료로 쓰이는데 광석, 자철석, 적철석, 광철석 따위가 있다.	{철광석(에서부터)} 철을 생산하는 로를 제철로라고 그러고.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0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광석			지철광	지철광		명	신광철로 이루어진 산화 광물. 등축 정계에 속하며 결정 그대로 또는 용어리 모양, 일면이 모양, 층 모양을 이루어 낸다. 검은색이며 금속광택이 있고 광물 가운데 자성(磁性)이 가장 강하다. 중요한 제철 원료로 쓴다.	우리는 철광석 가루 {지철광}을 일단, 자기 다 통정구나 자기 지 쇠칼구에 넣고 빼기다 구 그걸 다시 제로 저서 거진가 빼버리고.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광석			시철	시철		명	모래 모양으로 강이나 바다 밑에 퇴적된 철광석, 제철(製鐵) 원료로 쓴다.	요긴 사철이고. 모래철, 철광석, 모래산 철광석, 이게 엄청나게 귀한데, 세종세대에 부모는 우리나라 시철산지가 약 20여 군데가 남는다. 예 그렇게 있는데, 지금 현대에 이게 찾기 아주 힘들어요.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광석			쇠물	쇠물	쇠물	명	쇠물어의 성분이 들어 있는 물.	{쇠물} 여기서 보면 요게 예 {쇠물이고}, 구경이로 이제 바닥을 파가지고 제강을 하는 건데 이 재광을 이제 쇠물 광석을 철광석 쇠물이죠.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			무쇠	무쇠		명	쇠를 물처럼 녹여내는 선철(銑鐵)을 말한다. =생철(生鐵), 수철(水鐵)	별도로 또 따로 그 선철과 같은 탄소함량을 갖춰 는 몰도도 제조한 쇠를 길다가 {무쇠라고} 그러는데 {무쇠는} 일단은 주조용이라고 봐야 돼요.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			생철(生鐵)	생철(生鐵)		명	쇠를 물처럼 녹여내는 선철(銑鐵)을 말한다. =무쇠, 수철(水鐵)	{생철은} 분명히 재가 생각하기에는 옛날 사람들과는 확인 안한 것이지만은 {생철}은 제철도 해서 큰바도 나온 예 들리나온 확보된 제조된 확보된 쇠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			수철(水鐵)	수철(水鐵)		명	쇠를 물처럼 녹여내는 선철(銑鐵)을 말한다. =생철(生鐵), 무쇠.	{수철}도 선철과 마찬가지로 무쇠의 한자야.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			선철	선철		명	30~36%의 탄소를 함유하는 철의 합금(合金). 탄소 외에 규소·망간·인·황 등을 포함하며, 용광로의 쇠물에서 얻는다. 철 부스러지기 때문에 안전하거나 단련할 수 없다. 주물용 원료로 쓴다.	선철은 제철 시 큰바로 쇠물이 나오는 것을 {선철이라고} 그러고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			시우쇠	시우쇠		명	무쇠를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만든 쇠물이 하나. =숙철(熟鐵)·유철(柔鐵).	{시우쇠는} 아 강중이 좀 더당하게 구성된 아주 특수강이 아닌 아주 정선된 강철이 아닌 일반쇠를 {시우쇠라고} 하고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			숙철(熟鐵)	숙철(熟鐵)		명	무쇠를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만든 쇠물이 하나.	{숙철이냐} 목철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			순철	순철		명	쇠물이 조금도 섞이지 아니한 철. 진지기, 진공관, 합금 따위의 재료, 내식판, 축 매 따위로 쓴다.	딱씨가 무슨 무조건 {순철이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얘기 할 수 없어요.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			참쇠	참쇠		명	시우쇠를 정련한 것으로 정철(精鐵)이라 부른다.	{참쇠는} 고기는 이제 시우쇠의 일종이라고 봐야되지않은 정선이 잘된 쇠라고 그러하지.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			정철(精鐵)	정철(精鐵)		명	잘 풀려서 단련한 좋은 쇠물이. =참쇠	참쇠는 이제 {정철이}. 참쇠는 이제 정란 되었으니까.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08 도검장 조사어휘(장충덕)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 1	상세 분류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 장부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단 정보 시기	명단 정보 요소	발음규약 시정 특징(비고)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			저탄소강(低炭素鋼)	저탄소강(低炭素鋼)	명	명	탄소 함유량이 비교적 적은 강철. 흔히 철(鐵)이라 부르며, 가단성(可鍛性)이 뛰어나서 가공하기가 쉽다. 리벳, 철골(鐵骨)을 만들 때 많이 쓴다. 녹안강, 연강철.	고탄소강은 탄소 함량이 0.50이상을 초과한 강이라고 하고, 한 0.25에서 0.5까지를 중탄소강, 그 이하 0.25 밑에를 철까지 해서 저탄소강.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			중탄소강(中炭素鋼)	중탄소강(中炭素鋼)	명	명	탄소가 0.2~0.5% 들어 있는 강철.	고탄소강은 탄소 함량이 0.50이상을 초과한 강이라고 하고, 한 0.25에서 0.5까지를 중탄소강, 그 이하 0.25 밑에를 철까지 해서 저탄소강.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			고탄소강(高炭素鋼)	고탄소강(高炭素鋼)	명	명	탄소가 0.5% 이상 들어 있는 매우 굳은 강철. 녹강강(硬鋼).	{고탄소강은} 탄소 함량이 0.50이상을 초과한 강이라고 하고, 한 0.25에서 0.5까지를 중탄소강, 그 이하 0.25 밑에를 철까지 해서 저탄소강.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			산화철(酸化鐵)	산화철(酸化鐵)	명	명	철의 산화물. 산산화이철, 사산화삼철 따위가 있다.	{산화철은} 철이 먼저 금속이 매달아 생기고, 그 뒤에 녹이 녹은 것(산화철)이 생긴다고 하고 어쨌거나 녹은 것을 예 산화된 것을 {산화철이라고} 하는데 두가지가 있어 {구주용강이라는} 것은 이제 건축용에 뛰어나게 들어간단기 건축을 한다단기 빌딩 건물 구조물 목 건물이 아니라단기 건축물 전이 아니라도 탑을 세운단기 고층을 한단기 옛날에 그 그런 구조제에서 우시가 들어가는데 시우시는 구성이 강철과 연철이 혼합되었다.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			구조용강(構造用鋼)	구조용강(構造用鋼)	명	명	기계적인 강도를 고려하여 건축, 구조물, 조선 따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구조용강재(鋼材)를 통틀어 이르는 말.	{구조용강이라는} 것은 이제 건축용에 뛰어나게 들어간단기 건축을 한다단기 빌딩 건물 구조물 목 건물이 아니라단기 건축물 전이 아니라도 탑을 세운단기 고층을 한단기 옛날에 그 그런 구조제에서 우시가 들어가는데 시우시는 구성이 강철과 연철이 혼합되었다.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			쇠	쇠	명	명	1) 쇠의 녹이 유리나 강철은 빛깔을 띠우. 2) 높은 열에 녹아서 액체 상태로 된 쇠.	선철은 제철 시 곧바로 {쇠물}이 나오는 것을 선철이라고 그러고.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			탄소	탄소	명	명	1.0~3.6%의 탄소를 함유하는 철의 합금(合金). 탄소 외에 규소·망간·인·황 등을 포함하며, 용광로에서 얻는다. 선철 부스리지기 때문에 양면하거나 단면할 수 없다. 주물용 원료로 쓴다.	{선철은} 제철 시 곧바로 쇠물이 나오는 것을 {선철이라고} 그러고.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			주철	주철	명	명	1.7% 이상의 탄소를 함유하는 철의 합금(合金). 단단하기는 하나 부러지기 쉽고 강철에 비하여 쉽게 녹이 쓴다. 주조(鑄造)용기가 주위 용접 재료로 널리 쓴다. 녹주철	{주철은} 그걸 포함해서 별도로 또 따로 그 선철과 같은 탄소함량을 맞춰 녹 별도로 제 조한 쇠를 깎다가 무쇠라고 그러는데 무쇠는 일단은 주조용이라고 봐야 돼요.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			백주철(白鑄鐵)	백주철(白鑄鐵)	명	명	녹은 상태에서 급히 식혀 만든 흰 주철. 탄소 함량은 약 3%이며 아주 굳고 단단하다.	용해 무쇠를 용해된 무쇠를 깎다가 부어가지고 하면은 금병이 되 이게 {백주철}이 돼. {백주철}.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강해요.		이은철(여주)			0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			괴리강(塊鍊鋼)	괴리강(塊鍊鋼)	명	명	뜨겁게 담근 철강을 식혀서 산소를 뺀 다음 광석 안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드려서 철에 비하여 쉽게 녹이 쓴다. 주조(鑄造)용기가 주위 용접 재료로 널리 쓴다. 녹주철이 더 튼튼하게 만든 강철	용철은 {괴리강을} 이야기하는 거고 용광로 바닥에 가리면서 있는 거 피 조성이 끝나 후에 용광로 바닥에 가리면서 있는 것을 이제 목철 또는 {괴리강}.		이은철(여주)			0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철			탄소공구강(炭素工具鋼)	탄소공구강(炭素工具鋼)	명	명	구조강에 비하여 탄소가 많이 들어 있는 강철. 연삭 기공을 할 것으로 굳고 세면 할 때 잘 깎는 특성이 있다.	용철은 연철 특수강이고 초고탄강이기 때문에 {탄소공구강이라고} 그러고.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합금			피니우	피니우	명	명	피니우강의 낙연 철원 교목. 녹이는 20미터 정도이며, 양은 어긋나고 녹은 담갈 모양이 된다. 6월에 노란색을 띠 흰색 꽃이 취선(蓇葖)화서로 피고 열매는 둥 모양의 견과(堅果)로 9~10월에 익는다. 재목은 기구재, 나무판재는 섬유용. 어린 꽃봉오리는 말라서 차로 쓴다.	주로 흔히 쓰이는게 이제 {피니우} 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영나무를 써요.		이은철(여주)			*	0	

08 도검장 조사어휘(장충덕)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 1	상세 분류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도 정보 시조	명도 정보 영조	발음규약 시전 유제(예부)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칼집			영나무	영나무	명	두릅나무과의 낙엽 교목. 높이는 15~25미터이며, 잎은 어긋나고 5~9개로 갈라진다. 7~8월에 누런 녹색 꽃이 산형(傘形) 화서로 피고 열매는 둥근 핵과(核果)로 10월에 경게 익는다. 재목은 가구재, 나무껍질은 약재로도 쓴다.	주로 흔히 쓰이는게 이제 피나무 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영나무} 써요.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재료	칼집			후박나무	후박나무	명	복나무과의 상록 활엽 교목. 높이는 20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긴 타원형인데 두껍고 윤이 난다. 5~6월에 노란색을 띤 녹색 꽃이 가지 끝에 원주(圓錐) 화서로 피고 열매는 장과(漿果)로 다음 해 7월에 검은빛을 띤 자주색으로 익는다. 나무껍질은 염료와 약재로, 목재는 가구재와 선박재로 쓴다.	그 다음 영나무 말고 이제 일본사람들이 줄 거 쓰는 {후박나무}, 우리나라도 후박이 있잖아 {후박나무가} 있는데 {후박나무} 이게 그 좋지.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장인			대장장이	대장장이	명	대장일을 하는 기술적 노동자.	아장을 {대장장이라고} 하고.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0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장인			아장(尙屯)	아장(尙屯)	명	대장일을 하는 기술적 노동자.	{아장하면} 물론 글자 그대로 불릴 아예 붙인다 하면 쇠붙이 하나가 불릴 아예 장만장 자. {아장을} 대장이라고 하고.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제철, 제강			제철	제철	명	철광석을 채취하여 철을 뽑아내는 일. 주로 선철(生鐵)을 만들 때까지의 공정을 이른다.	{제철을} 해서 철을 생산하는 사람과 고장 그대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제강하는 일이 같이 언뜻되었기 때문에 장었꼭이러하는 것은 알중의 제강이라고 봐야되요.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제철, 제강			제강	제강	명	시유리를 불러 강철을 만들음.	제철 {제강의} 전반의 과정이나 임을 아철이라고 보통하는데 아철도 역시 함윤이기 때문에 아철 어전에 좌부리라고 부른다.			이은철(여주)		0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제철, 제강			직접 제강	직접 제강	구	미리 환원한 쇠돌로 선철(生鐵) 생산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강철을 생산하는 방법. 풍위가 높은 장광(精鑛)을 쓰며 코크스를 넣지 않는다.	근데 옛날은 아때요. 녹철 없고 그냥 곧바로 환원제 변화를 일으켜서 철이 되고 그냥 곧바로 아철 조각 아철조각을 얻고도 곧바로 강철이 되고 곧바로 철이 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막 나오는거야 동시에. 우리 간접 제강은, 제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 직접제철 {직접 제강이라고} 그러요.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제철, 제강			직접 제철	직접 제철	구	미리 환원한 쇠돌로 선철(生鐵) 생산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강철을 생산하는 방법. 풍위가 높은 장광(精鑛)을 쓰며 코크스를 넣지 않는다.	우리 전통방식은, 제어를 못하는 거죠. 그 대신 이런 {직접제철} 직접제강이라고 그러요.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제철, 제강			간접 제강	간접 제강	구	용광로에서 바로 철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에서 선철을 생산하여 여기에 산소를 첨가시켜 철을 생산하는 방법.	차 직접 제강이라는 말이 있고 {간접제강}, 간접제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제철, 제강			간접 제철	간접 제철	구	용광로에서 바로 철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에서 선철을 생산하여 여기에 산소를 첨가시켜 철을 생산하는 방법.	처음 용광로 작업 했을 때 철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라 용광로 작업 녹은 상태의 선철이 제조가 되고 그걸로 끝인데 아니라 그걸 곧바로 녹은 상태에서 산소를 그 연속시켜 가지고 연속시켜 가지고 탄소를 빼 먹고 탄소를 다 연소시켜 가지고 그 철을 제조하기 때문에 이런 {간접제철이야}, 간접제강.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제철, 제강			아철	아철	명	제철 제강의 전반적인 과정이나 임.	제철제강의 전반의 과정이나 임을 {아철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제철, 제강			정련(精鍊)	정련(精鍊)	명	광석이나 기타의 원료에 들어 있는 금속을 뽑아내어 정제하는 일.	시우씨는 이미 {정련이} 된거예요.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08 도검장 조사어휘(장충덕)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 1	상세 분류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참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단 정보 시기	명단 정보 요소	발음규약 시기(제1부)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재철, 재강			탈탄	탈탄	명	강철을 공기 속에서 가열할 때 표면의 탄소가 산화탄소로 산화되어 표면의 탄소량을 감소시키는 현상.	용례 선철을 굶다가 무연을 하나나, 무질부리를 한다면 이면 간접 재강을 하는 이게 (탈탄을) 시켜야지. (탈탄).		이은철(여주)			*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재철, 재강			침탄(浸炭)	침탄(浸炭)	명	탄소강 표면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탄소 성분을 스며들게 하는 처리. 목탄, 일산화탄소, 사이안화칼륨 따위에 강철을 넣어서 가열한다.	용례 {침탄을} 전제해서 애길한 것 {침탄을} 시켜야돼		이은철(여주)			*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재철, 재강			침탄용해	침탄용해	명	강철을 녹여서 액체 상태가 되게 하여 탄소 성분을 스며들게 하는 처리. 과정. 이 용해 과정을 통해 쇠의 표면을 단단하게 만든다.	용례 신란 쇠는 철은 다 끓여다 모아서 다시 {침탄용해} 해야 돼요.		이은철(여주)			*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재철, 재강			탈탄조강	탈탄조강	명	쇠를 강하게 하는 것	용례 모기는 아니 저 재가 이 관장쇠를 갖다가 관장철축으로 가져가서 {탈탄조강을} 해야 돼요.		이은철(여주)			*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재철, 재강			조강	조강	명	탈탄조강과 같은 말.	용례 그러다보면 탈탄조강을 하거든 {조강이라고} 해서 뉘를 쫓. {조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탈탄조강이에요.		이은철(여주)			*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재철, 재강	경화(硬化)	경화(硬化)	경화(硬化)	경화(硬化)	명	금속 재료에 가공이나 열처리를 하여 재료를 단단하게 만드는 일.	용례 열단 담금질이 되서 {경화가} 되면 꺾음이 안들어가니까 수돌로다가 해결해야 되요.		이은철(여주)			*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주조	주조	주조	주조	주조	명	녹인 쇠붙이를 거푸짐에 부어 용건을 만들.	용례 아 그렇니까 {주조라고} 하는 말은 쇠를 녹여서 거푸짐에 부어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주조	거푸짐	거푸짐	거푸짐	거푸짐	명	인물리는 물건의 모양대로 속이 비어 있어 거기에 쇠붙이를 녹여 붓도록 되어 있는 틀.	용례 주조 쇠붙이를 만들어서 {거푸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쇠물을 부어서 주조함으로써 생산을 해서 이런 탈탄해가고 거리가 금상강을 했다. 하는 그 옛날 주조도까 배주 될 탈탄 고체 탈탄 기술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이은철(여주)			*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주조	무질부리	무질부리	무질부리	무질부리	명	주조 작업 전반을 이르는 말.	용례 그 전반적인 주조의 전반적인 주조 작업의 전반적인 표현을 {무질부리라고} 해야 돼요.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단조	주검(鑄劍)	주검(鑄劍)	주검(鑄劍)	주검(鑄劍)	명	1) 주조한 칼. 2) 주조하여 칼을 만들다. 3) 칼을 만들다.	용례 {주검은} 열단 주조된 칼이죠. 예 "주조의 칼을 만들다" 또는 이렇게 의미를 지니고, 그 직함대 이전 청동기 시절은 글자 그대로 주조한 칼의 의미를 지닌다가 이제 {주검이라고}.		이은철(여주)			*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단조	단조	단조	단조	단조	명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일.	용례 {단조는} 역시 학술 용어구요. 그냥 한문으로 두드릴 단에 만들 조지 뭐.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단조	불무질	불무질	불무질	불무질	명	불무로 바름을 일으키는 일.	용례 반 용해 상태로 녹여가지고 회덕에 넣고서 {불무질을} 해가지고 녹여서 끄내서 모두 해 풀러놓고.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단조	담금질	담금질	담금질	담금질	명	고온으로 열처리한 금속 재료를 풀이나 기름 속에 담가 식히는 일	용례 그간 {담금질이라고} 그래요. 그 {담금질} 하게되면 또 이 뽕치는 캐지요.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단조	매질	매질	매질	매질	명	매로 쇠붙이를 치는 일.	용례 {매질은} 두드리는 거죠.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	0

08 도검장 조사어휘(장충덕)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받은 정보	참사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단 정보 시기	명단 정보 요소	발음규약 시점 (표제어부)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단조				덕발질	명	명	쇠를 망치로 빠르게 치는 작업.	평편을 강철을 깎다가 다 깎지나오, 앞게 이제 납작하게 {덕발질로} 해서, 그렇게 용 게 피는 걸 {덕발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단조				점쇠	명	명	철을 점는 것. 도신을 만들 때 점쇠 후 단조 과정을 수차례 거쳐서 만든다.	{점쇠도} 쪽아점은 {점쇠기} 있고 단순하 붙이는 {점쇠기} 있어요.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0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단조				날베기	명	명	시유석에다 잘 정선된 봉신을 붙이는 작업. 도신의 전체를 풍치도 만들면 부러지기 쉬우므로 시유석에 강한 쇠가 필요한 칼날 부분만 봉신을 붙여서 도신을 만든다.	{날베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날베기?}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단조				뜸질	명	명	깨지기 쉬운 고탄소강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	{뜸질은} 깨지기 쉬운 칼날을 고탄소강을 담금질 후에 취성이 있기 때문에 깨지기 쉬우니까 {뜸질}을 해가지고 {뜸들여}.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단조				뜸들이다	동	동	깨지기 쉬운 고탄소강을 부드럽게 하다.	뜸질은 깨지기 쉬운 칼날을 고탄소강을 담금질 후에 취성이 있기 때문에 깨지기 쉬우니까 {뜸질}을 해가지고 {뜸들여}.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단조				강장는다	동	동	어느 정도 기물의 형태를 잡다.	그 형태를 만드는 거를 {강장는다}고 그러는데.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단조				덕발하다	동	동	쇠를 망치로 빠른 속도로 치다.	그 망치도 이제 {덕발망치} 무슨 망치 뭐 이런 {덕발한다}고 그러지나오.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연마				연마	명	명	칼날을 갈고 뒤에서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가공.	{수돌}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연마}라고 하지.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연마				숫돌질	명	명	칼날의 표면을 숫돌로 가는 작업.	{숫돌} 양반들이 연마라고 쓰고 또 그래서 {숫돌질}이라고 해요.		이은철(여주)	0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연마				마조	명	명	칼날의 표면을 가는 작업.	{숫돌} 양반들이 연마라고 쓰고 또 그래서 {숫돌}이라고 해요. {마조니} 다 한문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아옴개.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마광, 질			마광(磨光)	마광(磨光)	명	명	금속제품의 표면 마무리를 위하여 연마제와 공진도 문질러 광을 내는 공예기법	그걸 {마광}을 해야 되는데 광을 내야되 광.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과정	마광, 질			생활(生漆)	생활(生漆)	명	명	불에 달이지 아니한 옷칠.	저 울 받아가지고 수액받아서 그나 가지고 잘 정제할 다음에 {생활하기} 전에 저칼랑고 섞지 산화철이나 그런 끼름을 같은거 섞어가지고 깨얇게 되지.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가마, 화로			대장간	대장간	명	명	쇠를 달구어 온갖 연장을 만드는 곳.	그간 {대장간에서} 두드리는 과정이지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가마, 화로			아장간(冶場間)	아장간(冶場間)	명	명	쇠를 달구어 온갖 연장을 만드는 곳.	{아장간하면} 대장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 저 작업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가마, 화로			무질부리로	무질부리로	명	명	수출을 만드는 가마 = 수출로(鑄物爐)	{수출}을 받아오는 제철소에서 어디 만든 {무질부리}를 필요로 해서 그건 난 용해로예요. 용해로 용해도를 필요로 때 로 만들어서 제조를 하든 다시 녹여 들어요.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0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가마, 화로			쇠부리가마	쇠부리가마	명	명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함유한 금속을 분리·추출하여 정제하는 가마. = 제련로(製鍊爐)	{쇠부리가마}라고 해도 되고 그간 광의적 의미니까 아까 저기 그렇게 하는 쇠부리화로라고 그러든지.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가마, 화로			강쇠치독	강쇠치독	명	명	광석이나 기타의 원료에 들어 있는 금속을 뽑아내어 정제하는 가마. = 정련로(精鍊爐)	{강쇠치독}이라는 것은 일종의 제강로라고 봐야되요.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8 도검장 조사어휘(장충덕)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 1	상세 분류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안	받은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2	출전정보 1	출판정보 2	출판정보 1	별첨국어 사전	별첨국어 사전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가마, 화로	모루	제강로	제강로	명	명	명	강철을 만드는 용광로.	강철(鐵)이라는 것은 일종의 {제강로}라고 해야 되고. {제철}하는 것. 그대로 제철(鐵)인데 쇠를 만든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의는 쇠부리라고 해야 되고.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가마, 화로	모루	제철로	제철로	명	명	명	쇠를 만드는 용광로.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가마, 화로	모루	용해로	용해로	명	명	명	금속을 녹여서 액체 상태로 만드는 가마. 이때는 용선로, 반사로, 전도(轉爐), 전기로, 평로(平爐) 따위가 있다.	선철을 받아오든 제철소에서 아니면은 무쇠부리도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건 {용해로}예요.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가마, 화로	모루	용선로(鑄鐵爐)	용선로(鑄鐵爐)	명	명	명	무쇠를 녹이는 가마.	{용선로}라고. 그대로 예 그게 청탄용해로예요.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가마, 화로	모루	청탄용해로	청탄용해로	명	명	명	무쇠를 녹이는 가마.	용선로라고 그대로 예 그게 {청탄용해로}예요.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가마, 화로	모루	가열로(加熱爐)	가열로(加熱爐)	명	명	명	금속을 가열하는 데에 쓰는 가마. 금속의 용융이나 단련 따위의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다.	{가열로}는 단조라고 하기도 하고 단조로 두드릴 단조로는 또 요즘 용어고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가마, 화로	모루	단조로	단조로	명	명	명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용제도 만들기 위해 쇠를 붙여 다루는데 사용하는 용어.	{가열로}는 {단조}라고 하기도 하고 {단조로} 두드릴 단 {단조}로는 또 요즘 용어고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가마, 화로	모루	집입구	집입구	명	명	명	용광로에 용액을 집어넣는 구멍.	예 {집입구}예요. {가마} {집입구}예요.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가마, 화로	모루	쇠용구멍	쇠용구멍	명	명	명	용광로에서 쇠물이 흘러나오는 구멍.	용광로 {쇠용구멍}은 슬래브 용광로를 할 때 나오 총 그래서 쇠용 슬래브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용광로 {쇠용구멍}이라고 그러는데. 쇠용구멍 쇠용.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단조	모루	모루	모루	명	명	명	대장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쇠덩어. 누쇠모루·월정(鐵砧).	그나서 모두에 올려놓고 매질을 예대서 매질 매질을 해서 이럴 것이다. 풀어나가는 방법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단조	모루	쇠모루	쇠모루	명	명	명	모루	그리고 요것이 {쇠모루}인데. 매질용이라고 하지.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단조	모루	모루쇠	모루쇠	명	명	명	{모루쇠}에다 얹어 놓고 큰베로 매질을 하 는거고.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단조	모루	볼머루	볼머루	명	명	명	볼처럼 생긴 모루.	우리가 {볼머루}라고 하면은 디 {이렇게} {볼머루}가. 이렇게 볼처럼 생긴 모루가 있는데.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단조	모루	커모루	커모루	명	명	명	모루	우리는 모루라고 그릴지 모루쇠, 모루, 모루새, {각모루}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단조	모루	풀무	풀무	명	명	명	풀을 피울 때에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 풀, 풀무와 쇠풀무 두 가지가 있다.	{풀무}는 쇠풀무가 있고 디딤풀무가 있고.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단조	모루	풍구	풍구	명	명	명	풀무.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	{풍구}는 풍청도 이쪽에서 풍구라고 그러고.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단조	모루	손풀무	손풀무	명	명	명	개 안에 장치하여 손편이를 잡아당겼다 밀었다 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	대장간에 {손풀무}라고. 이 {까막}이 손편이를 받음 풀무.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단조	모루	디딤풀무	디딤풀무	명	명	명	벌로 디디어 바람을 내는 풀무.	{디딤풀무}는 대항이 있고 소항이 있고. 소항은 강아쇠독 제강소에서 하는거고 대항은 제철로 쇠붙이를 하는거고.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단조	모루	발풀무	발풀무	명	명	명	벌로 디디어 바람을 내는 풀무.	대장간에 쇠풀무하고 이 까막이 손편이를 받음 풀무.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작도구	단조	모루	날풀판	날풀판	명	명	명	풀무에서 공기의 양과 압력을 조절해 주는 장치.	오거는 이제 {날풀판}이라고 그러지 이 날풀판.	이은철(여주)					*	0

08 도검장 조사어휘(장충덕)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 1	상세 분류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받은 정보	참사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2	출전정보1	출판정보2	출판정보1	명단 정보 유산	명단 정보 유산	발음규약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직도구	단조	매	매	매	매	명	명	목직이고 동그스름한 나무토막이나 쇠토막에 자루를 박아 무릎을 치거나 박을 때 쓰는 물건.	망치 그것보다 더 큰 거 두 손으로 하는 것을 {매}.		이은철(여주)	0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직도구	단조	매	매	매	큰매	명	명	동글고 짧은 쇠덩이의 평평한 머리 쪽에 구멍을 뚫어 긴 자루를 박은, 커다란 매.	이재 망치가 있고 {큰매}가 있고 작은매가 있고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직도구	단조	매	매	매	작은매	명	명	망치보다는 크고 큰매보다는 작은 매.	이재 망치가 있고 큰매가 있고 {작은매}가 있고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직도구	단조	망치	망치	망치	망치	명	명	단단한 물건이나 불에 달군 쇠를 두드리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연장. 모양은 마지와 비슷하나 훨씬 크고 무거운 자루도 걸다.	그리고 {망치}, 팡개 팡개 이놈도 제가 이제 많이 기억했는데 지금 제가 쓰는 게 굉장히 흔한데 있어오.		이은철(여주)	0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직도구	단조	망치	망치	망치	큰망치	명	명	크기가 큰 망치.	큰매, 작은매, {큰망치}, 작은망치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직도구	단조	망치	망치	망치	작은망치	명	명	크기가 작은 망치.	큰매, 작은매, 큰망치, {작은망치}.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직도구	단조	망치	망치	망치	두툼망치	명	명	쇠를 얇게 펴 때 쓰는 망치. 때리는 부위가 넓어서 두꺼우며 납작하게 생겼다.	얇게 펴 때 쓰는 거 {두툼망치}.		이은철(여주)	0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직도구	단조	망치	망치	망치	작두망치	명	명	망치의 일종	이 망치는 뭐 {작두망치}.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직도구	단조	집게	집게	집게	집게	명	명	물건을 잡는 데 쓰는, 끝이 두 가닥으로 갈라진 도구.	자도 이제 망치 {팡개}를 다 만들어 싸오.		이은철(여주)	0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직도구	단조	집게	집게	집게	평집게	명	명	물건을 잡는 주둥이가 납작하고 평평한 평집게.	큰매, 작은매, 큰망치, 작은망치, 팡개, {평집게} 뒤.		이은철(여주)	0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직도구	단조	집게	집게	집게	볼집게	명	명	볼덩이, 수북, 석탄 덩어리 따위를 집거나 등껍지나 쇠를 집는 데 쓰는 집게.	집게는 {볼집게}가 있고.		이은철(여주)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직도구	단조	집게	집게	집게	학주덩이	명	명	물건을 잡는 주둥이가 학의 부리처럼 길게 생긴 집게.	오랫도 이제 주둥이가 길어서 {학주덩이}라 하고 그러는대.		이은철(여주)	0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직도구	연마	숫돌	숫돌	숫돌	숫돌	명	명	칼이나 낫 따위의 연삭을 할 때 쓰는 돌. 누어석(礪石)·지리(砥石)·지석(砥石).	그러면 이제 그렇게 {숫돌}로 갈고 나서		이은철(여주)	0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직도구	연마	숫돌	숫돌	숫돌	가진숫돌	명	명	부먹하고 표면이 고르지 않은 숫돌.	그냥 가진숫돌이라고 그러지 굳이 합자도 안 쓰오.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직도구	연마	숫돌	숫돌	숫돌	고운숫돌	명	명	부드러운 숫돌.	가진숫돌 {고운숫돌}이 있어오.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직도구	연마	숫돌	숫돌	숫돌	팡갈	명	명	칼날을 깎는 칼.	원단, 덩크쟁이 되서 경화가 되면 {팡칼}이 안 들어가니까 숫돌로다가 해결해야 되오.		이은철(여주)	0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직도구	마광, 기타	광쇠	광쇠	광쇠	광쇠	명	명	쇠붙이에 광을 내는 데 쓰는 연장. 이는 없으며 날카로운 모서리로 쇠붙이를 깎는다.	{광쇠} 만들어면 그들러면 아까 무죄를 거지고 해야 돼오.		이은철(여주)		민승기(2004)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직도구	마광, 기타	광쇠	광쇠	광쇠	주척(周尺)	명	명	지의 하나. 주리(周禮)에 규정한 자로서, 한 자가 끝자의 여섯 지 폭 분, 즉 23.1cm이다.	여기다 {주척}이라고 쓰신 다음에 그것도 하나 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은철(여주)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제직도구	가죽	장식	장식	장식	어피(魚皮)	명	명	물고기의 가죽. 광점이나 칼자루를 감싸는 내구제로 사용한다.	{어피는} 광점만 감싸는 게 아니라 칼자루도 감쌌니다.		이석재(서울)			*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장식	장식	장식	장식	장식	매화교(梅花紋)	명	명	꽃잎을 감싸는 어피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어피가 일정한 패턴 중간중간에 어떤 꽃잎 모양 도드라지게 만들어 박히 느낌이 있는 거 이제 그렇게 {매화교}오.		이석재(서울)		민승기(2004)	*	0				
수공업	도검장	도검	장식	장식	장식	장식	장식	매화교(梅花紋)	명	명	꽃잎을 감싸는 어피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어피가 일정한 패턴 중간중간에 어떤 꽃잎 모양 도드라지게 만들어 박히 느낌이 있는 거 이제 그렇게 {매화교}오.		이석재(서울)			*					

08 도검장 조사어휘(장충덕)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 1	상세 분류 2	원표제어 표문어	올림말	발음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단 정보 시호	명단 정보 유식	발음국어 사전 유식(해부)
수공예	도검장	도검	장식	문양			만자문(만字紋)	만자문(만字紋)	명	명	'만' 자 모양으로 된 무늬.	{만자문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 또 읽는 것은 확�히에서는 만자문으로 읽거든요.	이석재(서울)	이승해(2004)		*	0	
수공예	도검장	도검	장식	문양			만초문	만초문	명	명	범람물 모양을 본뜬 문양.	{만초문} 옛날에 말하는 당초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석재(서울)	이승해(2004)		*	0	
수공예	도검장	도검	장식	문양			연화문	연화문	명	명	연꽃 모양의 무늬	{연화문} 여기까지는 이제 모정화문입니다.	이석재(서울)	이승해(2004)		*	0	
수공예	도검장	도검	장식	문양			어의두문(如霧 雲頭紋)	어의두문(如霧 雲頭紋)	명	명	어의(如霧)의 머리 부분을 떼어 도안화합니다.	실제로 말하면 {어의두문} 장식용어입니다.	이석재(서울)			*		
수공예	도검장	도검	장식	문양			당초문(唐草 紋)	당초문(唐草紋)	명	명	어려 가지 덩굴이 꼬이며 벌여 나가는 모양의 무늬.	만초문이 옛날에 말하는 {당초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석재(서울)	곽성훈(2002)		*	0	
수공예	도검장	도검	장식	문양			보상화문	보상화문	명	명	중국 당나라 때부터 흔히 사용된, 보상화를 주제(主題)로 한 장식적 덩굴무늬. 물가에 서 어쩔 수 없이 벌떡이나 헤탈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기는 길상문.	{보상화문} 특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 두루 두루의 꽃 그 다음의 길 같은 경우도 보아 아첨 신이한 벌떡이나 헤탈 등을 나타내어 쓰입니다.	이석재(서울)			*	0	
수공예	도검장	도검	장식	문양			편복문	편복문	명	명	부주의 모습을 본뜬 문양.	{편복문} 옷고 편복을 쓰는 이유는 요거는 아시죠.	이석재(서울)	곽성훈(2002)		*		
수공예	도검장	도검	장식	문양			경화지국	경화지국	명	명	담금철의 흔적으로 칼면에 나뭇결 모양으로 남아있는 문양.	그게 그래 담금철 할 때 {경화지국(에요)}, 칼을 보시면은 이 보물 제갈 흔적이 보롱 이렇게 이렇게 나뭇결 식으로 물결 문양으로 나오고 나뭇결 식으로 나오죠.	이은철(여주)			*		

찾 아 보 기

ㄱ

가락지88
 가마110
 가열로(加熱爐)112
 가오리가죽124
 가죽123
 각모루115
 간접 제강102
 간접 제철103
 강쇠94
 강엿쇠독111
 강철(鋼鐵)94
 거친 숫돌121
 거푸집105
 검(劍)54
 검병(劍柄)75
 검초(劍鞘)87
 경인미술관20
 경화(硬化)104
 경화자국128
 고동78
 고운 숫돌121
 고탄소강(高炭素鋼)97
 골85
 광쇠122
 괴련강(塊鍊鋼)96
 교어피(鮫魚皮)123
 구성문(九星紋)126
 구조용강(構造用鋼)98
 퀘철78
 귀면문(鬼面紋)125
 금장도(金粧刀)65
 깎칼121
 감잡는다108
 꼭두망치119
 끈목88

ㄴ

날름관117
 날베기107

ㄷ

다회(多繪)124
 닦달망치119
 닦달질107
 닦달하다108
 단도(短刀)72
 단병기73
 단조(鍛造)105
 단조로(鍛造爐)112
 단조절편96
 담금질106
 당초문(唐草紋)127
 대도(大刀)72
 대모장도(玳瑁粧刀)65
 대장간110
 대장장이100
 대절우79
 대환도55
 대환도(大環刀)57
 덧쇠79
 도(刀)54
 도병(刀柄)75
 도신83
 도초(刀鞘)87
 동호인(銅護刃)80
 뒷매기75
 디달풀무116
 딸기술125
 떡쇠94
 떡철95
 뜰들이다108

뜸질108
 띠돈88

ㅁ

마광122
 마광(磨光)109
 마조109
 만자문(卍字紋)126
 만초문127
 망나니칼69
 망치118
 매화교(梅花絞)123
 메117
 메질106
 모루114
 목장도(木粧刀)65
 목정(目丁)83
 목정철82
 무쇠91
 무질부리105
 무질부리로110
 목칠96
 문양125
 미칠(尾鐵)77

ㅂ

박환(薄環)79
 발풀무116
 백동호인(白銅護刃)81
 백련강(百鍊鋼)93
 백주철(白鑄鐵)98
 별운검59
 별운검(別雲劍)58
 별운도(別雲刀)59
 보검(寶劍)59
 보상화문127
 봉술125
 불집게120
 비너장구멍78
 뿔쇠93, 107
 뿔모루28, 115

ㅅ

사어피(沙魚皮)123
 사인검(四寅劍)61
 사인도(四寅刀)61
 사인참사검(四寅斬邪劍)61
 사인참사도(四寅斬邪刀)61
 사진검62
 사진도62
 사철90
 산화철(酸化鐵)97
 삼각도(三角刀)86
 삼인검(三寅劍)61
 삼진검62
 상아장도(象牙粧刀)66
 생철(生鐵)91
 생칠(生漆)109
 서슬84
 선철91
 소도(小刀)72
 소절우79
 소환도55
 소환도(小環刀)57
 손칼67
 손풀무116
 쇠뿔95
 쇠뿔구멍113
 쇠모루114
 쇠부리가마111
 쇠들90
 쇠물98
 수메82
 수철(水鐵)91
 숙철(熟鐵)92
 순철92
 술124
 숫돌120
 숫돌질108
 슬래그95
 스페81
 스페구멍82
 시우쇠92, 107
 쌍검(雙劍)73
 쌍검법57

쌍수도(雙手刀)62

○

앞매기76

애자문(睚眦紋)125

야장(冶匠)101

야장간(冶場間)110

야철103

어검(御劍)58

어도(御刀)58

어피(魚皮)123

언월도(偃月刀)71

언월청룡도72

엄나무99

여의운두문(如意雲頭紋)127

연마108, 120

연철(軟鐵)94

연화문127

예도(銳刀)56

오각도(五角刀)86

옥장도(玉粧刀)65

왜검(倭劍)63

왜도(倭刀)64

요도(腰刀)56

용문(龍紋)125

용선로(鎔銑爐)112

용해로(鎔解爐)112

운검(雲劍)58

월도(月刀)70

유소124

유소혈83

유출구(流出口)113

육각도(六角刀)86

은장도(銀粧刀)65

을자도(乙字刀)66

을자장도(乙字粧刀)66

의도(儀刀)58

의사도(擬似刀)86

이석재18

이은철17

ㄷ

자도(子刀)67

자루매기76

자철광90

작은망치118

작은매118

잡쇠96

잡쇠덩이111

장검(長劍)63

장도(粧刀)64

장도(長刀)63

장병기73

장입구113

저탄소강(低炭素鋼)97

적동호인(赤銅護刀)81

절우(切羽)78

집쇠107

정련(精鍊)103

정철(精鐵)93

제강(製鋼)101

제강로(製鋼爐)111

제련로96

제련로(製鍊爐)111

제철(製鐵)101

제철로112

주검(鑄劍)105

주머니칼67

주물(鑄物)95

주조(鑄造)104

주척(周尺)122

주철98

죽장도(竹杖刀)68

중도(中刀)72

중탄소강(中炭素鋼)97

중환도55

중환도(中環刀)57

지팡이검(杖劍)67

지팡이도(杖刀)67

직접 제강102

직접 제철102

집게119

大

참도(斬刀)69
 참사검(斬邪劍)60
 참쇠92
 참수도(斬首刀)69
 참형도(斬刑刀)69
 창포검(菖蒲劍)68
 철91
 철광석89
 철박물관35, 36
 철준(鐵罇)77
 철호인(鐵護刀)81
 침사도67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71
 초강104
 치우문(蚩尤紋)126
 칠109
 칠성검(七星劍)60
 칠성도(七星刀)60
 칠성문(七星紋)126
 침탄(浸炭)103
 침탄용해104
 침탄용해로112

ㄱ

칼53
 칼가플86
 칼가플86
 칼끝84
 칼날83
 칼날매기81
 칼등84
 칼뿌리82
 칼자루74
 칼자루마구리76
 칼집86, 99
 칼집고리88
 칼집마구리87
 칼집입87

코등이77
 큰망치118
 큰메117

ㅁ

탄소공구강(炭素工具鋼)99
 탈탄(脫炭)103
 탈탄초강104

ㅂ

관장쇠97
 패검(佩劍)57
 패도(佩刀)57
 편복문128
 평집게120
 풀무115
 풀무질105
 풍구116
 피나무99

ㅎ

학주맹이120
 해면철(海綿鐵)95
 해사어피(海沙魚皮)124
 해수도64
 혈조(血槽)85
 협도(挾刀)70
 형도(刑刀)69
 호인(護刀)80
 흙85
 홍수조아(紅條穗兒)124
 홍조수아57, 58
 화각장도(華角粧刀)66
 화로110
 환도(環刀)55
 환도막이80
 횃대검68
 후박나무100

■ 연구책임자 : 강정희(한남대학교)
■ 공동연구원 : 장충덕(충북대학교)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8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쇄일 2009년 11월 27일
발행일 2009년 11월 30일
인쇄 크리홍보(주) (02-737-5377)
